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사업 결과보고서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

사업책임자 : 서 예 원

2020. 3.

최종보고서 초록

관리번호			사업기간	2019년 5월 1일 ~ 2020년 1월 31일		
사 업 명	(한글) 제 6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영문) The 6 th Education ODA Conference					
사업책임자 (연구기관)	서예원 (한국교육개발원)	참 여 연구원수	총 4 명	연구 용역비	100,000천원	
요약						
-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는 교육부 주최,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연구재단 공동 주관으로 2019년 11월 28일 서울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에서 개최됨. -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지난 2014년에 개최된 제1회 교육 ODA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매년 교육 ODA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음. -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는 ‘한국 고등학교 ODA의 성과와 발전’을 주제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및 교육 분야 ODA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개발 협력의 다양한 파트너십 강화와 상생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음. - 총 131명이 참가한 이번 컨퍼런스는 고등교육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고등교육 개발협력의 다양성과 질 제고 노력을 논의하고 다양한 교육개발협력의 주체, 분야, 사업(프로젝트) 추진의 발전적 방향성을 모색하였으며, 고등교육 개발협력의 주요 관계자인 대학 전문가, 청년,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였다는 호평을 받았음. - 컨퍼런스가 연차별로 진행됨에 따라 관련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정보교류와 새로운 협력모색의 장이 되고 있어, 교육부 차원의 교육개발협력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적 의견 수렴이 가능함. - SDGs에 관한 각 분야의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교육개발협력과 관련된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개발협력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역량 구축과 네트워킹에 기여하는 교육 ODA 컨퍼런스의 대표성과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동 컨퍼런스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된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탐색하는 기축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특히, 다양한 대학 및 고등교육 관련 전문가들 간의 고등교육 ODA 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였으며, 단순한 학생 간 교류를 넘어서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상생의 교육개발협력이 가능한 고등교육 분야의 특수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고등교육 ODA 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에 기여함.						
색인어	한글	교육 ODA 컨퍼런스, 교육개발협력, 고등교육 개발협력				
	영어	Education ODA Conferenc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in Higher Education				

요약문

▶ 요 약 문

I 제목: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사업

II 사업 배경과 목적

1. 배경 및 추진 경과

- 교육부는 정부부처와 민간단체(NGOs),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각 유관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공유하며 교육 ODA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한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교육 ODA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음.
-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 교육부는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은 2014년 1차 교육 ODA 컨퍼런스부터 2019년까지 6회 연속으로 공모를 통해 교육 ODA 컨퍼런스 사업시행기관으로 선정되었음.

회차 (년도)	일시 및 장소	컨퍼런스 주제	주요 내용
1회(2014)	2014. 6. 24(화) 서울 The K-Hotel (거문고홀)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 의 현재와 미래	교육 ODA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토대 마련, 교육개발협력 사업 주체의 역 량 강화
2회(2015)	2015. 9. 18(금) 서울 The K-Hotel (거문고홀)	Post-2015 시대의 교육 분야 ODA 발전 방향	Post-2015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 ODA 비전 수립의 토대 마련, 지역별 교육개발 협력 사업 특징 및 전망 논의
3회(2016)	2016. 11. 30(수) 서울 엘타워 (그랜드홀)	SDGs 이행을 위한 한국 교육 ODA의 역할과 발 전 방향	SDGs 2030 이행을 위한 글로벌 이슈 논의 및 한국의 교육 ODA 역할과 발전 방향 탐색
4회(2017)	2017. 12. 19(화) 서울 코엑스(E홀)	국제개발협력에서 나의 길을 찾다	국제개발협력 진로 탐색을 통해 청년의 관련 분야 취·창업 활성화

회차 (년도)	일시 및 장소	컨퍼런스 주제	주요 내용
5회(2018)	2018. 11. 06(화) 강남 노보텔	협력과 상생-새로운 교육개발협력 생태계 구축	교육개발협력의 다양한 파트너십 강화와 상생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체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6회(2019)	2019. 11. 28(목) 동대문 노보텔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특성을 조명하고 신남방 국가들과의 전략을 논의함. 더불어 우리나라 및 개도국의 주체 및 이해관계자들의 상생을 위한 발전방향성을 모색함.

2. 목적

- 제 6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목적은 지난 5차례 컨퍼런스의 연속선상에서 SDGs 2030 교육비전의 시대적 요구를 중심으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및 교육 분야 ODA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하는 데에 있음.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음.
 - 1) 교육 분야를 포함하여 의학, 과학, 경영, 행정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고등교육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고등교육 개발협력의 다양성과 질 제고 노력을 논의함.
 - 2) 정부의 대외정책 추진 방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상생을 위한 신남방국가와의 고등교육 개발협력 전략을 제시함.
 - 3) 고등교육 기관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학문적·문화적 교류 현황과 더불어 GKS 수혜자들의 경험 공유를 통해 한국의 고등교육 수준 우수 인재 육성의 성과를 확인함.
 - 4) 고등교육 분야 교육개발협력의 현황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다양한 교육개발협력의 주체, 분야, 사업(프로젝트) 추진의 발전적 방향성을 모색함.

Ⅲ 사업 내용 및 범위

1. 사업 개요

- 행사명 :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 주제 :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
- 일시 : 2019년 11월 28일(목), 09:30 ~ 18:00
- 장소 :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서울 중구 소재)

2. 사업 추진 체계

가. 주최, 주관 및 시행 기관

- 주최 : 교육부
 - 주관 : 한국연구재단
 - 시행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 ※ 사업 주관기관(KEDI)과 공동기관(한국연구재단)의 협력체계로 운영

나. 컨퍼런스 실무 그룹(Working Group) 구성

- 기능 : 사업 실행 및 컨퍼런스 사무국 운영, 행사진행 및 예산집행
- 구성 : 사업책임자, 공동 연구진, 연구원(4인)

구분	성명	소속기관	직위(직급)	역할
연구책임자	서예원	KEDI	실원(연구위원)	사업 총괄 및 기획
공동연구진	안해정	KEDI	실장(연구위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윤종혁	KEDI	단장(선임연구위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연구원	기한술	KEDI	연구원	사무국 운영 및 예산 집행 지원

3. 사업 추진 내용

가. 추진 경과

-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부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사업」 시행 공모에 응모 (2019. 2.)
- 한국교육개발원(연구사업책임자: 서예원)이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2019. 5.)
- 협의회 개최 내용

일시	협의회 실시	내용
2019. 7. 11	교육부 1차 점검 협의회	전체적 컨퍼런스 방향성 논의(고등교육)
2019. 7. 24	사전협의회	컨퍼런스 준비 관련(한국연구재단)
2019. 7. 31	제1차 전문가협의회	컨퍼런스 프로그램 연사 관련(가천대, 고려대 등)
2019. 8. 14	제2차 전문가협의회 개최	컨퍼런스 프로그램 연사 관련(고려대, 경희대 등)
2019. 8. 22	사전 협의회 개최	컨퍼런스 프로그램 구성 관련 (학교교육연구실, 연구기획실 등)
2019. 8. 26	사전 협의회 개최	컨퍼런스 프로그램 구성 관련(교육조사분석연구실)
2019. 9. 4	제3차 전문가협의회	GKS 장학생 현황 및 연사 초청(국립국제교육원)
2019. 9. 24	제4차 전문가협의회	컨퍼런스 구성 및 연사 초청 관련(교육부)
2019. 10. 17	사전 협의회 개최	컨퍼런스 연사 초청 관련(교육복지연구실)
2019. 11. 13	사전 협의회 개최	컨퍼런스 부대행사 및 홍보계획 관련 (충남대, 송실대 등)
2019. 11. 21	전체 강연자 및 관계자 사전 협의회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 및 전체 강연자 참석
2019. 11. 26	사전 협의회 개최	컨퍼런스 개막식 및 오후세션 관련 (전북대, 대구가톨릭대 등)

나. 전문가협의회 추진 경과

1) 전문가협의회 개최 목적

- 교육개발협력의 최신 이슈 공유
- 컨퍼런스 강연자 추천 및 섭외 지원
- 컨퍼런스 세션 별 사전점검
- 컨퍼런스 프로그램 구성 등 교육 ODA 컨퍼런스 추진 관련 제언
- 컨퍼런스 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구축

2) 전문가협의회 추진 방법

- 원내 전문가, 대학, 개발협력 담당자, 대학생 등 고등교육 ODA 관련 집단 대상 협의회를 5회에 걸쳐 실시
- 4회의 전문가협의회 및 2회의 교육부와의 중간 점검 협의회 실시

다. 컨퍼런스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09:00-09:30	참가자 등록 및 인사	
09:30-10:00	개회식	
10:00-10:30	기조강연	“국제교류에서 개발협력으로: 고등교육 ODA 상생의 길을 묻다” ▶ 오준(경희대)
10:30-12:00	[세션 I] 고등교육 개발협력 현황: 다양성과 질 제고	수혜에서 공여로: 타슈켄트 의대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이끈다 ▶ 최재욱(고려대)
		Shining Uzbekistan: The Future of Tashkent Medical Academy with Korea ▶ Tuychiev Laziz Nadyrovich(타슈켄트 의대)
12:00-13:30	오 찬	
13:30-14:30	[세션 II] 고등교육 개발협력 전략: 신남방 국가와의 파트너십	신남방 국가와의 고등교육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 채재은(가천대)

시 간	내 용		
14:30-16:00	[세션 III] 고등교육 개발협력 성과: 우수인재의 육성	나가자 세계로! 자라자 인재로! 대학생 해외파견 봉사활동의 성과 ▶ 서해애(부산대)	
		개발도상국에서 더 넓은 세상을 만나다 ▶ 김은하(송실대), 김혜원(대구가톨릭대), 문도현(이화여대), 박종찬(서울대), 송유선(전북대)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 Ronel Laranjo, Michelle Palumbarit(필리핀 국립대), Anjali Singh, Rajesh Kumar(서울대), Chhun Theavy, Yolanda Normagupita(한국학중앙연구원)	
16:00-16:30	휴 식		
16:30-18:00	[종합토론] 고등교육 개발협력의 비전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대학의 역할을 논하다 ▶ 좌장: 변기용(고려대) ▶ 토론: 장재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송두진(대구가톨릭대), 한윤식(한동대), 임형택(선문대)	주요 발표자 참여토론
18:00	폐회식		

라. 부대 및 연계행사 일정

- 라운드테이블세션 (09:30~18:00)
 - 회의장 밖 복도에 주제별 라운드테이블 배치하여 교육개발협력 관련 정보 교류 및 주제 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
- 고등교육 ODA 사업 홍보자료 디스플레이
 - 고등교육 개발협력 우수사례 관련 정보 제공
 - 대학이 수행하는 교육 ODA 홍보 및 사업내용 공유

IV 사업수행 결과

1. 사업 추진 결과

- ‘SDGs 2030 교육비전’의 시대적 요구를 중심으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및 교육 분야 ODA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개발협력의 다양한 파트너십 강화와 상생의 방향성을 제시함.
- 한국 고등교육 분야 ODA 대표 사업인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 사례 발표를 통해 고등교육 분야의 특수성, 성과, 향후 추진방향 등을 이해하고, 정부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국과의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 및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봉사 활동의 다양한 사례와 국제교류 현황, GKS 수혜자들의 생생한 학습 및 생활경험 공유를 통해 우수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ODA 사업의 성과를 확인함.
- 개발협력 전문가뿐 아니라 다양한 전공 분야의 교수, 대학생 등 고등교육 관계자가 참여하여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고등교육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고등교육 개발협력의 다양성과 질 제고 노력을 논의하고, 다양한 교육 개발협력의 주체, 분야, 사업(프로젝트) 추진의 발전적 방향성을 모색함.
- UNESCO 및 OECD, WB, ADB 등의 국제기구, ADEA, OEI, SEAMEO 등의 국제교육개발협력기구를 비롯하여 국내 정부 부처와 시민사회단체(CSOs), 대학 및 연구기관, 시도교육청 등 유관 기관 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향후 고등교육 분야 교육개발협력의 실천을 더욱 풍성하게 할 전문가 협력 네트워킹을 강화함.
- 그동안 개최되어왔던 제 1~5차 교육 ODA 컨퍼런스의 연속선 상에서 과거 교육 개발협력의 발자취를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새로운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의 추진 방향과 발맞추어 다양한 교육개발협력의 주체, 분야, 사업(프로젝트)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가능성을 모색함.
- 한국 고등교육 분야 교육 ODA 성과와 발전 방안을 일반에 홍보함으로써 인식 및 관심을 제고함.

2. 언론보도 및 홍보 실적

- 한국교육개발원 보도자료를 통한 언론 보도
- 이메일 초청장을 제작하여 유관기관 관계자 및 관련 단체(대학 및 NGO)에 발송하였으며, 제 5회 교육 ODA 국제 컨퍼런스 참석자(약 300명)를 대상으로 유선 홍보 실시
-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등 주관기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홍보
-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교육 ODA와 관련이 있는 대학교 및 대학원 홈페이지와 전공 게시판에 홍보물 게재
- 지역별 국제개발협력센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코피온 등 개발협력 및 개발학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에 홍보물 게재
- 4MUTH(누구나 국제개발협력을 할 수 있는 세상), 국경 없는 교육가회(EWB), 국제 기구 및 해외취업 네트워크 등 개발협력, 취업준비, 국제교류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에 홍보물 게재
- 사전협의회에 참여했던 대학교 관련 동아리 임원진을 중심으로 전공과 상관없이 교육 ODA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on/off-line 홍보 실시

3. 등록대 및 참석인원

가. 사전등록자 및 현장등록자 대상 명찰 인쇄 및 배포

나. 참석자 전원 자료집 배포

다. 참석인원

- 총 참석자 : 105명(사전등록 79명, 현장등록 26명)

구분	참석	불참	합계
사전등록	79	70	149
현장등록	26	-	26
전체	105	70	175

4. 산출물

- 컨퍼런스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파일 각 1식
- 오프닝 동영상 1식
-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결과보고서 1종
-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자료집 1종
-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참여자 설문지 1종
- 홍보 포스터 1종
- 이메일 초청장 1종

V 사업수행 결과의 활용 계획

- **SDGs 달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개발협력 전문가 통합 네트워킹을 통한 지속적 협력 관계 유지:** 교육, 환경, 보건/의료, 과학 등의 분야를 망라하여, 정부부처, 학계, 국제기구,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의 관련인들이 '교육'을 중심으로 개발협력 실천의 협업 가능성을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네트워킹 기능을 수행함. 또한 새로운 정보 교류와 최신 이슈를 파악하는 자율적인 교육개발협력 학습 기회와 장을 마련함.
- **고등교육 교육개발협력 실행 주체의 정책 수립:** 고등교육 분야에서 실행되고 있는 교육개발협력의 다양한 현황을 살펴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기획자, 참여자, 예산 및 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에 관한 이슈를 심도 깊게 논의함으로써 대학 별로 각기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협력체계, 조정기관, 필요 시스템, 예산 지원, 참여 인력자원의 육성 등에 관한 지원 방식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함.
- **고등교육 교육개발협력의 최신 사례 및 주요 정보 제공:** 본 컨퍼런스는 기조강연, 세션 1, 2, 3, 종합토론의 5개 부분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음. 기조강연에서는 과거 단순 교류 차원에 머물렀던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이 SDGs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정교화된 소프트파워 역량 개발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돕고 수원국과 공여국이 상생할 수 있는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세션 1에서는 한국 고등교육 분야의 대표적 교육개발협력 사례로서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 중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의대 환경보건과학과 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수혜받은 타슈켄트 의대 총장이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발표하였음. 세션 2에서는 신남방국가와의 고등교육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현정부 주요 외교정책인 신남방정책의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와 교훈을 제공하였음. 세션 3에서는 교육부 해외파견사업의 구체적 면모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국내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인적자원 강화 노력과 더불어, 실제 해외파견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성과와 발전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었음. 또한 GKS 수혜를 받은 다양한 국가 졸업생 및 현재 프로그램 재학생을 초청하여 GKS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국내 대학들이 당면한 개발협력의 현황과 이슈를 대표적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깊이있게 논의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음. 이러한 프로그램의 모든 내용과 구체적 정보는 자료집과 동영상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대중들에게 제공됨.

- **향후 정부차원의 교육개발협력 성과평가 지원:** 2014년부터 6년간 지속되어온 교육 ODA 컨퍼런스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고려해본다면, 그동안 개최된 컨퍼런스의 내용 및 성과들을 분석하여 교육의 다양한 분야별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가능함.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 ODA 정책 및 실천현황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포괄적 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특히 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성과분석과 향후 발전방안을 수립하는데 본 컨퍼런스의 성과 및 결과가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임.

목 차

최종보고서 초록	i
----------------	---

요 약 문	iii
-------------	-----

I. 제목	v
II. 사업 배경과 목적	v
1. 배경 및 추진 경과	v
2. 목적	vi
III. 사업 내용 및 범위	vii
1. 사업 개요	vii
2. 사업 추진 체계	vii
3. 사업 추진 내용	vii
IV. 사업수행 결과	xi
1. 사업 추진 결과	xi
2. 언론보도 실적	xii
3. 등록대 및 참석인원	xii
4. 산출물	xiii
V. 사업수행 결과의 활용 계획	xiii

본 문	1
I. 서론	3
1. 사업 개요	3
2. 사업 추진 체계	3
3. 사업 배경	4
4. 목적	5
5. 사업 추진 방법 및 범위	6
II. 본론(사업추진 노력 및 성과)	20
1. 주요 전문가협의회 내용	20
2. 행사 내용	24
3. 홍보	27
4. 산출물	28
III. 결론	29
1. 주요성과	29
2. 총평 및 시사점	39
3. 향후 과제	43
부 록	47
I. 회의록	49
II. 컨퍼런스 주요 내용	54
III. 홍보 포스터 및 이메일 초청장	122

최종보고서 본문

▶ 최종보고서 본문

I 서론

1. 사업 개요

- 행사명 :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 주제 :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
- 일시 : 2019년 11월 28일(목), 09:30~18:00
- 장소 :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서울 중구 소재)

2. 사업 추진 체계

가. 주최, 주관 및 시행 기관

- 주최 : 교육부
 - 주관 : 한국연구재단
 - 시행기관: 한국교육개발원
- ※ 사업 주관기관(KEDI)과 공동기관(한국연구재단)의 협력체계로 운영

나. 컨퍼런스 실무 그룹(Working Group) 구성

- 기능 : 사업 실행 및 컨퍼런스 사무국 운영, 행사진행 및 예산집행
- 구성 : 사업책임자, 공동 연구진, 연구원(4인)

구분	성명	소속기관	직위(직급)	역할
연구책임자	서예원	KEDI	실원(연구위원)	사업 총괄 및 기획
공동연구진	안해정	KEDI	실장(연구위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구분	성명	소속기관	직위(직급)	역할
	윤종혁	KEDI	단장(선임연구위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연구원	기한솔	KEDI	연구원	사무국 운영 및 예산 집행 지원

3. 사업 배경

- 2013년 12월에 수립된 교육 ODA 활성화 방안(시안)에서 교육 ODA 추진기반 확보를 위한 과제 중 하나로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가 제안됨.
- 2014년 11월에 발표된 교육부 ODA 사업 시행지침(안)에 교육 ODA 컨퍼런스 정례화를 통한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활성화가 명기됨.
- 교육부는 정부부처와 민간단체(NGOs),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각 유관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공유하며 교육 ODA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한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교육 ODA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음.
-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 교육부는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은 2014년 1차 교육 ODA 컨퍼런스부터 2019년까지 6회 연속으로 공모를 통해 교육 ODA 컨퍼런스 사업시행기관으로 선정되었음.

회차 (년도)	일시 및 장소	컨퍼런스 주제	주요 내용
1회(2014)	2014. 6. 24(화) 서울 The K-Hotel (거문고홀)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 의 현재와 미래	교육 ODA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토대 마련, 교육개발협력 사업 주체의 역 량 강화
2회(2015)	2015. 9. 18(금) 서울 The K-Hotel (거문고홀)	Post-2015 시대의 교 육 분야 ODA 발전 방향	Post-2015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 ODA 비전 수립의 토대 마련, 지역별 교육개발 협력 사업 특징 및 전망 논의
3회(2016)	2016. 11. 30(수) 서울 엘타워 (그랜드홀)	SDGs 이행을 위한 한 국 교육 ODA의 역할과 발전 방향	SDGs 2030 이행을 위한 글로벌 이슈 논의 및 한국의 교육 ODA 역할과 발전 방향 탐색
4회(2017)	2017. 12. 19(화) 서울 코엑스 (E홀)	국제개발협력에서 나의 길을 찾다	국제개발협력 진로 탐색을 통해 청년의 관련 분야 취·창업 활성화

회차 (년도)	일시 및 장소	컨퍼런스 주제	주요 내용
5회(2018)	2018. 11. 06(화) 강남 노보텔	협력과 상생-새로운 교육개발협력 생태계 구축	교육개발협력의 다양한 파트너십 강화와 상생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체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6회(2019)	2019. 11. 28(목) 동대문 노보텔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특성을 조명하고 신남방 국가들과의 전략을 논의함. 더불어 우리나라 및 개도국의 주체 및 이해관계자들의 상생을 위한 발전방향성을 모색함.

4. 목적

- 제 6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목적은 지난 5차례 컨퍼런스의 연속선상에서 SDGs 2030 교육비전의 시대적 요구를 중심으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및 교육 분야 ODA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하는 데에 있음.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음.
 - 1) 교육 분야를 포함하여 의학, 과학, 경영, 행정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고등교육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고등교육 개발협력의 다양성과 질 제고 노력을 논의함.
 - 2) 정부의 대외정책 추진 방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상생을 위한 신남방국가와의 고등교육 개발협력 전략을 제시함.
 - 3) 고등교육 기관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학문적·문화적 교류 현황과 더불어 GKS 수혜자들의 경험 공유를 통해 한국의 고등교육 수준 우수 인재 육성의 성과를 확인함.
 - 4) 고등교육 분야 교육개발협력의 현황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다양한 교육개발협력의 주체, 분야, 사업(프로젝트) 추진의 발전적 방향성을 모색함.

5. 사업 추진 방법 및 범위

가. 추진 경과

-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부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사업」 시행 공모에 응모(2019. 2.)
- 한국교육개발원(연구사업책임자: 서예원)이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2019. 5.)
- 교육부 1차 점검 협의회(2019. 7. 11.)
- 사전 협의회 개최(2019. 7. 24.)
※ 컨퍼런스 준비 관련(한국연구재단)
- 제1차 전문가협의회 개최(2019. 7. 31.)
※ 컨퍼런스 프로그램 연사 관련(가천대, 고려대 등)
- 제2차 전문가협의회 개최(2019. 8. 14.)
※ 컨퍼런스 프로그램 연사 관련(고려대, 경희대 등)
- 사전 협의회 개최(2019. 8. 22.)
※ 컨퍼런스 프로그램 구성 관련(학교교육연구실, 연구기획실 등)
- 사전 협의회 개최(2019. 8. 26.)
※ 컨퍼런스 프로그램 구성 관련(교육조사분석연구실)
- 제3차 전문가 협의회 개최(2019. 9. 4.)
- 제4차 전문가 협의회 개최(2019. 9. 24.)
- 사전 협의회 개최(2019. 10. 17.)
※ 컨퍼런스 연사 초청 관련(교육복지연구실)
- 사전 협의회 개최 (2019. 11. 1.)
※ 컨퍼런스 홍보계획 관련(나무온 마케팅)
- 교육부 2차 점검 협의회(2019. 11. 8.)
- 사전 협의회 개최(2019. 11. 13.)
※ 컨퍼런스 부대행사 및 홍보계획 관련(충남대, 숭실대 등)
- 전체 강연자 및 관계자 사전 협의회(2019. 11. 21.)

-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 및 전체 강연자 참석
- 사전 협의회 개최(2019. 11. 26.)
 - ※ 컨퍼런스 개막식 및 오후세션 관련(전북대, 대구가톨릭대 등)
-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2019. 11. 28.)
- 교육부 종료 보고(2020. 01. 31.)

나. 전문가협의회 추진 경과

1) 전문가협의회 개최 목적

- 고등교육 분야 교육개발협력의 최신 이슈 공유
- 컨퍼런스 강연자 추천 및 섭외 지원
- 컨퍼런스 세션 별 사전점검
- 컨퍼런스 프로그램 구성 등 교육 ODA 컨퍼런스 추진 관련 제언
- 컨퍼런스 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구축

2) 전문가협의회 추진 방법

- 원내 전문가, 대학, 개발협력 담당자, 대학생 등 고등교육 ODA 관련 집단 대상 협의회를 5회에 걸쳐 실시
- 4회의 전문가협의회 및 2회의 교육부와의 중간 점검 협의회 실시

다. 행사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09:00-09:30	참가자 등록 및 인사	
09:30-10:00	개회식	
10:00-10:30	기조강연	“국제교류에서 개발협력으로: 고등교육 ODA 상생의 길을 묻다” 오준(경희대)
10:30-12:00	[세션 I] 고등교육 개발협력	수혜에서 공여로: 타슈켄트 의대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이끈다 최재욱(고려대)
	현황: 다양성과	Shining Uzbekistan: The Future of Tashkent Medical Academy

시 간	내 용		
	질 제고	with Korea Tuychiev Laziz Nadyrovich(타슈켄트 의대)	
12:00-13:30	오 찬		
13:30-14:30	[세션 II] 고등교육 개발협력 전략: 신남방 국가와의 파트너십	신남방 국가와의 고등교육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채재은(가천대)	
14:30-16:00	[세션 III] 고등교육 개발협력 성과: 우수인재의 육성	나가자 세계로! 자라자 인재로! 대학생 해외파견 봉사활동의 성과 서혜애(부산대)	
		개발도상국에서 더 넓은 세상을 만나다 김은하(송실대), 김혜원(대구가톨릭대), 문도현(이화여대), 박종찬(서울대), 송유선(전북대)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Ronel Laranjo, Michelle Palumbarit(필리핀 국립대), Anjali Singh, Rajesh Kumar(서울대), Chhun Theavy, Yolanda Normagupita(한국학중앙연구원)	
16:00-16:30	휴 식		
16:30-18:00	[종합토론] 고등교육 개발협력의 비전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대학의 역할을 논하다 좌장: 변기웅(고려대) 토론: 장재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송두진(대구가톨릭대), 한윤식(한동대), 임형택(선문대)	주요 발표자 참여토론
18:00	폐회식		

라. 행사 프로그램 세부 내용

1. 인사말씀, 고등교육 ODA 관련 영상시청 및 축하공연(09:30~10:00)

● 축하공연 담당자

소속	이름(직책)
프리랜서	Mika Lucas Chavala
프리랜서	God's Power Okpala

소속	이름(직책)
중앙대학교	Chuvakova Marina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지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배명인
서울시립대학교	서아리



인사말씀



고등교육 ODA 관련 영상시청



축하공연 1



축하공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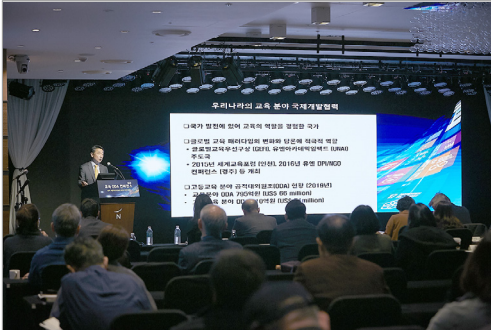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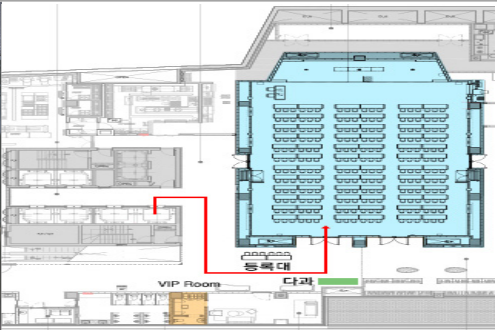


기념사진

2. 기조강연 (10:00~10:30)

- 주제 : 국제교류에서 개발협력으로: 고등교육 ODA 상생의 길을 묻다
- 사회 : 한국교육개발원 국제협력실 서예원 연구위원
- 발표자

소속	이름(직책)
경희대학교	오준(교수)

- 위 치 : 그랜드볼룸 라온(A&B)
 - 방구성 : 스쿨타입 216석, 좌담회형식
 - 형 식 : 자유로운 강연 및 상호 질문응답방식

기조강연 (10:00~10:30)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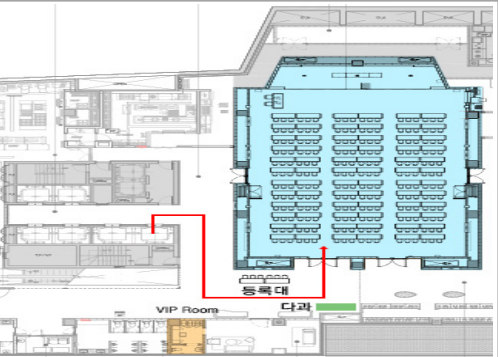



오준(경희대, 교수)
발표무대

3. 세션 I - 발표 1 (10:30~11:15)

- 주제 : 수혜에서 공여로: 타슈켄트 의대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이끈다
- 사회 :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협력연구실 서예원 연구위원
- 발표자

소속	이름(직책)
고려대학교	최재욱(교수)



- 위 치 : 그랜드볼룸 라운(A&B)

- 방구성 : 스크타입 216석, 좌담회형식

- 형 식 : 자유로운 강연 및 상호 질문응답방식

세션 I - 발표 1 (10:30~11:15) 사진



최재욱(고려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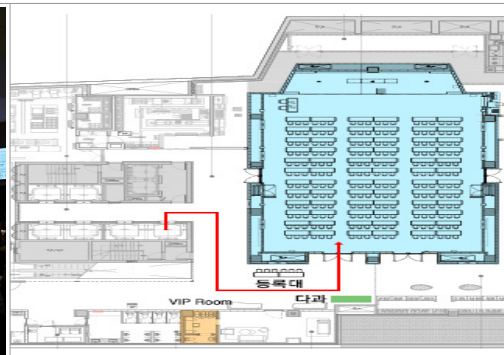


발표무대

4. 세션 I - 발표 2 (11:15~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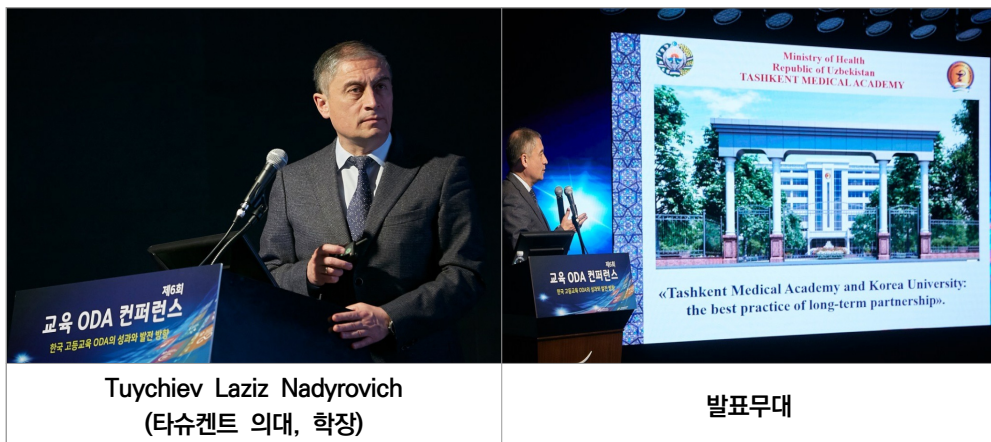
- 주제 : Shining Uzbekistan: The Future of Tashkent Medical Academy with Korea
- 사회 :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협력연구실 서예원 연구위원
- 발표자

소속	이름(직책)
Tashkent Medical Academy	Tuychiev Laziz Nadyrovich(학장)



- 위 치 : 그랜드볼룸 라온(A&B)
- 방구성 : 스크타입 216석, 좌담회형식
- 형 식 : 자유로운 강연 및 상호 질문응답방식

세션 I - 발표 2 (11:15~12:00)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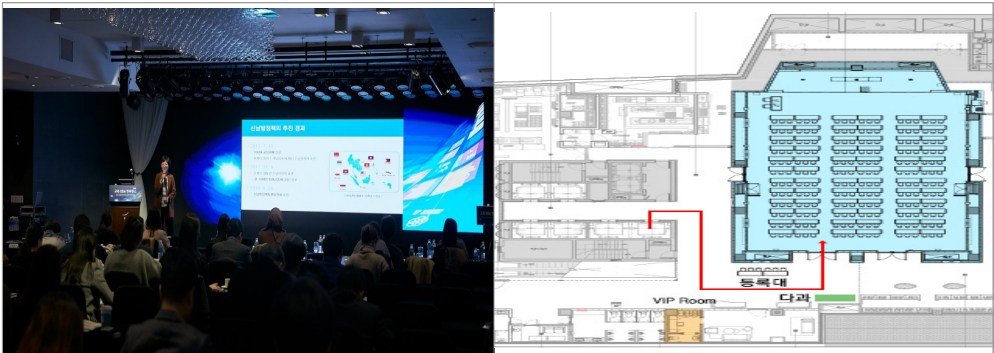
Tuychiev Laziz Nadyrovich
(타슈켄트 의대, 학장)

발표무대

5. 세션 II - 발표 1 (13:30~1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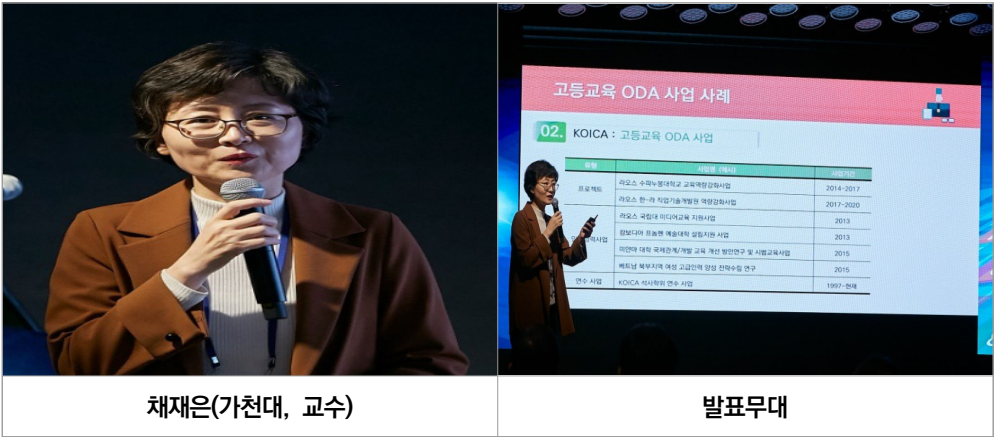
- 주제 : 신남방 국가와의 고등교육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 사회 :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협력연구실 안해정 연구위원
- 발표자

소속	이름(직책)
가천대학교	채재은(교수)



- 위 치 : 그랜드볼룸 라운(A&B)
- 방구성 : 스크론타입 216석, 좌담회형식
- 형 식 : 자유로운 강연 및 상호 질문응답방식

세션 II - 발표 1 (13:30~14:30) 사진



채재은(가천대, 교수)

발표무대

6. 세션 III - 발표 1 (14:30~15:00)

- 주제 : 나가자 세계로! 자라자 인재로! 대학생 해외파견 봉사활동의 성과
- 사회 :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협력연구실 안해정 연구위원
- 발표자

소속	이름(직책)
부산대학교	서혜애(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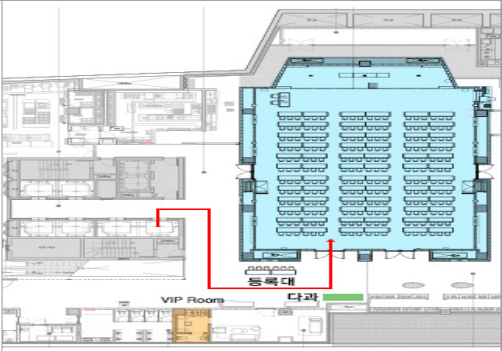
세션 III - 발표 1 (14:30~15:00) 사진



7. 세션 III - 발표 2 (15:00~15:30)

- 주제 : 개발도상국에서 더 넓은 세상을 만나다
- 사회 :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협력연구실 안해정 연구위원
- 발표자

소속	이름(직책)
송실대학교	김은하(대학생)
대구가톨릭대학교	김혜원(대학생)
이화여자대학교	문도현(대학생)
서울대학교	박종찬(대학생)
전북대학교	송유선(대학생)



- 위 치 : 그랜드볼룸 라온(A&B)
- 방구성 : 스크린타입 216석, 좌담회형식
- 형 식 : 5명 중심, 자유로운 강연 및 상호 질문응답방식의 좌담회 형식

세션 III - 발표 2 (15:00~15:30)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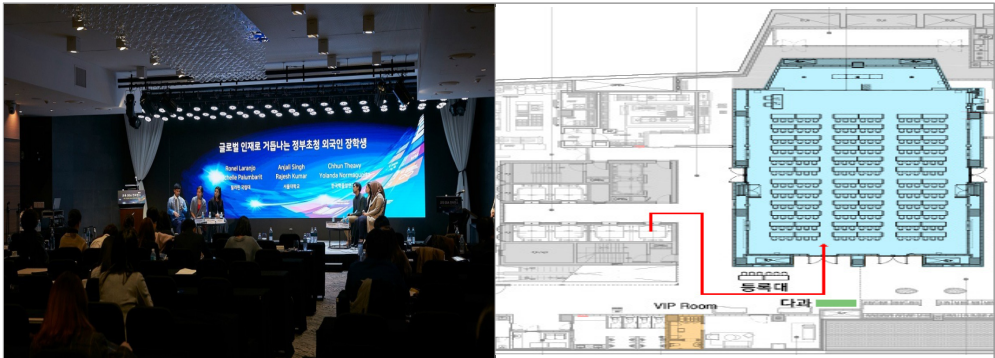
김은하(송실대, 대학생)	김혜원(대구가톨릭대, 대학생)

	
문도현(이화여대, 대학생)	박종찬(서울대, 대학생)
	
송유선(전북대, 대학생)	발표무대

8. 세션 III - 발표 3 (15:30~16:00)

- 주제 :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 사회 :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협력연구실 안해정 연구위원
- 발표자

소속	이름(직책)
필리핀 국립대학교	Ronel Laranjo(교수)
필리핀 국립대학교	Michelle Palumbarit(교수)
서울대학교	Anjali Singh(대학원생)
서울대학교	Rajesh Kumar(대학원생)
한국학중앙연구원	Chhun Theavy(대학원생)
한국학중앙연구원	Yolanda Normagupita(대학원생)



- 위 치 : 그랜드볼룸 라운(A&B)
- 방구성 : 스크타입 216석, 좌담회형식
- 형 식 : 6명 중심, 자유로운 강연 및 상호 질문응답방식의 좌담회 형식

세션 III - 발표 3 (15:30~16:00) 사진

	
Ronel Laranjo(교수)	Michelle Palumbarit(교수)
	
Anjali Singh(대학원생)	Rajesh Kumar(대학원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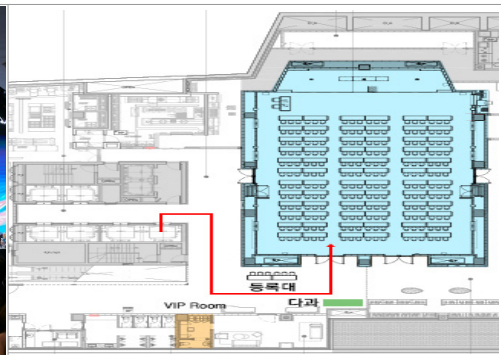
Chhun Theavy(대학원생)

Yolanda Normagupita(대학원생)

9. 종합토론 (16:30~18:00)

- 주제 :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대학의 역할을 논하다
- 사회 :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협력연구실 안해정 연구위원
- 좌장 : 고려대학교 변기용 교수
- 발표 및 토론자

소속	이름(직책)
고려대학교	변기용(교수)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장재윤(사무국장)
대구가톨릭대학교	송두진(국제교류팀장)
한동대학교	한윤식(교수)
선문대학교	임형택(교수)



- 위 치 : 그랜드볼룸 라운(A&B)
- 방구성 : 스쿨타입 216석, 좌담회형식
- 형 식 : 5명 중심, 자유로운 강연 및 상호 질문응답방식의 좌담회 형식

종합토론 (16:30~18:00) 사진

	
[좌장] 변기용(고려대, 교수)	장재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사무국장)
	
송두진(대구가톨릭대, 국제교류팀장)	한윤식(한동대, 교수)
	
임형택(선문대, 교수)	질의응답

라. 부대 및 연계행사 일정

- 라운드테이블세션(09:30~18:00)
 - 회의장 밖 복도에 주제별 라운드테이블 배치하여 교육개발협력 관련 정보 교류 및 주체 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
- 고등교육 ODA 사업 홍보자료 디스플레이
 - 고등교육 개발협력 우수사례 관련 정보 제공
 - 대학이 수행하는 교육 ODA 홍보 및 사업내용 공유

II 본론(사업추진 노력 및 성과)

1. 주요 전문가협의회 내용

가. 제1차 전문가협의회

- 일시 : 2019년 7월 31일(수)
- 장소 : 서울 양재 토즈점 회의실
- 참석자 : 서예원(연구사업책임자)의 사업 실무진, 대학 연구자 및 국제개발협력 실무자 등
- 협의 내용

주제	내용
세션 순서 관련 의견 수렴	- 지도에 GKS 숫자를 표현한 뒤 확산 양상을 연도별로 제시하고 향후 GKS 패러다임의 전환으로써 선도대학사업을 주제로 보여줄 것. - KOICA의 대학 설립 사례를 연도별로 보여주고 마지막 논의에서 관련된 역사와 이야기를 보여줌으로써 참가자의 학습을 유도할 수 있음. - 행사의 방향을 확실히 정해야 함. (학술행사 or 기념행사) - GKS 재학생, 졸업생, GKS 출신 교수 등의 구성원이 콘서트 형식으로 축하의 자리를 통해 발언의 기회를 갖는 것도 추천하며, GKS 학생들에게 공문을 통해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

주제	내용
세션 관련 사례 및 연사추천	- 현장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선도대학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추천하며 네팔의 특수교육처럼 등한시되고 있는 분야를 다룰 수도 있을 것. - 유관 언론사 및 ADB, 유네스코방콕 등의 섭외를 통해 고등교육 분야의 미래에 관한 논의를 할 수도 있음. - 'Post Graduate Training'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방향에 대해 다룰 수 있을 것이며, 서울대학교 의학교육과 신좌석 교수를 추천함. - ADB KOTRA, 시민단체,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로 함. - 국제협력은 최재욱 교수의 사례와 유니트원 사업 사례로 구성할 것. - 최재욱 교수는 타슈켄트 학장 초청, 채재은 교수는 세션발표를 담당할 것. - 신좌석 교수를 오후세션 토론자로 섭외할 것을 추천하고, 발표자 확정 시 교육부 담당과장과 최재욱 교수를 협의회 자리에 초대하기로 함.

나. 제 2차 전문가협의회

- 일시 : 2019년 8월 14일(수)
- 장소 : 서울 양재 토즈점 회의실
- 참석자 : 서예원(연구사업책임자), 고등교육 전문가 및 사업 담당자 등
- 협의 내용

주제	내용
컨퍼런스 일정 초안 수정	- 오전은 역사소개, 기조연설, GKS 및 수혜자, 오후는 고등교육 개발협력 사례, ADB, 유네스코 방콕 등의 해외사례, 고등교육에서의 시민사회의 참여 및 협력 방안, 기업의 역할 등으로 구성.
세션 관련 사례 및 연사추천	- 1) 선도대학 사업 2) 프로젝트형 사업 3) 유학생 사업으로 나누어서 발표하는 방안 논의. - ODA를 통한 대학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성과가 있는 세션을 만들면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보여줄 수 있을 것. - GKS 수혜자의 라운드테이블 구성 혹은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수혜자 입장에서의 효과적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세션 제안. - 고등교육을 주제로 4년제 대학에만 초점을 맞출시 문제제기의 우려가 있으며, 전문대학이야말로 기술 특화되어 특정 분야 ODA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대학의 ODA 역량 개발 관련 내용을 종합토론 세션 중 하나로 넣는 방안을 모색할 것. - 대구가톨릭대학교 송두진 국제팀장, 한양대 사업담당자, 배재대, 한동대, 고신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우송대(솔브릿지) 등의 섭외 가능성 논의.

주제	내용
	- GKS 관련해서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섭외하고, 국내/국외 졸업생 각 1명, 현 재학생 1명으로 진행하기로 함.
컨퍼런스의 제목 관련 논의	- '상생의 길을 묻다', '국제교류에서 개발협력으로', '한국 고등교육의 ODA 발 전방향' 등이 거론되었으며, 공여국의 혜택을 아우르는 제목을 추천함.

다. 제 3차 전문가협의회

- 일시 : 2019년 9월 4일(수)
- 장소 : 국립국제교육원 회의실 (경기도 성남 소재)
- 참석자 : 서예원(연구사업책임자) 외 사업 실무진, GKS 사업 담당자 및 관계자
- 협의 내용

주제	내용
GKS 관련 논의	- GKS 졸업생은 연락 문제로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동문회 개최 시에는 예산을 지원하며 외교부는 장소를 협조하기도 함. - 공관은 외교적 이익 면에서 선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이는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선발 뿐 아니라 이후 학위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음.
GKS 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1. GKS 독립적 운영 - 국가 정책을 반영하며 장학사업의 기초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따라 특정 국가에만 사업이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립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2. GKS 확장 - 외국인 유학생들의 성과는 비교적 단 시간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주변국과의 큰 차이를 고려하여 사업을 확대하여야 함. 3. GKS 선발 기준 강화 - 지원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관에서는 GKS를 외교적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사업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으며 선발기준 강화에 힘써야 함. 4. GKS 담당인력 및 시스템 역량 강화 - GKS와 같은 국제 업무는 힘든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 문제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주제	내용
	5. 미흡한 GKS 수학대학의 역량 문제 - 대학의 입장(대학의 국제화)은 사업의 취지(개도국 학생들에 대한 교육경험 지원)와 유리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현재까지 쌓아놓은 인프라로 인해 수학대학 제외대상에 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GKS 연사추천	- 카디르 아이 한(터키출신 한국외대 조교수), 코마르(인도출신 부산외대 인도어과 교수), 궉셀(터키 예르지에스 대학 한국학과 주임교수), 주옥파(중국 대외경제대학교 교수) 등을 추천하며 교육부와 협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인물을 추천할 예정임.

라. 제 4차 전문가협의회

- 일시 : 2019년 9월 24일(화)
- 장소 :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 참석자 : 서예원(연구사업책임자) 외 사업 실무진, 교육부 컨퍼런스 담당자
- 협의 내용

주제	내용
주제 관련 논의	- 현재까지 정해진 사항들에 대한 점검 및 시간대별 프로그램 구성과 함께 본 컨퍼런스 개최 취지에 적합한 좌장, 발표자 등의 섭외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
세션 및 프로그램 관련	- 고등교육이라는 주제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청중의 흥미를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양질의 사전홍보와 생동감 있는 구성이 필요함. - 우선 컨퍼런스의 규모를 명확히 하고, '특정 사업에 대한 집중'과 '주제 전반에 대한 소개'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정해야 함. - 교사고료 및 파견, 대학생 봉사, GKS, 유니트원, 국제협력선도대학, 직업교육 등의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영상을 제작할 것. - 현재 GKS가 하나의 세션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나, 유니트원, GKS, BEAR project 등을 각각의 사례로 소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것. - 기초강연자로 오준 전 주UN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장순홍 한동대학교 총장,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이 거론되었음. - 계획서 상에 있는 '해외사례' 세션의 경우 큰 시사점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더욱이 이에 대한 내용을 우리나라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전문대학/대학교/대학원을 나누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나 전문대학은 따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 - 해외파견 사업 중 대학생 봉사활동은 예산 규모가 적은 반면 사례로 설명하

주제	내용
	기에는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부산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을 추천함. - 비교적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기조강연과 오전 세션에서는 컨퍼런스 주제 관련 소개 및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더욱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오후 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변기용 교수의 비판적인 접근을 활용하여 구성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 유닛원 사업은 한동대가 대표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대학 관계자 섭외에 힘쓰고, BEAR project는 현재 원활히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 토론보다 질의응답 형식이 더 나을 것으로 보이며, 크게 두 세션(해외 파견 사업, GKS / 유닛원, BEAR project or 기타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함. - 컨퍼런스 주제는 기존의 '국제교류에서 개발협력으로'가 적당한 것으로 사료됨.

2. 행사 내용

가. 본 행사 내용

1) 기조강연(10:00~10:30)

- 주제 : 국제교류에서 개발협력으로: 고등교육 ODA 상생의 길을 묻다
- 사회 :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협력연구실 서예원 연구위원
- 세부구성

시간	내용	발표자
10:00~10:30	국제교류에서 개발협력으로: 고등교육 ODA 상생의 길을 묻다	경희대학교 오준 교수

2) 세션 I (10:30~12:00)

- 주제 : 고등교육 개발협력 현황: 다양성과 질 제고
- 사회 :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협력연구실 서예원 연구위원
- 세부구성

시간	내용	발표자
10:30~11:15	수혜에서 공여로: 타슈켄트 의대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이끈다	고려대학교 최재욱 교수
11:15~11:30	Shining Uzbekistan: The Future of Tashkent Medical Academy with Korea	Tashkent Medical Academy Tuychiev Laziz Nadyrovich 학장

3) 세션 II (13:30~14:30)

- 주제 : 고등교육 개발협력 전략: 신남방 국가와의 파트너십
- 사회 :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협력연구실 안해정 연구위원
- 세부구성

시간	내용	발표자
13:30 ~ 14:30	신남방 국가와의 고등교육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가천대학교 채재은 교수

4) 세션 III (14:30~16:00)

- 주제 : 고등교육 개발협력 성과: 우수인재의 육성
- 사회 :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협력연구실 안해정 연구위원
- 세부구성

시간	내용	발표자
14:30 ~ 15:00	나가자 세계로! 자라자 인재로! 대학생 해외파견 봉사활동의 성과	부산대학교 서혜애 교수
15:00 ~ 15:30	개발도상국에서 더 넓은 세상을 만나다	송실대학교 김은하 학생
		대구가톨릭대학교 김혜원 학생
		이화여자대학교 문도현 학생
		서울대학교 박종찬 학생
		전북대학교 송유선 학생
15:30 ~ 16:00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필리핀 국립대학교 Ronel Laranjo 교수

시간	내용	발표자
		필리핀 국립대학교 Michelle Palumbarit 교수
		서울대학교 Anjali Singh 대학원생
		서울대학교 Rajesh Kumar 대학원생
		한국학중앙연구원 Chhun Theavy 대학원생
		한국학중앙연구원 Yolanda Normagupita 대학원생

5) 종합토론 (16:30~18:00)

- 주제 : 고등교육 개발협력의 비전
- 좌장 : 고려대학교 변기용 교수
- 세부구성

시간	내용	발표 및 토론자
16:30 ~ 18:00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대학의 역할을 논하다	고려대학교 변기용 교수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장재윤 사무국장
		대구가톨릭대학교 송두진 국제교류팀장
		한동대학교 한윤식 교수
		선문대학교 임형택 교수

나. 부대 및 연계행사 내용

1) 라운드테이블 (09:30~18:00)

- 회의장 밖 복도에 주제별 라운드테이블 배치하여 교육개발협력 관련 정보 교류 및 주체 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

2) 고등교육 ODA 사업 홍보자료 디스플레이 (09:30~18:00)

- 고등교육 개발협력 우수사례 관련 정보 제공
- 대학이 수행하는 교육 ODA 홍보 및 사업내용 공유

3. 홍보

가. 홍보 방법

- 이메일 초청장을 제작하여 유관기관 관계자 및 관련 단체(대학 및 NGO)에 발송 하였으며, 제 5회 교육 ODA 국제 컨퍼런스 참석자(약 300명)를 대상으로 유선 홍보 실시
-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등 주관기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홍보
-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교육 ODA와 관련이 있는 대학교 및 대학원 홈페이지와 전공 게시판에 홍보물 게재
- 지역별 국제개발협력센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코피온 등 개발협력 및 개발학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에 홍보물 게재
- 4MUTH(누구나 국제개발협력을 할 수 있는 세상), 국경 없는 교육가회(EWB), 국제기구 및 해외취업 네트워크 등 개발협력, 취업준비, 국제교류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에 홍보물 게재
- 사전협의회에 참여했던 대학교 관련 동아리 임원진을 중심으로 전공과 상관없이 교육 ODA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on/off-line 홍보 실시

나. 홍보 절차

홍보 실시	시기	방법	대상	목적 및 기대 효과
1차 홍보	10월말~11월초	- 특정 대학교 대상 국제개발학과 및 홍보실에 홍보 요청	대학생	컨퍼런스 관심 유도 및 주제 홍보
		- 1~5회 컨퍼런스 참석자 대상 이메일 발송	1~5회 컨퍼런스 참석자	

홍보 실시	시기	방법	대상	목적 및 기대 효과
		- 개발협력 관련 기관 공문 발송 및 협조 요청	개발협력 관련 전문가	
2차 홍보	11월 초, 중순	- KOICA, 외교부 협조 요청 후 SNS에 포스터 게재 - 주요 대학 개발협력 관련 동아리(페이스북, 관련 사이트 등)에 홍보 - 개발협력 관련 SNS를 통한 홍보	참석 대상 전체	컨퍼런스 홍보 및 사전접수 유도
		사전등록 실시		
3차 홍보	11월 중순	- 사전등록자 대상 전체 메일 발송 - KEDI 홈페이지 포스터 게재	참석 대상 전체	컨퍼런스 개최 전 알림

4. 산출물

-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결과보고서 1종
-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자료집 1종
-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참여자 설문지 1종
- 홍보 포스터 1종
- 이메일초청장 1종
- 컨퍼런스 녹화 동영상 1종

Ⅲ 결론

1. 주요성과

가. 사전 전문가협의회 개최를 통한 사업의 적절성 제고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전문가협의회 실시]

- 컨퍼런스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을 기획하기 위해 대학관계자, 고등교육 전문가,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GKS 사업 담당자, 대학(원)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가협의회를 진행함.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지닌 정보, 시각,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연구자들이 기획한 컨퍼런스의 주제, 내용, 프로그램 구성, 형식 등을 수정, 보완하였음.
- 연구진 실무그룹에서 컨퍼런스 강연자 예비풀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협의회 참여자들과 함께 적절성을 논의하면서 변경 또는 추가하는 작업을 거쳤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 내용 및 형식에 적합한 연사를 선정하고 섭외할 수 있었음.
- 본 컨퍼런스는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아우르고 있지만 무엇보다 ‘교육’ 개발협력에 그 초점을 두고 있음. 특히 고등교육 분야에 있어서 교육은 다양한 전공을 망라하여 실행가능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즉, 의학, 과학, 공학, 경영학, 행정학, 교육

학 등 분야에 상관없이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에 집중하는 교육개발협력이 가능함. 또한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현황에 비해 고등교육 분야에 다양한 ODA 사업 수행과 급속한 발전이 진행되어왔음.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교육부 및 연구재단과 수차례의 전문가협의회를 거쳐 주요 세션으로 ‘고등교육 개발협력 현황: 분야 다양성과 질 제고’, ‘고등교육 개발협력 전략: 상생과 지속가능성’, ‘고등교육 개발협력 성과: 우수 인재의 육성’을 구성하였음. 고등교육 개발협력이 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실사례와 정부 외교전략 추진 지원을 위한 현황, 그동안 우리나라가 주력해왔던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성과를 보다 전문적 시각에서 살펴봄으로써 참여한 청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

- 또한,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고등교육 개발협력의 최신 이슈를 공유하고 주체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였음. 특히, 현재 고등교육 ODA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해외봉사활동 및 GKS 재학생 및 졸업생의 현황에 관해서도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해당 사업 관계자들을 섭외할 수 있었음.

나.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한 컨퍼런스의 파급효과성 제고

- 이메일, 유관기관 홈페이지, SNS, 관련 카페 및 블로그, 공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컨퍼런스를 홍보하여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음. 기본적으로 이전 교육 ODA 컨퍼런스 참가자들과 대학 및 연구기관 중심으로 e-초대장을 발송하였음. 더불어, 관련 학회, 국제기구, NGO, 기타 유관기관 담당자들에게 on/off-line 홍보를 실시하였음.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예년에 비해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홍보를 대폭 강화하였는데 대학생/대학원생 등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잠재적 참여자 대상의 홍보로 효과적이었음.
- 4회에 걸쳐 실시했던 주요 전문가협의회에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 및 계층에 직간접적 홍보를 실시하였음. 또한 전문가협의회에 참여했던 한국 및 GKS 출신 대학(원)생들이 현재 자신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공과 상관없이 교육 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이고 집중적 홍보

를 실시할 수 있었음.

-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라는 주제를 통해 고등교육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고등교육 개발협력의 다양성과 질 제고 노력을 논의하고 다양한 교육개발협력의 주체, 분야, 사업(프로젝트) 추진의 발전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음. 이러한 목적에 맞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ODA 전문가와 비전문가들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ODA 분야의 길을 꿈꾸는 청년들이 폭넓고 다양한 관련 정보를 얻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음.

국제기구 및 해외취업 네트워크

📌 공개 그룹

정보

토론

멤버

이벤트

동영상

사진

파일

함께 시청하기

이 그룹 검색 🔍

바로가기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

2019. 11. 28(목) 09:30~18:00 노보텔 엠버서더 동대문

주최: 교육부 주관: 한국연구재단 후원: 한국국제협력단

귀하를 초대합니다

교육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제사회는 비약적인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온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국가발전의 비전을 꿈꾸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배우고자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부는 다양한 교육개발협력의 주체와 함께 개발도상국과의 교육 분야 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교육 ODA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개발원이 함께 준비하는 '제 6회 교육 ODA 컨퍼런스'는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고등교육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여 고등교육 개발협력의 다양성과 질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상생의 고등교육 협력 전략과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컨퍼런스에 참석하시어 우리나라 고등교육 개발협력의 발전을 위해 경험과 고견을 나눠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SNS를 이용한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의 홍보 사례]

다. 효과적인 사업 목표 달성

- 본 컨퍼런스는 SDGs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 ODA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하고 새로운 상생의 파트너십과 방향성을 제공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었음. 컨퍼런스 참여자들은 다양하게 구성된 세션발표를 통해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혜성의 원조보다는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성장, 발전하는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음. 또한,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번영하는 ‘상생의 고등교육 ODA’에 대한 전략과 추진 방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컨퍼런스에서 의도하는 목적이 잘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청중들은 ‘국제교류에서 개발협력으로: 고등교육 ODA 상생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경희대학교 오준 교수가 진행한 본 컨퍼런스의 기조강연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한국이 고등교육 분야 ODA와 관련하여 실행해왔던 주요 사업들과 그에 관한 성과 및 발전방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 이어 ‘세션 I 고등교육 개발협력 현황: 다양성과 질 제고’에서는 고려대학교 최재욱 교수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의대 학장인 Tuychiev Laziz Nadyrovich가 진행한 대표적인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 ODA 사업인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의 사례 발표를 통해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실행 가능한 고등교육 ODA 사업의 특수성, 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살펴보았음. 오후에 진행된 가천대학교 채재은 교수의 ‘세션 II 고등교육 개발협력 전략: 신남방 국가와의 파트너십’은 신남방 대상국과의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음. 이후 진행된 ‘세션 III 고등교육 개발협력 성과: 우수인재의 육성’을 통해서도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봉사활동의 다양한 사례와 국제교류 현황,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사업(GKS) 수혜자들의 생생한 학습 및 생활경험 공유를 통해 우수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고등교육 ODA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마지막 종합토론을 통해서도 최근 각 대학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개도국과의 교류, 파트너십, 개발협력 사업 등의 현황을 알아보고 관련된 성과, 문제점, 개선 및 발전 방안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음.
-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사전등록자 79명을 포함한 총 131명이 컨퍼런스에 참여

하였음. 청중의 수가 아주 많지는 않았으나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젊은 청년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많았는데, 특히 개발협력에 관심이 높고 직간접적으로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이나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대학생들이 많았던 것이 고무적이었음. 이들이 단순히 개도국을 방문하여 단기간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목적과 수단으로서 ‘교육’의 가치를 실감하며 다양한 교육 ODA 사례를 통해 향후 계획을 구상할 수 있었던 점은 본 컨퍼런스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본 컨퍼런스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고등교육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고등교육 개발협력의 다양성과 질 제고 노력을 논의하고 다양한 교육개발협력의 주체, 분야, 사업(프로젝트) 추진의 발전적 방향성을 모색함으로써 고등교육 개발협력에 대한 다양한 청중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었음. 본 컨퍼런스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이 5점 만점 중 4.23점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음. 이를 통해 컨퍼런스가 질적 측면에서 잘 구성되었으며, 전문적 분야인 고등교육에 관해 다양한 정보 및 양질의 지식이 전달되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하겠음.
- 컨퍼런스의 또 다른 주요 목적인 다양한 고등교육 분야 교육개발협력의 주체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분야를 망라한 협업 가능성 타진에도 성과를 거두었음. 교육개발협력계의 주요 학자와 기관 관계자들, 전문가 및 비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지식과 동향성에 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고등교육 개발협력의 특수성과 향후 발전 방안에 관한 이해를 높였음. 또한 서로 간 자연스러운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을 통해 생소한 업무 분야와의 협업 또는 창업, 진출 가능성 등을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음.

라. 사업의 체계적 운영

- ‘교육 ODA 컨퍼런스 사무국’, ‘교육 ODA 컨퍼런스 사업진행’, ‘교육 ODA 컨퍼런스 예산집행’의 세 영역으로 교육 ODA 컨퍼런스 실무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연구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뿐만이 아니라 연구진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업을 체계적, 효과적으로 운영하였음.
- 인건비, 연구(사업)활동비 등과 관련 현실적인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웠으며, 계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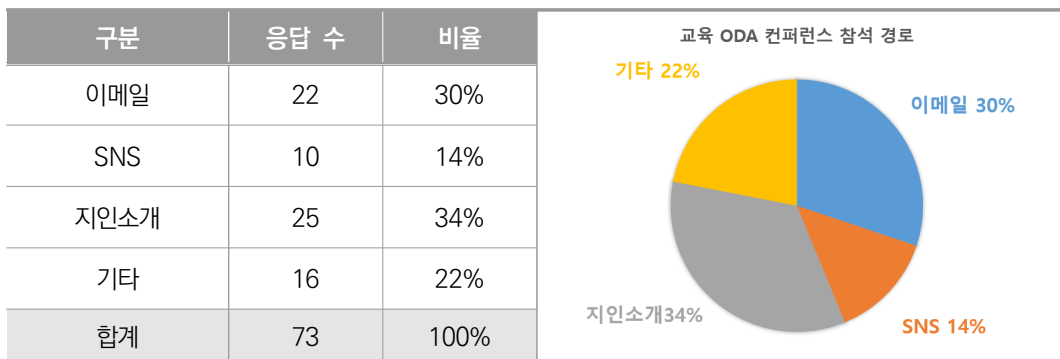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음.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의 추진체계]

마. 컨퍼런스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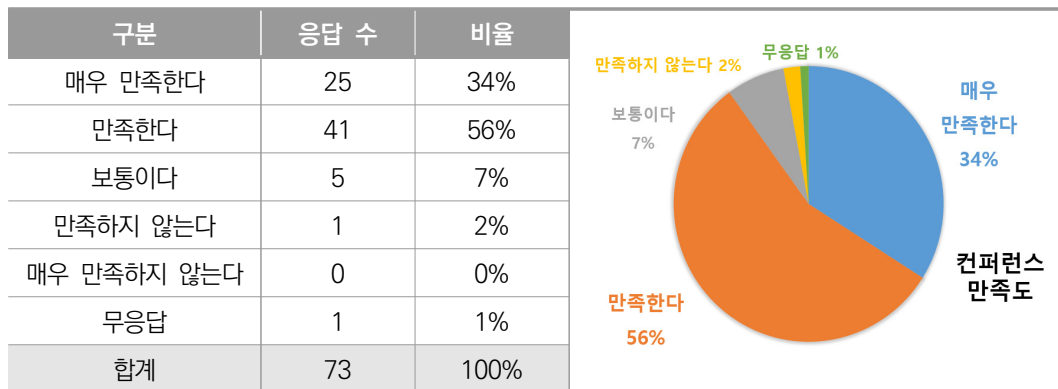
1) 교육 ODA 컨퍼런스 참석 경로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의 참석 경로를 묻는 항목에 대해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참석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25명)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이메일을 통해 안내를 받아 컨퍼런스에 참석한 응답자가 30%(22명)로 조사되었음. 이는 과거의 참

석 경로 조사결과가 각각 제 4회 이메일 37%(32명), 제 5회 지인소개 31%(28명)라는 점을 비교하여 볼 때, 이전 컨퍼런스 참석자와 개발협력분야(ODA)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참석이 꾸준히 이어진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음. 또한 기타 경로에 응답한 내용으로는 학교 교수님의 추천 및 홈페이지 공지와 교육부의 공문 등이 있었음.

2) 컨퍼런스 만족도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73명 중 72명이 응답하였고,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 중 4.23점으로 조사됨. 응답 유형별 빈도는 ‘매우 만족한다’의 응답이 34%(25명), ‘만족한다’의 응답이 56%(41명), ‘보통이다’ 7%(5명)로 나타남. 기타 의견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및 GKS 유학생들의 발표를 만족스럽게 평가하였으며, 각 세션별로 배정된 시간이 길지 않아 아쉬웠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음.

3)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프로그램 평가

가) 개막식 만족도 조사

세부 항목	평점
1. 개막식의 동영상상 통해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목적, 특성, 현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4.14
2. 개막식의 공연은 컨퍼런스를 축하하며 청중을 환영하는 의미로 적절했다.	4.38

개막식 관련 만족도 조사에서는 개막식이 컨퍼런스를 축하하며 청중을 환영하는 의미로 적절했다는 의견에 대한 평점이 4.38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또한, 조명과 구성 등이 만족스러웠으며 공연에 몰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음.

나) 기조강연. 국제교류에서 개발협력으로 : 고등교육 ODA 상생의 길을 묻다

세부 항목	평점
1. 강연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유익하였다.	4.37
2. 강연자는 컨퍼런스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4.34
3.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 관점에서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잘 알게 되었다.	4.35

‘기조강연. 국제교류에서 개발협력으로 : 고등교육 ODA 상생의 길을 묻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강연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유익하였다는 항목이 4.37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하였고, 기타 항목들 역시 4.34점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음. 또한 기조강연에 대한 추가 의견으로는 교육 ODA 전반을 더욱 자세히 다루어주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있었음.

다) 세션1. 고등교육 개발협력 현황: 다양성과 질 제고

세부 항목	평점
1. 고등교육 분야의 대표적 교육개발협력 사례를 이해할 수 있었다.	4.39
2. 수원국 담당자의 사업 수혜경험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4.26
3.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 관점에서 수원국-공여국의 상생적 파트너십에 관해 이해하게 되었다.	4.31

‘세션1. 고등교육 개발협력 현황: 다양성과 질 제고’의 경우 고등교육 분야의 대표적 교육개발협력 사례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항목이 4.39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하였음. 기타 항목들 역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우리나라 교육개발협력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수원국 담당자의 사업 수혜경험 발표를 더욱 풍성하고 다양

한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타 의견으로는 사업단과 수혜기관의 담당자 모두가 참여하여 사업의 의미와 효과를 제시하였기에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음.

라) 세션2. 고등교육 개발협력 전략: 신남방 국가와의 파트너십

세부 항목	평점
1.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우리나라 신남방정책의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었다.	4.43
2. 신남방국가들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고등교육 개발협력 현황 및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4.43

‘세션2. 고등교육 개발협력 전략: 신남방 국가와의 파트너십’은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었다는 항목과 신남방국가들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고등교육 개발협력 현황 및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항목 모두 4.43점으로 높은 평점을 기록하였다. 또한 통계에 근거한 분석 및 내용이 잘 전달되었으나 다음에는 신남방 이외의 국가들에 대한 사례도 다루어 더욱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추가 의견이 있었음.

마) 세션3. 고등교육 개발협력 성과: 우수 인재의 육성

세부 항목	평점
1. 교육부 해외파견사업의 취지와 다양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4.31
2. 대학생 봉사활동의 활약상과 성과를 이해할 수 있었다.	4.46
3. 정부초청 장학생들의 현황과 이들을 위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4.42

‘세션3. 고등교육 개발협력 성과: 우수 인재의 육성’은 모든 프로그램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프로그램이며 특히 정부초청 장학생들의 현황과 이들을 위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항목이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하였음. 또한 학생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보다 개발도상국에서 한국 고등교육 ODA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제 사례를 더 많이 다루고 사전조사에서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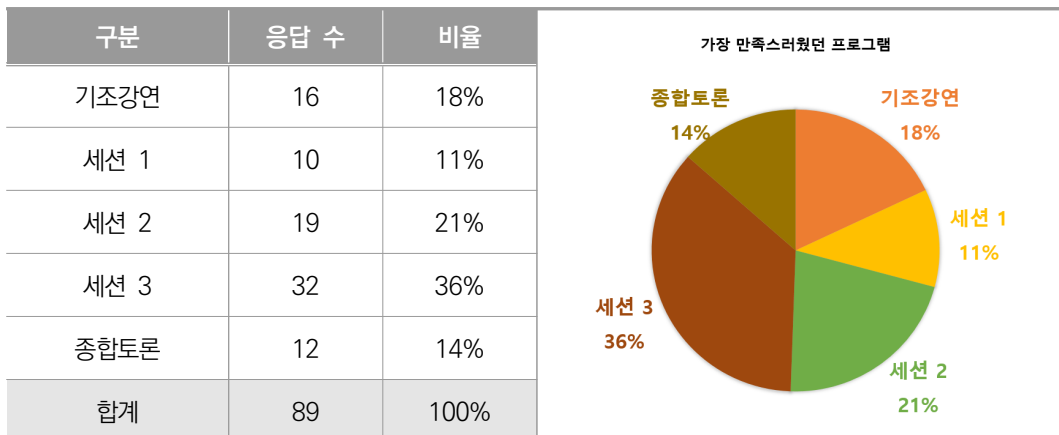
시를 제시하였다면 더욱 좋은 발표가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더하여 정 부초청 장학생으로서의 경험이 현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다루는 것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음.

바) 종합토론: 고등교육 개발협력의 비전

세부 항목	평점
1. 현재 각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개발협력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이들이 서로 협력하여 발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잘 논의되었다.	4.25
2. 종합토론은 대학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 현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했다.	4.32
3.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을 위해 우리나라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안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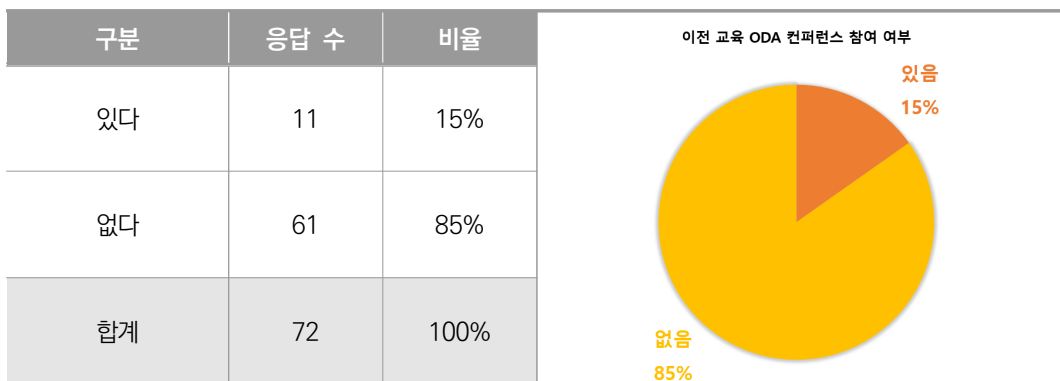
종합토론의 경우, 세 가지 세부 항목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이 중에서도 특히, 앞으로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을 위해 우리나라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항목이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하였음. 추가 의견으로는 종합토론에 배정된 시간이 적고, 컨퍼런스의 마무리 시간이라는 점에서 적은 청중이 참여했다는 것이 아쉽다는 응답이 있었음.

4) 가장 만족스러웠던 프로그램(중복 허용)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의 프로그램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에서는 ‘세션 3. 고등교육 개발협력 성과: 우수 인재의 육성’이 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으며, ‘세션 2. 고등교육 개발협력 전략: 신남방 국가와의 파트너십’과 ‘기조강연. 국제교류에서 개발협력으로 : 고등교육 ODA 상생의 길을 묻다’가 각각 21%, 18%로 뒤를 이었음.

5) 이전 교육 ODA 컨퍼런스 참여 인원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설문 응답자 중 이전 교육 ODA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응답자는 11명이었음. 이들의 의견 중 먼저 다양한 내용과 성격의 세션이 준비된 것과 진행이 원활하게 된 것이 좋았다고 의견이 있었음. 특히 세션 3의 우리나라 대학생들과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들의 발표가 인상적이었다는 의견도 있었음. 개선점으로는 발제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음.

2. 총평 및 시사점

가. 컨퍼런스 참여자

-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는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라는 주제로 다양한 전공 분야의 교수, 대학생 등 고등교육 관계자가 참여하여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다양성과 질 제고를 위한 노력, 전략, 성과, 향후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하였음. 따라서 교육, 환경, 보건/의료, 과학 등의 분야를 망라하여, 정부

부처, 학계, 국제기구,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 고등교육 ODA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였으며, 이들이 새로운 정보를 교류하고 최근 동향과 이슈를 파악하는 논의의 장을 이루었음. 다만, 시기적으로 여러 다른 기관의 행사들이 집중되어 있어, 예년보다 참가자 수가 감소한 점이 아쉬웠음. 시기적으로 최대한 많은 관련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컨퍼런스 개최 시점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지난 제4회 컨퍼런스부터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ODA 분야 취·창업 지원 및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본 사업의 주요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였음. 개최된 제6회 컨퍼런스에서도 많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주요 청중으로 참여하였음은 향후 교육개발협력 주체의 생태계적 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임. 고등교육 분야에서 실제적 교류협력의 주체로도 활약 중인 젊은 청년층이 교육개발협력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인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나. 컨퍼런스 프로그램 구성

- 본 컨퍼런스는 크게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오전에는 축하공연을 포함한 개회식과 기조강연 그리고 세션 1로 구성하였고, 오후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고등교육 개발협력 사례를 접할 수 있는 세션 2, 세션 3을 배치한 뒤, 컨퍼런스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토론을 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음.
- 먼저, 기조강연에서는 오준 경희대학교 교수가 ‘국제교류에서 개발협력으로: 고등교육 ODA 상생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지난 10여 년간 한국이 고등교육 분야 ODA와 관련하여 실행해왔던 주요 사업들과 그에 관한 성과 및 발전방향에 대해 강연하였음. 편안한 분위기와 간결하고 핵심적인 주제 강연으로 인해 청중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으며, 강연내용이 유익했다는 만족도도 높아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모두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음. 또한, 기조강연에 대해서는 교육 ODA 전반을 더욱 자세히 다루어주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있었음. 이후 진행된 ‘세션1. 고등교육 개발협력 현황: 다양성과 질 제고’의 경우, 고등교육 분야의 대표적 교육 개발협력 사례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항목이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하였음. 본 세션을 통해서는 우리나라 교육개발협력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수원국

담당자의 사업 수혜경험 발표를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사업단과 수혜기관의 담당자 모두가 참여하여 사업의 의미와 효과를 제시하였기에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오후에 진행된 ‘세션2. 고등교육 개발협력 전략: 신남방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청중들은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었으며, 신남방국가들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고등교육 개발협력 현황 및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음. 그리고 본 세션에 대해서는 통계에 근거한 분석 및 내용이 잘 전달되었으나 다음에는 신남방 이외의 국가들에 대한 사례도 다루어 더욱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추가 의견이 있었음. ‘세션3. 고등교육 개발협력 성과: 우수 인재의 육성’은 모든 프로그램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프로그램이며 특히 정부초청 장학생들의 현황과 이들을 위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항목이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하였음. 또한 학생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보다 개발도상국에서 한국 고등교육 ODA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제 사례를 더 많이 다루고 사전조사에서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 예시를 제시하였다면 더욱 좋은 발표가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더하여 정부초청 장학생으로서의 경험이 현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다루는 것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음. 종합토론의 경우, 청중들로 하여금 앞으로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을 위해 우리나라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본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으로 배정된 시간이 적고, 컨퍼런스의 마무리 시간이라는 점에서 적은 청중이 참여했다는 것이 아쉽다는 응답이 있었다는 점에서 차후 세션별 시간 배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다. 컨퍼런스 프로그램 운영

- 본 컨퍼런스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체 프로그램의 구성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참여하고자 하는 세션에 모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음.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작년 컨퍼런스까지와 같이 토크 콘서트 이후 분과 세션으로 진행될 경우, 다양한 주제들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선택지에 대한 아쉬움도 남았음.

- 작년 컨퍼런스와 같이 이번 컨퍼런스 역시 모든 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재함으로써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관련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음. 향후 동영상 시청자 수나 활용사례 등을 조사하여 보다 많은 관련인들이 컨퍼런스의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여 컨퍼런스 개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라. 컨퍼런스 개최 결과의 정부 정책 반영

- 최근의 교육개발협력 분야 동향을 볼 때, 정부가 주체가 되어 모든 부분을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이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시민사회, 기업 등 민간 영역 주체들을 포함하여 대학, 연구기관, 종교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다양한 역할자들이 형성하는 다각도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개발협력 사업의 내용과 수행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양상임. 고등교육 분야는 매우 전문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가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크지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는 역할 및 내용별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등교육 개발협력의 주요 주체인 우리나라 대학들의 사업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사업의 비전과 구체적 실천방안 등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본 컨퍼런스를 통해 논의된 사업의 기획자, 참여자, 예산 및 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에 관한 이슈를 살펴보고, 대학별로 각기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협력체계, 조정기관, 필요 시스템, 예산 지원, 참여 인력자원의 육성 등에 관한 요구를 수렴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2014년부터 6년간 지속되어온 교육 ODA 컨퍼런스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고려해 본다면, 그동안 개최된 컨퍼런스의 내용 및 성과들을 분석하여 교육의 다양한 분야별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함.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 ODA 정책 및 실천현황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포괄적 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특히 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성과분석과 향후 발전방안을 수립하는데 본 컨퍼런스의 성과 및 결과가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임.

3. 향후 과제

가.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의 적절성 및 효과성 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현재까지 교육 ODA 컨퍼런스는 총 5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왔음. 그러나 한국연구재단의 공모를 통해 해마다 행사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현재의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5년간 지속되어온 교육 ODA 컨퍼런스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고려할 때, 향후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에 있어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컨퍼런스가 서로 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큰 흐름을 갖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는 해를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사항이며, 이 같은 맥락에서 행사 주관기관 역시 해마다 선정하기 보다는 유능하고 안정적인 기관이 장기적, 종합적인 안목을 가지고 컨퍼런스를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 ODA 정책 및 실천현황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포괄적 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각 컨퍼런스가 상호연관성을 가지며 체계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야 함. 지속가능개발목표인 SDG 4는 이같은 중장기 계획 수립의 유용한 틀이 될 것임. SDG 4의 세부목표와 이행목표를 중심으로 본 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글로벌 차원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의 역할 및 중요성 제고

- 교육 분야 개발협력에서 교육 ODA 컨퍼런스의 대표성과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동 컨퍼런스는 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주요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축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본 컨퍼런스가 5년에 걸쳐 개최되면서 이제는 명실 공히 교육 분야에 특화된 ODA 컨퍼런스로 자리잡았으며, 관련인들의 인지도도 매우 높은 편임. 따라서 향후 컨퍼런스에는 컨퍼런스 대상자가 원하는 것이 무

엇인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업의 예산이나 범위를 넓혀 컨퍼런스가 단기적인 네트워크이나 정보 전달의 장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고 다양한 관련인들의 복합적인 소통과 협력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또한, 국내 컨퍼런스라 할지라도 우리와 파트너십을 통해 활약하고 있는 현지인이나 수혜자 등을 초청하여 보다 생생한 이야기와 개선점 등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임. 글로벌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계적 동향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교육개발협력에서의 역할과 지향점을 점검하기 위한 국제컨퍼런스의 개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교육 ODA 컨퍼런스 홍보 확대

- 본 컨퍼런스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중의 컨퍼런스 참석 경로는 다양함. 특히 이메일과 SNS를 활용한 홍보방법은 빠르고 쉽게 다수를 대상으로 홍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속하고 있으며 효과도 좋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홍보는 기본적으로 매우 유용하지만 본 컨퍼런스 참여자의 응답비율을 볼 때, 지인소개가 34%로 가장 높았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본 컨퍼런스 개최에 앞서 실시했던 여러 차례의 사전워크숍과 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관련인들을 만나고 홍보를 의뢰하였는데, 특히,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 관련 대학생들과 GKS 출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관심을 기울였음. 이러한 오프라인 홍보는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관심 있는 동료나 친구들끼리의 참여를 증진함으로써 청년층이 참여하는데 성과를 거두었음.
- 주요 홍보수단에 집중하되, 본 컨퍼런스를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향후 다양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홍보효과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음.

라. 향후 교육 분야 ODA 관련 제언

- 현 SDGs 시대의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 의제는 매우 포괄적인 영역을 아우르고 있으며 세부 의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이에 새로운 교육의제를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교육개발협력의 핵심 전략을 발굴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음. 첫째, ‘어떻게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로 본 컨퍼런스의 주제인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파편화된 각 대학의 역할 정립과 이들간의 파트너십 형성 및 체계적 지원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둘째, ‘어떻게 재원을 다양화할 것인가’의 문제로 기존의 정부주도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매칭펀드나 기금활용, 민간재원의 유입에 관한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고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자금 조달 및 활용에 관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함. 셋째, ‘어떻게 교육개발협력을 내실화할 것인가’에 있어서, 교육 ODA 컨퍼런스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사례들을 토대로 질높은 교육개발협력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 분야 개발협력 전문가의 양성, 사업 수행과 컨설팅, 연구 개발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질적,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 이를 전공한 전문가들이 더욱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쌓은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취·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풍부한 개발협력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과 상대적으로 경험이 제한적인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로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상호컨설팅 체제 지원도 도움이 될 것임. 개발협력에 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도전을 장려하고, 이들이 실패할 경우 희생할 수 있는 안전망 마련 정책도 필요함.
- 교육 ODA 사업 성과가 지속가능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행했던 교육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정부, 연구자,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가 공동 컨설팅 형태로 참여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과 관리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부 록

부 록

I 회의록

1. 주요 전문가협의회 회의록

가. 제1차 전문가협의회 회의록

■ 세션 순서 관련 의견 수렴

- 지도에 GKS 숫자를 표현한 뒤 확산 양상을 연도별로 제시하고 향후 GKS 패러다임의 전환으로써 선도대학사업을 주제로 보여줄 것.
- KOICA의 대학 설립 사례를 연도별로 보여주고 마지막 논의에서 관련된 역사와 이야기를 보여줌으로써 참가자의 학습을 유도할 수 있음.
- 행사의 방향을 확실히 정해야 함. (학술행사 or 기념행사)
- GKS 재학생, 졸업생, GKS 출신 교수 등의 구성원이 콘서트 형식으로 축하의 자리를 통해 발언의 기회를 갖는 것도 추천하며, GKS 학생들에게 공문을 통해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

■ 세션 관련 사례 및 연사추천

- 현장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선도대학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추천하며 네팔의 특수교육처럼 등한시되고 있는 분야를 다룰 수도 있을 것.
- 유관 언론사 및 ADB, 유네스코방콕 등의 섭외를 통해 고등교육 분야의 미래에 관한 논의를 할 수도 있음.
- 'Post Graduate Training'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방향에 대해 다룰 수 있을 것이며, 서울대학교 의학교육과 신좌석 교수를 추천함.
- ADB KOTRA, 시민단체,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로 함.

- 국제협력은 최재욱 교수의 사례와 유니트윈 사업 사례로 구성할 것.
- 최재욱 교수는 타슈켄트 학장 초청, 채재은 교수는 세션발표를 담당할 것.
- 신좌석 교수를 오후세션 토론자로 섭외할 것을 추천하고, 발표자 확정 시 교육부 담당과장과 최재욱 교수를 협의회 자리에 초대하기로 함.

나. 제 2차 전문가협의회 회의록

■ 컨퍼런스 일정 초안 수정

- 오전은 역사소개, 기조연설, GKS 및 수혜자, 오후는 고등교육 개발협력 사례, ADB, 유네스코 방콕 등의 해외사례, 고등교육에서의 시민사회의 참여 및 협력 방안, 기업의 역할 등으로 구성.

■ 세션 관련 사례 및 연사추천

- 1) 선도대학 사업 2) 프로젝트형 사업 3) 유학생 사업으로 나누어서 발표하는 방안 논의
- ODA를 통한 대학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성과가 있는 세션을 만들면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보여줄 수 있을 것.
- GKS 수혜자의 라운드테이블 구성 혹은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수혜자 입장에서 효과적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세션 제안.
- 고등교육을 주제로 4년제 대학에만 초점을 맞출시 문제제기의 우려가 있으며, 전문대학이야말로 기술 특화되어 특정 분야 ODA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대학의 ODA 역량 개발 관련 내용을 종합토론 세션 중 하나로 넣는 방안을 모색할 것.
- 대구가톨릭대학교 송두진 국제팀장, 한양대 사업담당자, 배재대, 한동대, 고신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우송대(솔브릿지) 등의 섭외 가능성 논의.
- GKS 관련해서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섭외하고, 국내/국외 졸업생 각 1명, 현재학생 1명으로 진행하기로 함.

■ 컨퍼런스 제목 관련 논의

- ‘상생의 길을 묻다’, ‘국제교류에서 개발협력으로’, ‘한국 고등교육의 ODA 발전 방향’ 등이 거론되었으며, 공여국의 혜택을 아우르는 제목을 추천함.

다. 제 3차 전문가협의회 회의록

■ GKS 관련 논의

- GKS 졸업생은 연락 문제로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동문회 개최 시에는 예산을 지원하며 외교부는 장소를 협조하기도 함.
- 공관은 외교적 이익 면에서 선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이는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선발 뿐 아니라 이후 학위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음.

■ GKS 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1. GKS 독립적 운영

- 국가 정책을 반영하며 장학사업의 기초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따라 특정 국가에만 사업이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립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2. GKS 확장

- 외국인 유학생들의 성과는 비교적 단 시간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주변국과의 큰 차이를 고려하여 사업을 확대하여야 함.

3. GKS 선발 기준 강화

- 지원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관에서는 GKS를 외교적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사업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으며 선발기준 강화에 힘써야 함.

4. GKS 담당인력 및 시스템 역량 강화

- GKS와 같은 국제 업무는 힘든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 문제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5. 미흡한 GKS 수학대학의 역량 문제

- 대학의 입장(대학의 국제화)은 사업의 취지(개도국 학생들에 대한 교육경험 지원)와 유리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현재까지 쌓아놓은 인프라로 인해 수학대학 제외대상에 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GKS 연사 추천

- 카디르 아이 한(터키출신 한국외대 조교수), 코마르(인도출신 부산외대 인도어과 교수), 퀘셀(터키 예르지예스 대학 한국학과 주임교수), 주옥파(중국 대외경제대학교 교수) 등을 추천하며 교육부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인물을 추천할 예정임.

라. 제 4차 전문가협의회 회의록

■ 주제 관련 논의

- 현재까지 정해진 사항들에 대한 점검 및 시간대별 프로그램 구성과 함께 본 컨퍼런스 개최 취지에 적합한 좌장, 발표자 등의 섭외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

■ 세션 및 프로그램 관련 논의

- 고등교육이라는 주제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청중의 흥미를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양질의 사전홍보와 생동감 있는 구성이 필요함.
- 우선 컨퍼런스의 규모를 명확히 하고, '특정 사업에 대한 집중'과 '주제 전반에 대한 소개'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정해야 함.
- 교사교류 및 파견, 대학생 봉사, GKS, 유니트윈, 국제협력선도대학, 직업교육 등의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영상을 제작할 것.
- 현재 GKS가 하나의 세션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나, 유니트윈, GKS, BEAR project 등을 각각의 사례로 소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것.
- 기조강연자로 오준 전 주UN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장순홍 한동대학교 총장,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이 거론되었음.
- 계획서 상에 있는 '해외사례' 세션의 경우 큰 시사점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 더욱이 이에 대한 내용을 우리나라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전문대학/대학교/대학원을 나누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나 전문대학은 따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
 - 해외파견 사업 중 대학생 봉사활동은 예산 규모가 적은 반면 사례로 설명하기에는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부산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을 추천함.
 - 비교적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기초강연과 오전 세션에서는 컨퍼런스 주제 관련 소개 및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더욱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오후 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변기용 교수의 비판적인 접근을 활용하여 구성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 유니트윈 사업은 한동대가 대표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대학 관계자 섭외에 힘쓰고, BEAR project는 현재 원활히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 토론보다 질의응답 형식이 더 나을 것으로 보이며, 크게 두 세션(해외 파견 사업, GKS / 유니트윈, BEAR project or 기타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함.
 - 컨퍼런스 주제는 기존의 '국제교류에서 개발협력으로'가 적당한 것으로 사료됨.

II 컨퍼런스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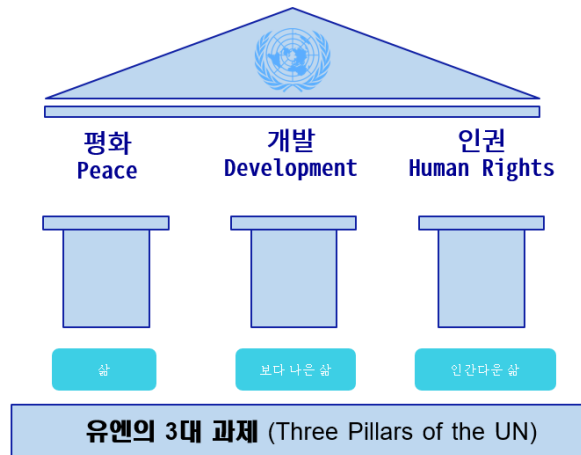
기조강연

국제교류에서 개발협력으로: 고등교육 ODA 상생의 길을 묻다 - 발표 요약 -

1. 발표자: 오준 (경희대학교, 교수)

1) UN의 설립과 핵심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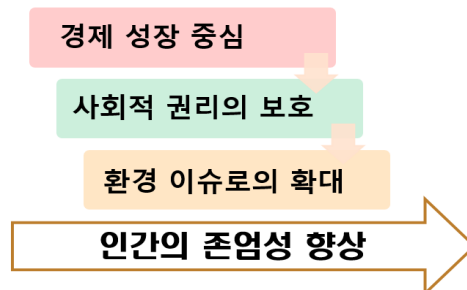
- 교육에서의 국제개발협력, 특히 고등 교육 분야에서의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고자 함.
- 지속가능발전을 이야기하려면 UN에서부터 시작해야 함. UN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고, 지속가능발전(개발)목표 또한 만들었음. ‘발전’과 ‘개발’중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있는데, SDGs의 특징 중 하나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이행해야 한다는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는 ‘발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함.
-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보편적인 국제기구인 UN이 만들어졌음. UN은 전쟁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음. 현장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전쟁이 지긋지긋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살기 원한다(save succeeding generations from the scourge of war)’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음.
- UN은 3개의 핵심 과제(기둥)를 가지고 있음. ‘평화, 개발, 인권’이라는 3개의 기둥은 평화가 유지되려면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주어야 하고(최소한의 발전·개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어야 한다(인권)는 내용은 현장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 이후 유엔은 개발 분야에서 지난 74년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



2) 개발 개념의 진화

- 개발의 개념은 2차 대전 후 초기에는 ‘경제 성장’을 뜻했음. 그 시기에는 유럽에도 파괴되고 가난한 나라가 많았기 때문에 미국이 ‘마셜 플랜’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경제 원조를 실행했음. 경제 원조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돈을 지원하면 경제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이었음
- 1980년대부터는 ‘경제 성장만이 발전이 아니다’라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의 대세가 되었음. UNDP가 1980년에 HDI(Human Development Index)를 만들면서, 사회적 발전이 없는 경제적 성장만은 무의미하다는 메시지를 주게 됨.
- 2000년 무렵에는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올랐음. 환경 차원이 합쳐진 후에야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음. 따라서 지속가능 발전에는 세 개의 개념 층위가 있는데, ‘경제, 사회, 환경’임.

“개발” 개념의 진화



3) SDGs 수립 배경: 불평등 증대와 기후 변화

- UN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MDGs를 추구했음. MDGs는 극빈을 줄이는 데 효과를 보았음. 15년 동안에 극빈이 절반으로 줄었음. 극빈의 기준은 1990년까지는 하루에 1불 이하, 그 후 1.5불, 4년 전부터는 1.9불로 사는 사람이 극빈임. 그러나 가장 가난한 사람과 가장 부유한 사람 간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짐.
- 최상위계층과 가장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점점 벌어져,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26명의 재산을 다 합쳐 놓으면 전 세계 가난한 사람의 절반(38억명)이 가진 재산과 같음.
- 불평등의 증대는 MDGs가 끝난 후에 우리 세계가 맞고 있는 가장 큰 도전임. 또한 기후 변화를 막지 못한다면 발전은 의미가 없음.
- 2012년 리우 정상회의 후 3년 동안 SDGs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중요성이 대두된 이슈가 불평등의 증대와 기후 변화였음.

4) SDG의 의의와 SDG4

- 2015년 9월에 유엔개발정상회의가 열렸는데, 만장일치로 17개의 SDGs 발전 목표를 채택하였음. SDGs는 2030년까지 가난을 완전히 없애자, 굶주린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자 등의 목표를 내세우고 있음.
- SDGs는 세계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함. 당장 몇 년 안에 가난을 완전히 없애거나 굶주린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세계가 모두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하자는 하나의 나침반을 제시함.
- SDGs에는 4번째 목표로 교육 목표가 있음. SDG 4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음. 또한 10개의 세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7개는 숫자로 되어 있고, 그 중 3개는 알파벳으로 되어 이행에 경제적인 요소가 필요한 것을 의미함.



- 그 중 3번, 5번, 7번, b번, c번 타겟은 고등교육의 발전과 관련이 있음.

5) SDGs 시대 우리의 개발협력 방향: 고등교육 분야 중심으로

① 개도국의 역량 배양 강화

- 우리가 SDGs 시대에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분야 관련 개발 협력을 어떻게 시행해야 할 것인가? SDGs는 가지고 있는 원칙 중 하나가 ‘living no one behind’임.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사회 전체가 뜨게 만들자는 뜻임.
-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탈북민 등의 취약계층에 집중해서 지원하여 이들이 잘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미임.
- 이러한 원칙에 맞게 우리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도 역량 배양 (capacity building)을 강화해야 함. ODA를 하는 데 있어서 가시적인 것을 하기 보다 역량을 강화해주는 교사 양성, 학교 건물 지어주기 등의 활동이 더 바람직함.

②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 강화

- 또한 이해관계자(multi stakeholder)간의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함. MDGs까지만 해도 개발협력은 정부가 ODA를 내서 하는 것이었음. ODA가 전 세계 개발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내려가서 약 90%에서 이제 50% 이하가 되었음.



세부목표 (Targets)

1. 모두를 위한 초등/중등교육
2. 영유아 및 취학 전 교육
3. 직업교육과 대학 등 고등교육 접근성 보장
4. 직업기술 습득 기회 확대
5. 교육 내 성평등과 취약계층의 동등한 접근 보장
6. 청년과 성인의 문해능력 달성 보장
7.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 a. 안전하고 포용적인 교육환경을 위한 교육시설 확보
 - b. 개도국을 위한 고등교육 장학금 확대
 - c. 교사의 능력 배양 지원



- 이제는 민간 분야의 투자도 ODA를 상당수 대체하고 있고, 시민단체들도 매우 큰 액수의 개발 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심지어 우리나라 전체 ODA보다 큰 액수를 개발협력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함).
- 이제는 개발협력이 정부의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다 합쳐져서 함. 우리나라는 국가발전에 교육이 큰 역할을 하는 국가임.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될 때 이미 초등학교 취학률이 90%가 되었음. 아프리카는 MDGs를 처음 시작한 2001년에 초등학교 취학률이 60%였는데, MDGs가 끝나고 나서 80%가 되었음. 큰 발전이지만 1960년대 한국의 초등학교 취학률에는 아직 미치지 못함.

③ 우리나라의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

- 우리나라는 발전에 있어 교육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경험한 국가임. 또한 수혜

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 따라서 우리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를 지원해야 하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교육 분야는 아주 적합함. 스스로가 교육의 중요성을 입증하였기 때문임.

- 그 중 고등교육 분야는 다른 나라에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많이 실행하고 있는데, SDGs 4의 타겟 중 하나에 장학금을 활성화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굉장히 적합하게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누구나 초등학교는 가야 한다’는 것이 UN이나 UNESCO가 추구하는 목표임. 따라서 취학률이 100%에 가까워야 하는 것인데, 아프리카는 아직 80% 정도의 발전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기초 교육이 보편화되도록 하기 위한 지원도 시행해야 함.
- 고등교육분야에서는 장학금, 대학 간 협력 등이 이루어져야 함.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은 SDGs 4이고, 두 번째 가이드라인은 세계시민교육임.

6)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우리는 세계화된 시대에 살고 있음. 타 국가에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음. 세계화는 여러 가지 혜택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와 같이 여러 문제들을 함께 가져왔음. 요즘 문제들이 점점 많이 드러나고 있음.
- 911 테러도 세계화로 인한 과제임. 그전에는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은 서로 떨어져서 살았음. 그러나 교통의 편리성이 보장됨으로써 이들이 만나서 살게 됨. 예멘 난민조차도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난민도 탈 수 있을 정도의 비행기 값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임.
- 그러나 세계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과 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음. 우리의 유전자는 다름에 대한 거부와 공포, 다름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 이를 유전적으로 해결하려면 약 10,000년을 기다려 다윈적 진화가 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세계화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다른 대안이 필요함.
- 그 다른 대안으로는 세계시민의식 함양이 제시됨. 정체성을 넓히고 확대해서 가족에서부터 학교, 지역, 국가, 민족까지 확대해야 함.

- 더 나아가 이제는 국가나 민족을 넘어서 자기가 인류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생각이 바로 세계시민교육임. 세계화 시대에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함. 다름에 대한 거부감과 공포, 적대적인 태도를 극복해야 함.
- 그래서 UNESCO와 UN은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개념을 20년 전부터 개발함. 사실 다른 교육의 담론은 교육자들에게서 나온 것이 많은데,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개념은 top-down 개념임. 국제 정치적 현실, 세계화의 현실 속에서의 필요성에서 내려온 것임.
- 지속가능개발목표 채택선언 8항에 파란색 부분은 universal value, 빨간색 부분은 respect diversity임. 이는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아님에도 세계시민교육의 2대 핵심 요소를 반영하고 있음.

We envisage a world of universal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human dignity, the rule of law, justice,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of respect for race, ethnicity and cultural diversity.

지속가능개발목표 채택선언 8항

7)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가치: 보편적 가치와 다양성의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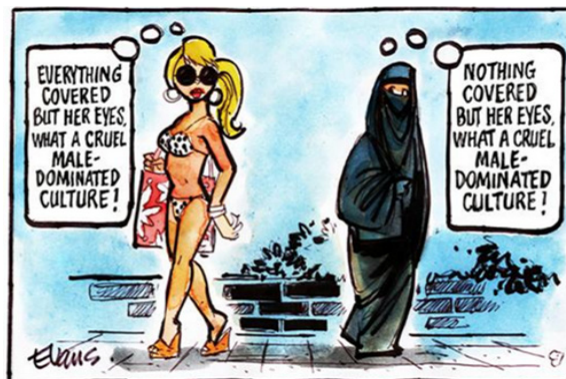
- 세계시민교육의 2대 핵심 요소는 보편적 가치와 다양성의 존중(Universal Values and Respect for Diversity)임. 어떤 종교, 문화, 문명이든 간에 공통적인 것-자식과 생명이 중요하다, 전쟁보다는 평화로운 삶이 중요하다-을 보편적 가치로 함양하고, 그 나머지는 다양성의 존중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임.
- 세계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주택’에 살았다고 비유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모두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임. 따라서 주택에 살 때는 신경 쓰이지 않았던 옆집의 김치찌개 냄새가 엄청난 스트레스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 그러나 아파

트에 살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낸 결과임(세계화).

-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내가 싫어하는 남의 음식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존중하기 힘든 문화도 있음. 무슬림의 히잡 문화는 우리가 존중할 수 있지만, 어떤 무슬림 문화에서는 소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오빠나 아버지가 죽일 수도 있음(명예 살인, honor killing). 명예 살인도 우리가 존중해야 할 다양성의 일부는 아님. 이는 human rights라는 보편적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임.

보편적 가치 vs. 다양성 존중			
이슬람 (일부다처제, 히잡 착용, 여성대외활동 제한 등) 유대 문화 (코셔 음식, 안식일 노동 금지 등) 아프리카 (일부다처제, 조혼과 할례 등)			
보편성		다양성	
• 인간의 존엄성 • 자유	• 평등 • 평화	• 인종 • 종교	• 관습 • 생활양식

- 위와 같이 보편적 가치와 다양성이 충돌하는 딜레마 상황이 벌어질 때는, 그때 그때 해결하는 수밖에 없음. 아래 그림을 보면 비키니를 입은 여성은 히잡을 착용한 여성을 보며 ‘눈만 빼고 다 가렸네, 남성 중심적인 문화야!’라고 생각하고 있고, 히잡을 착용한 여성은 ‘눈만 빼고 다 벗었네, 남성 중심적인 문화야!’라고 생각하고 있음. 어느 것이 더 남성 중심적인 문화라고는 말할 수 없음.



- 문화는 정적인 것이 아니고, 발전하고 진화하고 합쳐짐(cultural conversion). k-pop 음악이 처음 나왔을 때 미국 음악 평론가가 '이것은 미국의 힙합 음악을 재활용한 것이다'라고 말해서 한국 음악 관련자들이 분노했는데, 이에 분노할 필요가 없음. 모든 문화는 다른 문화에서 재활용된 것이며, 재활용을 잘 시도한 경우에는 더 인기가 있어지는 것임.
- 동적인 요소인 문화를 중심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평가할 필요는 없음.

8) 세계시민교육과 민족교육 간의 충돌

- 어떤 경우에는 세계시민교육과 민족교육 간의 충돌이 일어남. 그러나 이 둘은 양립할 수 있는 것임.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키우면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랑스러운 프랑스인, 자랑스러운 일본인'이라고 인식시키면 되는 것임. 그러나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고 일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가르치면 안 됨. 따라서 민족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함.

세션 1

고등교육 개발협력 현황: 다양성과 질 제고 - 발표 요약 -

1. 발표자: 최재욱(고려대학교, 교수)

- 수혜에서 공여로: 타슈켄트 의대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이끌다 -

1) 원조사업의 개요

- 1980년대 중반부터 고려대학교는 독일 GTC 재단에서 유상·무상 원조를 받아 대학병원을 지었으며, 더 나아가 ‘농촌과 도시 지역 빈민들’을 대상으로 공중보건 사업도 시행하였음.
- 이를 참고하여 모자보건, 백신, 건강 증진사업, 교육 관련 사업, 마을 보건 요원 사업, 지역 공동체 건강 보건 사업 등의 파일럿 사업을 시행하였음. 이를 가지고 우리나라 보건부와 시범 사업 결과를 냈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전 국민 건강보험 확대 및 보건진료소 시스템 구축, 보건소의 기능 및 역할 조정 등을 시행함.

2) 원조사업 실패사례

- 그러나 원조사업의 실패사례도 굉장히 많음. 1980~90년대 초반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에서의 중요한 과제는 ‘의료 공급 자원에서의 공공 부문 비율’을 늘리는 것이었음. 해당 시대에는 전체 의료 공급 자원 중 85%가 민간 부문이었으며, 공공 부문은 15%밖에 되지 않았음.
- 정부에서 지방의료원, 지방 병원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었으나 잘 실행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군 단위 의료원을 2차 병원 급으로 설립하려는 계획을 세움.
- 대규모 차관을 들여와서 전국에 2차 병원 사업을 시행했으나 실패했음. 90년대 말에 민간에 매각하고 처분하였으며, 공공병원으로 편입된 경우도 거의 부재함.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언급되며, 이외에도 실패사례는 많음.

3) 원조사업 성공사례: 고등 교육 사업

-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은 ‘미네소타 프로젝트’로 칭해지는 고등 교육 사업임.
- 1950~60년대 초에 서울대학교와 미네소타 대학교 간의 협정을 통하여, 서울대학교의 젊은 교수 220명을 교육해 석사, 학사 박위를 부여하고 모든 분야에 보냄.
- 보통 그런 형식의 원조사업을 실행할 경우, 많은 나라에서 공공 부문이 아닌 민간 부문으로 탈락함. 그러나 이 경우에는 단 4%만 탈락하고, 96%는 모두 대학에 남아 타 대학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보였음.
- 이러한 대표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고등 교육이 잘 확산되었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다른 교육으로의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교육 사례였음. 고등교육 프로그램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으나, 중요한 의의를 가짐.

4) 고등 교육 사업 시 대상 선정의 어려움

- 외국에서 원조사업을 하면서 특히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함.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열심히 교육 훈련을 하고 귀국할 경우 본인이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임.
- 공무원의 경우 나라의 정권이나 보직이 바뀌면 교육 훈련의 효과가 전혀 없으며, 이동하면 그만임. 이러한 면에서 지속가능성과 파급력, 확산력을 가장 많이 발휘할 수 있는 대상은 대학 교원임. 따라서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의 장점이자 지속가능성을 지녔음.
- 발표자인 최재욱 교수님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의학 아카데미의 역량 강화 사업(국제협력 선도 대학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실감하게 된 것이 사업을 지원하게 된 계기 중 하나임.

5) 사업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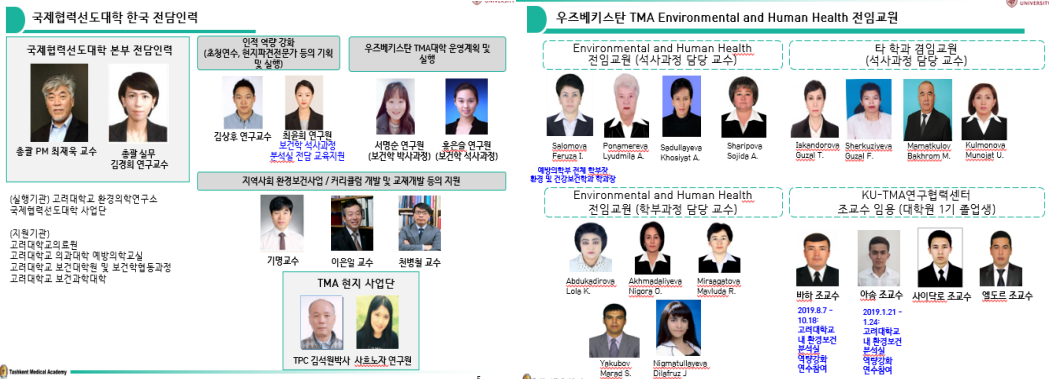
- 사업 개요를 이야기할 때 아래 사진 두 장이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임.
왼쪽은 우즈베키스탄의 아탈 해인데,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만 전체 호수의 10% 미만의 물밖에 남지 않아 사막화되고 배만 남았음. 이는 전 세계적인 환경 재난이며, 중앙아시아 전체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맞물려 있음.
- 물이 공급되지 않은 이유는 사회경제적인 이유와 맞물려 있음. 물을 다시 공급하는 문제 자체는 기후 변화와도 관련이 있으나, 사회경제적인 모든 것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다른 큰 틀에서의 그림이 필요함.
- 오른쪽 사진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하는 모습임. 그림에서 보이는 대로 원래의 면적인 파란색 부분에서, 검은색박에 안 남고 물이 다 없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음. 유엔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유엔에 가서 대통령이 직접 연설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음.



-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사업 중에서도 보건과 관련된 역량 강화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됨.



- 아래 왼쪽은 사업 참여 인력이며, 현지에 두 분이 상주해서 있고 최재욱 교수님도 안식년 1년 동안 현지에 계셨음. 타슈켄트 아카데미(중앙아시아에서는 대학을 표현할 시 아카데미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함)에서는 오른쪽과 같은 파트너 교수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본 사업은 2016년부터 시행중이며, 다음 해 5월에는 4년차가 됨. 지금이 4차 년도로 마지막 해이며, 사업은 필수 프로그램과 추가 프로그램으로 구분됨(하단 사진).
- 먼저 학부 커리큘럼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새로 만드는 작업이 있었음. 우리나라의 의과대학은 예를 들어 '예방의학'이라고 하면, '예방의학과'는 있지만 해당 과로 학부생이 새로 들어올 수는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1) 4차년도 필수 프로그램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필수 프로그램	학부 및 대학원 커리큘럼 - 교육과정 보완 및 운영 컨설팅 - 학과 운영 마스터플랜 업데이트
	학부 및 대학원 운영 2019년도 입학생 모집 완료 (9월 2일 개강) - 학과 홍보 브로셔 제작
	교재개발 - 전문가 파견 강의 동영상 개발 (실험 2과목) - 학부 공동 교재 배포 (2과목)
	실험실 구축 및 운영 - 실습 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실습 과목 강의 - 실습실 운영예산 안 산정 - TMA-KU 협력연구센터 인증 신청 완료 결과 대기 중 - 학부 생 활용 가능 기자재 및 실험 과목 협의
	교수역량강화 - 국내초청연수(연 1회) - 교수 대상 실험실습 강의(연 2회) - GKS 박사과정 수학 중 (4명)
	국제심포지엄 - 연 1회 이상 (2019년 6월 12일~13일 완료) - TMA 교수 및 대학원생 연구 교류
추가 프로그램	기타 교육지원 - 한국어 강의 지원 - 동 사업으로 지원하던 영어수업을 한국어 수업으로 변경 - GKS 프로그램 연계의 어려움으로 고려대학교 외국인전형으로 TMA 대학원생 입학률 지원하는 방안으로 한국어 수업으로 지원
	교원양성 실험실 근무 현지 졸업생, 한국 고려대학교 실험실 3개월 연수 완료

- 그러나 타슈켄트 국립 의학대학은 우리나라 의과대학보다 훨씬 규모가 커서, 의과대학 안에 임상의학부, 예방의학부, 간호의학부, 사범의학부, 군진의학부 등 6~7개의 학부가 존재하며, 전체 학생은 20,000명 이상임.
- 타슈켄트 국립 의학대학은 타슈켄트 시내에 위치함. 이 대학 산하에 지방에 위치한 우르젠치, 페르가나, 테르미지 분교가 있으며 타슈켄트 대학에서 관할함. 타슈켄트 관할에서 교육과정이 표준화될 경우 전국으로 확산 가능하며, 더 나아가 우즈베키스탄 전체의 의학교육·보건학 교육 부문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음.

6) 필수 프로그램 사업내용

① 학부 커리큘럼 개발·수정(진행 중)

- 학부 커리큘럼의 개발, 수정, 실습 과정 개편 등의 과정을 진행하였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학부/과 이름 선정 시의 영어 표현이었음. 러시아어와 영어 단어 간의 호환성이 낮았음.

-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학과 이름은 매우 중요함. 우리나라처럼 전문가 자격증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법으로 특정 대학의 특정 학부 졸업 시 전문가 자격증을 수여하며 취업 가능지도 지정해 주기 때문임.

학부 커리큘럼 ongoing	
예방의학부	
수학기간 및 이수시간	5년제 / 전체 이수 시간 (5,946hr), 강의 (1,114hr), 실습 (4,504hr), 실험 (150hr), 세미나 (178hr)
2019년 입학인원	약 80명
수강과목	총 50과목 (교양15과목, 전공 35과목)
Environmental and Human Health 전공 관련 과목	- Hygiene, Medical ecology (TMA 학부 공통과목) - Occupational diseases - Public Health - Communal Hygiene - Occupational Hygiene
학부생 대상 이론 및 실습 강의	학부 필수과목 1) 위생학 : 전 TMA 의과대학 공통과목 - 수강자: 약 600명 - 강의 32시간, 실습 84시간, 실험실 28시간, 자율학습 98시간 - 이론강의: 대기질, 수질, 직업환경, 토양환경 등 - 실습강의: 대기질조사, 수질조사, 작업환경 화학물질 조사 2) 공중보건학, 직업병 예방의학부 전공과목 1) 공중위생 - 수강자: 약 80명 2) 직업적 위생 - 강의 32시간, 실습 284시간



- 우즈베키스탄 교수님들과 함께 학부생 대상의 실습수업 과정을 개발하였고 장비 구매 등의 부분을 진행하였음. 또한 실습 담당 교수 15인 대상으로 교육 워크숍을 꾸준히 진행해왔음.

② 대학원 개설 및 커리큘럼 개발(진행 중)

- 대학원도 별도로 진행했으며, 대학원을 개설하고 교육과정도 새로 만들었음. 논문지도의 경우 현지에 방문해서도 실시하며, 온라인 화상 논문지도도 1주일에 1~2회 진행하고 있음.

③ 한국 전문가 파견강의(완료)/ TPC 강의(진행 중)

- 한국 전문가 파견의 경우, 수시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매년 강의를 진행하고 있음. 실제 실습과 관련된 현장조사(수질평가 등)도 진행하고 있음.

대학원 커리큘럼

ongoing

학기	과목	담당교수	날짜
1학기	환경보건학 (Environmental health)	Sadullayeva X.A	02.09. - 21.09.2019
	공중보건학 (Public health)	Prof. Mamatqulov B.M	23.09. - 19.10.2019
	물환경관리 (Management of water environment)	Sadullayeva X.A	09.12. - 27.12.2019
	수질평가 및 실험 (Water quality environment & experiment)	Sadullayeva X.A 김석원	09.01. - 27.01.2020
	대기질 관리 (Management of air quality)	Iskandarova G Sherkuziyeva G	21.10. - 16.11.2019
	공기질 평가 및 실험 (Air quality experiment) (workplace / Atmosphere (PM 10, 2.5) / Indoor(house, Office et al)	Sadullayeva X.A 김석원	18.11. - 07.12.2019
3학기	환경산업보건학 (Environmental Health Industry)	Salomova F.I SHaripova S.A	02.09. - 28.09.2019
	작업환경관리 (Management of Occupational Environment)	Salomova F.I SHaripova S.A	30.09. - 26.10.2019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and Experiment)	국내 전문가 강의	25.11. - 21.12.2019
	환경위해성평가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최재욱	01.2020
	산업환기 (Industrial ventilation)	Iskandarova G, Sherkuziyeva G 이슬길	01. 2020
특강	폐기물 재활용에서 유해가스 추출 및 처리 연구 방법론 및 논문 작성법	미정 바히디르 박사	



④ 실험실 구축 및 운영(진행 중)

- 실험실 구축을 위해 기자재 지원, 실습을 위한 실험실 환경을 구축함. 또한 논문을 위한 연구 실험 장비도 함께 공급함. 우즈베키스탄에서 실험실을 인증 받는 과정도 준비하여 승인 대기 중에 있음.

⑤ 교수 역량 강화(진행 중)

-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 초청 연수, 교수 대상의 실험 실습 강의, GKS 박사과정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총 4명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음. 초청 연수는 매년 꾸준히 진행함.



⑥ 국제 심포지엄 개최(완료)

- 학생들끼리, 교수님들끼리의 교류를 위해 국제 심포지엄을 매년 1회 개최하고 있음. 컨퍼런스, 심포지엄의 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처음에는 공공보건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임상과학 부문에서도 참여하고 TMA 이외의 다른 대학도 참여함.

7) 추가 프로그램 사업내용

① 한국어 수업 지원(진행 중)

- 한국어 능력의 함양이 유학의 기회와 연결되기 때문에,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에서 한국어 수업으로 전환함.

② 학과 홍보 브로셔 제작(완료)

③ 홈페이지 개편(진행 중)

④ 교원 양성(완료)

- 교원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석사 졸업생 중에 강의 조교수(Teaching Assistant)로 있는 학생들에게 실험실 교육 3개월 과정을 수료하도록 함. 계속해서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8) 자율 프로그램 사업내용

- 자율 프로그램의 초점은 두 가지임. 첫째, 지속가능성. 둘째, 사업성과의 확산. 이에 초점을 두고 비정기 세미나,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대상의 워크숍, 공동연구, 후속 사업 연계를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음.
- 1) 비정기 세미나(진행 중): 관련 교육 및 워크숍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타슈켄트 국립 의학 대학의 대학 교원뿐만 아니라 타 학과 교수들도 참여하고 있음.
- 2) 공무원 워크숍(완료): 우즈베키스탄 내에 질병관리본부, 환경부 등의 정부 관련 기관들이 있음 기관 내 전문가들과 공동 세미나를 계속하고 있으며, 연구센터와 협력하는 방안도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음.
- 3) 공동연구(진행 중): 지역사회와 관련된 환경 보건 모니터링 조사·교육이 진행됨.
- 4) 후속 사업 연계를 위한 노력(완료): 우즈베키스탄에서 국가 시스템 혁신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 산하기관인 ‘국가혁신부’를 만들. 우즈베크에서 ‘국가혁신부’라는 대통령 직속 산하기관을 만들.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으로, 교육과 보건 분야는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협조하여 혁신하라는 사항이 있음. 이에 혁신부를 방문하여 연구소, 실험실 환경 조성, 공동연구, 협력사업 등을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3) 4차년도 사업 추진일정



연구 내용		추진 일정												비고
		2019								2020				
		5	6	7	8	9	10	11	12	1	2	3	4	
학과운영 (Environmental and Human Health)	3기 신입생 모집													
	1,3학기 커리큘럼 논의/확정													
	교수진 선정													
	학과운영 회의 (매주 월요일)													
	제5회 국제공동 심포지엄													
	환경보건전문가 파견 및 건강													
추가 프로그램	졸업생 진로 분야 논의													
	5차 초청연수													
	교양과목 한국어 강의													
교재개발 및 강연활동	실험실 전달 연구원 장기 교육연수													
	학부/대학원 공동과목(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교재개발													
실습실 운영	전문가 파견 동영상강의 자료개발													
	실습실 기자재 추가 구입 (가스, 초자, 시약)													
	교수진 장비 사용방법 강의													
	대학원 장비 실습 교육													
GKS / TPC	실습실 전달 현지 교수 임명													
	실내외 대기 측정 실험연구													
	1기 GKS 학생 박사과정수학													
지역사회 프로그램	2기 GKS 학생 여학연수 (6개월 추가)													
	TPC 단위 근무													
	비정기 세미나: 전문가교육과정 운영													
	공무원 대상 워크숍 개최													
	지역 환경보건 모니터링 연구 수행													
	한국-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 협력방안 조사연구													

9) 결론 및 제언

-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보건의료 부분에서의 교육 사업이므로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또한 본 사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행되어 타슈켄트 대학의 사업성과 확산을 비롯하여 우즈베키스탄 전체의 국가 보건 의료 시스템으로 성과들이 환류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형성되기를 소망함.
- 본 사업은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공중보건 고등교육 체계를 만든 것이라는 의의가 있음. 연구실험실, 자재 보급, 내실화 등을 비롯하여 타슈켄트 국립 의학대학 산하 3개 분교에의 확산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후속 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성과가 ‘nation-wide’ 한 시스템의 표준으로 설정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함.

1 교수학습 및 고등 교육의 질 향상

-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공중보건(환경보건과학) 학부 및 석사 고등 교육 체계 구축
- 교과서 개발, 교육자료 및 실습 기자재 지원을 통한 기초교육 강화
- 교수학습 및 연구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워크숍 개최와 KU-TMA 온라인 강의 추진 기반조성
- 우즈베키스탄 수요에 부합하는 환경보건 교육 및 연구역량 증대

2 학과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내실화

- TMA-KU 연구협력센터의 우즈베키스탄 내 네트워크 강화 : UZ SEC(위생역학센터), Uz Standard (표준청)과의 업무협약 등의 추진으로 역할 확대

3 본 사업의 성과 확산과 후속 사업 연계 및 출구전략 마련

- TMA 산하 3개 의과대학 및 기타 관련 대학에 본 사업의 성과와 모델의 확산 추진
- 성과 확산을 위해 후속 사업을 2차년도부터 추진 중, 우즈베키스탄 측의 PCP 제출의 지연과 사업 형성 및 기획 과정의 장기간 소요로 추진 지연
- ODA를 관할하는 Uz 정부부처 및 한국연구재단과 협의 진행 중

2. 발표자: Tubchiev Laziz Nadyrovich(타슈켄트 의대, 학장)

- Shining Uzbekistan: The Future of Tashkent Medical Academy with Korea -

1) 우즈베키스탄 개요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제일 중앙 부분에 위치해 있으며, 바다로 인접한 면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약 4~5개의 바다와 인접해 있지 않은 국가가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수심을 가지고 있는 아랄해(Aral Sea, 大鹽湖)와 인접해 있다는 점이 차별점임.



2) ODA 프로젝트의 계기: 첫째, 아랄 해의 환경오염

- 그러나 최재욱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현재 아랄 해의 물은 90% 이상이 없어진 상태임. 그리고 첫 번째 발표자가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이는 매우 전 세계적이고 시급한 문제임.

- 문제의 심각성을 논하자면, 지금은 아랄 해의 물이 다 말라버려서 거의 다 사막이 되었음. 또한 아랄 해에서 물이 말라가면서 안에 있던 소금 양이 공중으로 퍼지고 있음.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농사를 지었을 때 사용했던 환경적인 분자(농약 등 유해한 성분으로 추측)들이 소금과 같이 퍼지고 있음.
- 그리고 소금과 함께 퍼지는 환경적 분자들은, 퍼지면서 펭귄에게까지 영향을 미침. 그린란드까지 퍼졌고, 어쩌면 한국까지 퍼졌을지도 모름. 따라서 이는 전 세계적인 환경 재앙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이것이 ODA 프로젝트를 하게 된 가장 주요한 문제였음. 즉, ODA 프로젝트를 하게 된 첫 번째 문제는 아랄 해의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우즈베키스탄의 매우 빠른 산업 속도임.

3) ODA 프로젝트의 계기: 둘째, 급속도로 발전하는 산업과 보건

- 2018년에 약 50,000개의 새로운 산업체가 생겼고, 그 중 20%는 공장 시설임.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
- 중앙아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인구는 매우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2018년까지 있었던 보건 정책에 의해서 총 사망률이 20% 이상 감소하였음. 보건 정책 중 특히 무료 중앙 응급 시스템이 사망률 감소에 크게 기여하였음.

4) 타슈켄트 국립 의학대학교의 영향력

- 다음 표는 우즈베키스탄의 고등 교육 시스템에 대한 것임. 빨간색 동그라미는 타슈켄트 국립 의대의 학사 과정이며, 그 기간을 드러내고 있음.
- 타슈켄트 국립 의대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기관임. 우즈베키스탄에는 7개의 의료 전문대학이 있고 4개의 지부가 있는데, 4개 지부 중 3개는 타슈켄트 국립 의대가 운영 중임.

UNDERGRADUATE SPECIALITIES AND QUALIFICATIONS			
Cipher	Specialty	Period of Study	Qualification
5 510 100	general medicine/treatment	6 years	General doctor
5 111 000	professional education (general medicine)	6 years	General doctor- teacher
5 510 800	military medicine (general medicine)	6 years	Military doctor
5 510 200	pediatrics	6 years	General pediatrician
5 510 900	medical biological	4 years	Specialist in fundamental medicine
5 510 300	medical prophylactic	5 years	Doctor - epidemiologist/hygienist
5 510 400	dentistry	5 years	General dentist
5 510 700	higher nursing	3 years	Specialist in higher nursing
5 510 500	pharmacy	5 years	Pharmacist
5 510 600	manufacturing pharmacy	4 years	Pharmacist - technologist

5) 타슈켄트 국립 의학대학교와 한국 간 협력 관계

- 지금부터 타슈켄트 국립 의대와 한국 간의 협력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 ODA 프로젝트와 보건복지부의 프로그램 덕분에, 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협력하고 있음. 그리고 이외에도 한국의 한의학 관련 코스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 중임. 또한 한국의 다양한 대학교, 병원과 함께 MOU를 체결하고 협력 관계에 있음.

1. Korea University

2.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Partners by MoU and cooperation activities

More than **20** organizations of Korea



- 공동 프로젝트로는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을 한국 대학병원에 파견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나, 한국인 전문가를 우즈베키스탄으로 파견하여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것 등이 있었음. 또한 심포지엄이나 학술회의에 공동 참여하는 프로젝트도 존재하였음.
- 1~6번은 보통 협력 관계에 있을 때 했던 것들(학술회, 공동 프로젝트, 한국인 전문가 현지파견)인데,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은 ODA 프로젝트뿐이고 이는 타슈켄트 의대와 고려대가 협력 진행하고 있음.
- 2016년에는 타슈켄트 국립 의대와 고려대 간에 매우 깊은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후 2017년에 고려대학교와 타슈켄트 국립 의대는 MOU를 체결하게 되었음.



- 2017년 5월에는 '환경보건학과'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결과였음. 2017년 8월에는 '환경보건학과'의 실질적인 운영이 시작되었는데, 한국 전문가들이 파견되기도 하였음. 2017년 9월에는 '환경보건과학대학원'에 13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였으며, 정원 10명에 3명을 추가 선발함.
- 2017년 9월부터 고려대학교 전문가가 타슈켄트 의대에서 특강을 진행하였음.
- ODA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18년 6월 고려대학교와 타슈켄트 국립 의대 간에 협력 연구소를 오픈하였음. 그리고 2019년에는 최첨단 장비들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유일한 연구센터로 앞으로 환경보건 관련 연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6월에는 '환경보건과학대학원'의 1회 졸업식이 있었으며, 졸업식에는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교육부, 중앙위원회, 환경부위원회에서 참석하였음. 모든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하였음.



- 이 졸업생 중 50%는 타슈켄트 국립 의대에서 지속적으로 본인이 받은 교육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받게 해 주기 위하여 계속 일을 하고 있음.
- 또한 졸업생들의 반이 타슈켄트 국립 의대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데, 이는 ODA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6) 타슈켄트 국립 의학대학교와 한국 간의 협력 성과

- 현재 결과로는, 고려대학교의 전문가들이 매일 타슈켄트 국립 의대의 수업에 참여하고 특강을 하고 있음. 이는 고려대학교 교수진과 타슈켄트 국립 의대의 교수진이 서로 협력하고 경험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 대학원생들의 논문 지도는 두 학교의 교수진이 함께 하고 있으며, 논문발표를 할 때는 타슈켄트 국립 의대에서 1회, 고려대학교에서 1회, 총 2회의 논문 발표를 진행하고 있음.
- 타슈켄트 국립 의대에서 '환경보건과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의학 기술이나 의학 관련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양국 학생들끼리 교류하며 한국어, 영어 교육을 받는 등 전반적인 교육을 받고 있음.
- 네 명의 타슈켄트 국립 의대 학생들이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으며, ODA 컨퍼런스에도 참석하였음. 이들은 졸업 후 우즈베키스탄에 돌아와서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



- 우즈베키스탄에서 30명의 교수진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았음. ODA 프로젝트는 양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로 여기고 있음.
- 타슈켄트 국립 의대에서 받은 고등교육을 우즈베키스탄 내의 다른 의료 대학과도 경험 공유하였으며, 올해 우즈베키스탄 관련 대학과 부서들 간에 매우 큰 워크숍이 있었음. 이 워크숍에서 ODA 프로젝트로 인해 얻은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였음.



- 현재 국제협력센터가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중인데, 이 라이선스를 획득하게 되면 국제협력센터에서 연구를 진행할 시에 독립적인 결정이 보장됨.

7) 우즈베키스탄 ODA 프로젝트의 의의

- ODA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최초의 의료 고등교육을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간주됨.
- ODA 프로젝트에서 환경, 보건, 과학 분야로 주제를 잡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의학 기술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8) 우즈베키스탄과 타슈켄트 국립 의학 대학교의 발전 가능성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따라서 다른 국가들의 국경과 인접해 있음.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스탄(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으로 끝나는 국가들과 인접해 있음.
- 타슈켄트 국립 의대는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세 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음. Urgench 지점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경과 인접해 있고, Termez 지점은 아프가니스탄 국경과 인접해 있으며, Fergana 지점은 타즈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과 인접해 있음.



8) 우즈베키스탄 ODA 프로젝트의 미래

- ODA 프로젝트로 얻은 결과물들이 타슈켄트 국립 의대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지부인 Urgench, Termez, Fergana에서도 사용되고 널리 알려 지기를 바라고 있음.
- ODA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중요하고, 독특한 프로젝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세션 2

고등교육 개발협력 전략: 신남방 국가와의 파트너십 - 발표 요약 -

1. 발표자: 채재은(가천대학교, 교수)

- 신남방 국가와의 고등교육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
- 해당 주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매우 관련된 주제임.
- 신남방 국가와의 교육 개발협력은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었지만,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태였음. 이 자리를 통해 신남방 국가들과의 고등교육 개발협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1) 신남방정책 개요

① 신남방정책의 추진배경 및 경과



- 2017년 11월 9일에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통해 신남방정책이 공식적으로 출범되어 그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상황임.
- 신북방정책과 매칭되는 외교전략으로써 네이밍하여 현 정부의 주요 대외경제 정책으로 부상함.

- 이후 신남방정책은 대통령 중심의 정책 지휘 하에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 신남방국가를 살펴보면, 국가들의 수준이나 문화가 굉장히 상이함. 한 그룹으로 묶이기에 어렵다고 볼 수 있음. 이전에 신남방정책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는 구성원들의 성격, 경제적 발전 수준, 교육 개발 수준이 다르기 때문임.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으로는 고등교육 개발협력 정책을 이루기 어려움.
-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에 따른 다양성은 경제적 개발 상황, 교육 수준, 개발협력에 대한 요구, 실제로 그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행해온 개발협력의 형태는 양자, 다자간 협력이나, 신남방정책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개발협력 구상 가능함.
- 이 나라들의 교육 수준 편차는 큼. 싱가포르 같은 경제 수준 높은 국가들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교육수준의 편차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점이 이 발표의 한계임.

② 신남방정책의 비전 및 추진방향

- 한-아세안 신남방정책의 미래 공동체 구현하기 위한 비전



- 고등교육 ODA은 인재 양성의 한 분야에만 관련돼 보이지만, 하지만 의학 포함 모든 전공 관련분야에 관련되어있음. 이에 사람 공동체 간의 교류 뿐 아니라 각각의 영역에 기여하기 때문에, 넓은 확장 가능성이 예상되는 바임.

- 이 발표가 그 연구의 출발점으로써, 구체적으로 신남방국가들과 어떻게 협력하는가, 또 고등교육 ODA를 논의하는가가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음. 이에 신남방정책 2.0이 곧 발표될 예정이므로 더 많은 협력이 논의 될 수 있음.

2) 신남방국가 교육개발협력 현황

① 신남방국가 ODA 지원개요 (2013-2017)

- 자료 분석에 앞서 사업년도와 상황에 따라 사업의 특성이 큰 폭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변동성이 상이함.
- 분석자료는 ODA 기관들 중심으로 정리하여 대표적으로 KOICA, 수출입은행, 교육부 등 실적 제출 기관을 중심으로 통계 시스템을 이용함.

- **지원 기관** : 「ODA 통계시스템(stats.koreaexim.go.kr)」에 ODA 실적 제출 기관
- **교육 ODA** : 유치중고 및 고등교육, 평생교육, 지역사회교육 등
- **고등교육 ODA** :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 대학설립, 봉사단 파견사업, 석사학위연수과정 등



- OECD에 분류될 수 있는 데이터들만 포함함. (공무원 교육 제외)
- 전체 ODA 비율 중 신남방국가에 지원한 26.9%는 많은 편임. 신남방국가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었고, 신남방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침으로써 이러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신남방 ODA 중 교육 ODA의 비율 10.2%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비율이 이처럼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인프라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의외로 교육 비율 적음. 따라서 교육 오디에이가 효율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교육 ODA 중 고등교육의 비율 45.8%는 데이터 산정의 어려움으로 GKS 사업의 비율이 빠진 상태임. 장학생 초청사업 큰 비율 차지하지만 그를 제외하고도

고등교육의 비율이 높음. 이는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KOICA에서 실시하는 대학설립 사업 때문에 지원 단가가 올라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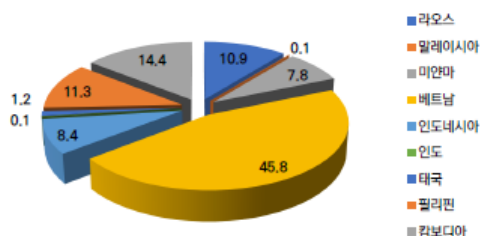
② 신남방국가 ODA 현황 (2013-17)

-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를 제외한 수치임.
- 베트남의 수치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베트남과는 예전부터 친밀한 관계였음. 베트남은 예전에는 일본과 친숙했지만 지금은 한국 기업의 진출의 증대와 함께, 한국과 더 친숙해짐.
- 표를 분석해보니, 일부 국가에 편중된 것을 알 수 있음. 지원 국가에 대한 다양화가 필요해 보임.

• 총 5년간(2013-17) 신남방국가에 약 21.7억 달러 지원 (브루나이, 싱가포르 제외)

• 비율 : 베트남(45.8%), 캄보디아(14.4%), 필리핀(11.3%), 라오스(10.9%), 인도네시아(8.4%) 등

국가	약정액 (백만불)
베트남	992.40
캄보디아	312.31
필리핀	245.09
라오스	235.36
인도네시아	182.17
미얀마	169.30
태국	25.50
인도	2.35
말레이시아	1.74
합계	2,16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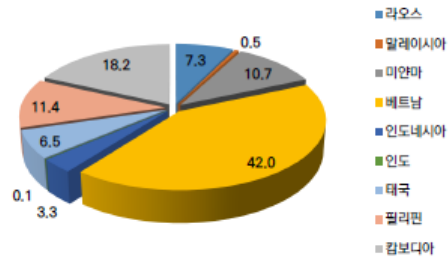
③ 신남방국가 교육 ODA 현황 (2013-17)

- 교육 ODA는 전체 ODA 비율에서 적은 편임. 따라서 늘려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전체 ODA 비율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임. 베트남에만 치중되어 있는 모습임.
- 수요 발생이 많아진 직업훈련기관이 고등교육 기관으로 업그레이드되며, 변모하는 모습임.

- 총 5년간(2013-17) 신남방국가에 교육 ODA로 약 2.2억 달러 (전체 ODA의 10.2%) 지원
- 비율 : 베트남(42.0%), 캄보디아(18.2%), 필리핀(11.4%), 미얀마(10.7%), 라오스(7.3%) 등

국가	약정액 (백만불)
베트남	92.31
캄보디아	40.05
필리핀	25.06
미얀마	23.47
라오스	16.11
태국	14.38
인도네시아	7.28
말레이시아	1.15
인도	0.12
합계	219.93

* GKS 사업을 제외한 통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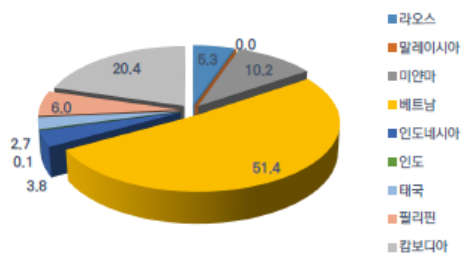
④ 신남방국가 고등교육 ODA 현황 (2013-17)

- 교육 ODA 비율 중에서 고등교육 ODA 제일 큼. 하지만 베트남 외 몇 개 국가들과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함.

- 총 5년간(2013-17) 신남방국가에 고등교육 ODA로 약 1억 달러 (교육 ODA의 45.8%) 지원
- 비율 : 베트남(51.4%), 캄보디아(20.4%), 미얀마(10.2%), 필리핀(6.0%), 라오스(5.3%)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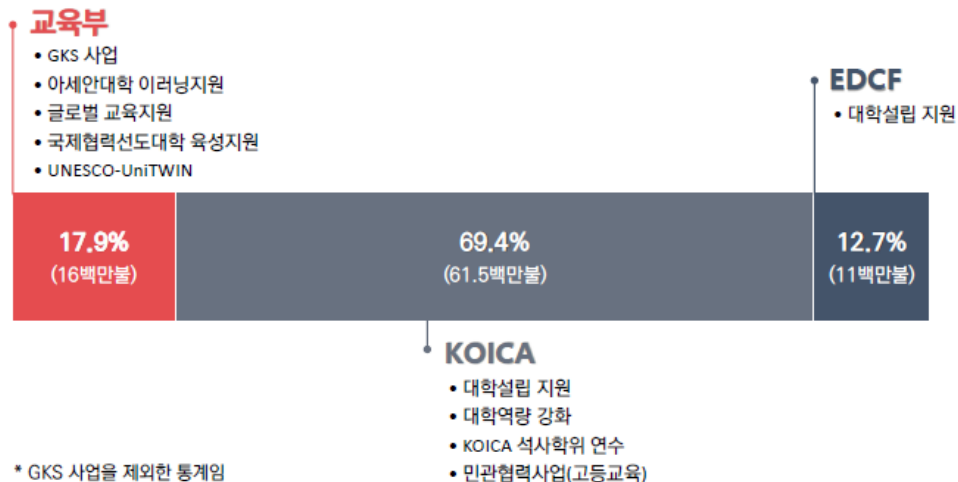
국가	약정액 (백만불)
베트남	51.82
캄보디아	20.60
미얀마	10.32
필리핀	6.02
라오스	5.34
인도네시아	3.81
태국	2.76
인도	0.08
말레이시아	0.03
합계	100.78

* GKS 사업을 제외한 통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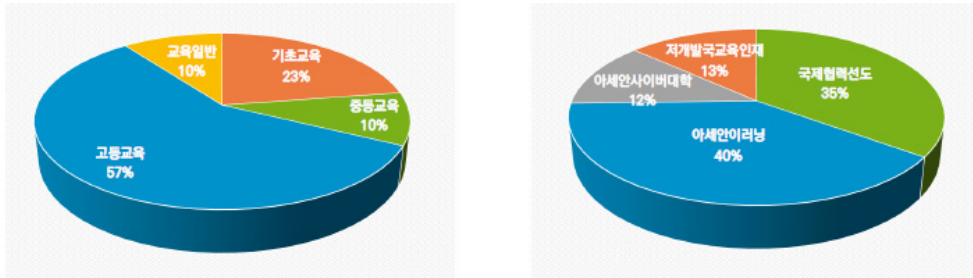
3) 신남방 국가 고등교육 개발협력 사례

① 신남방국가 고등교육 개발협력 현황 (2013-17)



- KOICA의 비중이 큰 이유는 GKS사업이 통계에서 빠져있기 때문임.
- 교육부: GKS 정부초청 장학생사업은 개도국 인재양성에 한국이 기여한 사업임. 한국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끈이 되었으며, 오랜 역사를 가짐. 아세안 대학 이리닝 지원사업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이리닝에 관한 고등교육 질을 높이는 사업임. 글로벌 교육지원은 오디에이를 위한 시범사업임. UNESCO-UNITWIN은 한국의 대학들이 개도국의 대학들과 협력하여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며, 아세안국가 대학들과의 직접적인 협력을 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음. 교사-학생 교류, 대학이 서로 만나는 기회들이 만들어 지고 있음.
- KOICA: 대학설립 지원사업은 대학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KOICA가 직접 가서 대학 설립해줌.
- EDCF: 경제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하여 지원해주며, 앞의 두 기관과 성격이 다름. 경제협력이 긴밀한 나라에 대학설립 지원하고 있음.

② 신남방국가 고등교육 ODA 현황 (13-17) : 교육부



* GKS 사업을 제외한 통계임

- 1967년 이후 ODA 사업 실시하여 국가 간의 교류 차원에서 국가 간의 학생 교류만 있었음.
- 2005년 이후 교육수출 활성화 방안 이후 GKS 사업을 제외하고도 전체적으로 고등 교육 사업 비중이 높아짐. 그 중 아세안 이러닝 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음. 인프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임.

(ㄱ) 고등교육 ODA 사업 사례: 아세안 이러닝 지원

- 2009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 개시함. 그 중 한 국에서 발표 된 중요한 프로젝트는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이었음.
- 태국이 제일 교육 수준 높음. 하지만 교육 협력 많지 않음. 일방적으로 한국이 지원할 수 있는 나라하고만 했었음. 태국하고 교류를 했다면 다양한 교육 교류 협력 모델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함.
- 각국들의 5개 대학에서의 사이버 대학의 형태로 이러닝을 실시하고 있음. IT강 국인 한국에서 질 높은 강의를 공급하기 위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함.

구분		대학 명
캄보디아	회원대학	• 캄보디아공과대학교(Institute of Technology of Cambodia)
라오스		• 국립우정통신대학교(National Institute of Posts Telecommunications and ICT)
미얀마		• 라오스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Laos)
베트남		• 기술대학교(University of Technology)
태국		• 컴퓨터대학(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 하노이공과대학교(Hano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쓰리바툼대학교(SPU: Sripatum University)
한국	협력대학	• 송실사이버대학교 + 건양사이버대학교(컨소시엄)
		• 원광디지털대학교
		• 부산디지털대학교 + 동서대학교(컨소시엄)
		• 영진사이버대학교 + 영진전문대학(컨소시엄)

(ㄴ) 고등교육 ODA 사업 사례: 글로벌 교육지원사업

- 테스트벨로써 고등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함.

사업내용 (예시)	주관기관
• 라오스 학교 보건담당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요구도 조사	중앙대
• 인도네시아 사범대학들의 컴퓨터 기반 과학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및 교육콘텐츠 공동 개발·확산	강원대
• 미얀마 치과대학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조사 • Center of Excellence(COE) : 한-파키스탄 도시환경센터를 통한 파키스탄 NED 대학 기후국제협력과정 구축	서울대 인천대
• 캄보디아 특수 교육 및 통합 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교육협력	공주대

- 사업 모델개발의 모태로써 국제개발 선도사업도 이 사업으로부터 출발함. 창의적인 시도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음.

(ㄷ) 고등교육 ODA 사업 사례: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

구분	대학 명	
캄보디아	회원대학	• 캄보디아공과대학교(Institute of Technology of Cambodia)
라오스		• 국립우정통신대학교(National Institute of Posts Telecommunications and ICT)
미얀마		• 라오스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Laos)
베트남		• 기술대학교(University of Technology)
태국		• 컴퓨터대학(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 하노이공과대학교(Hano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	협력대학	• 쓰리바툼대학교(SPU: Sripatum University)
		• 송실사이버대학교 + 건양사이버대학교(컨소시엄)
		• 원광디지털대학교
		• 부산디지털대학교 + 동서대학교(컨소시엄)
		• 영진사이버대학교 + 영진전문대학(컨소시엄)

- 컨퍼런스의 최우선 주제로써, 한 프로젝트를 4년 동안 지원함. 건물 설립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교수진과 수원국 국가들의 교수진이 협력하여, 학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수진 역량 개발, 일부 학생은 GKS를 통해 교수요원으로 개발되어 자국으로 돌아가서 교수로써 일하기도 함.
-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로 발전해 왔음.

(ㄹ) 고등교육 ODA 사업 사례: UNESCO-UNITW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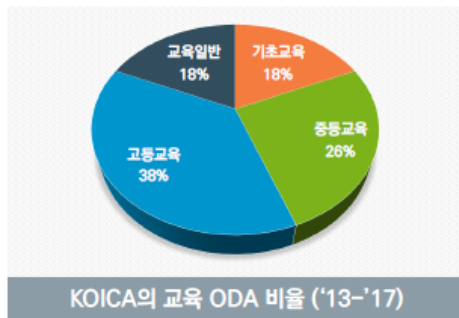
- 유네스코가 전 세계 대학을 대상으로 시행. 교육부가 일부 지원하고 있음.

- 주 국가는 신남방국가로써, 한동대, 숙명여대, 방송통신대, 교원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대학들의 본인들의 강점을 활용하여 단기간 사업으로 세미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컨설팅을 실행하고 있음.
- 신남방국가들 뿐 아니라, 한국 대학들에게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대학	출범연도	분야	주요 활동 (2019년 기준)	대상국
한동대	2007	지속가능개발	국제기업가정신훈련, 지역공동체개발역량 및 도시 환경개선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컨설팅 개최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몽골, 네팔, 에티오피아, 가나 등
숙명여대	2014	여성역량	여성 ICT 역량 강화 및 리더십 교육 관련 워크숍 개최(8개국 협력)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몽골, 파푸아뉴기니, 모로코
한국방송통신대	2017	원격교육	원격대학 설립 및 원격교육 시스템 리모델링 지원	몽골 등 개도국
한국교원대	2019	교사교육	교사교육 질 관리	

③ 신남방국가 고등교육 ODA 현황 (13-17) : KOICA

- 현재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줄고 있는 실정임. SDGs에 따라 기초교육과 직업 교육에 집중하고 있음.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기술환경에너지, 농림수산 분야 지원함.



추진방향	주요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위한 양질의 교육 (SDG 4.1, 4.7)	기초학력 증진 및 교사 역량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교육 (SDG 4.5)	여성, 장애인, 학교밖 아동 지원 재난 및 분쟁 지역 교육접근성 제고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SDG 4.3, 4.4)	직업기술교육 시스템 강화 기술교육기관 선도모델 구축

[KOICA 교육 중기전략 2016-2020 개요]

- 고등교육 ODA 사업 사례 : 대학 설립이 가장 큰 부분 차지하고 있음.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 지원하고 있음.
- 민관협력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 비율이 높은 편임.
- KOICA 석사학위 연수 사업은 GKS 사업과 다르게 공무원이 많이 참여하고 있음.

④ 신남방국가 고등교육 ODA 현황 (13-17) : EDCF

유형	사업명 (예시)	사업기간
프로젝트	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 교육역량강화사업	2014~2017
	라오스 한-라 직업기술개발원 역량강화사업	2017~2020
민관협력사업	라오스 국립대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2013
	캄보디아 프놈펜 예술대학 설립지원 사업	2013
	미얀마 대학 국제관계/개발 교육 개선 방안연구 및 시범교육사업	2015
	베트남 북부지역 여성 고급인력 양성 전략수립 연구	2015
연수 사업	KOICA 석사학위 연수 사업	1997~현재

사업연도	사업명 (2019년 기준)
2013	하노이약학대학건립사업
2015	라오스 루앙프라방 지방국립대 설립
2016	5개 지역 한베직업기술대학

- 유상원조, 차관. 경제개발의 한 부분으로 지원.
- 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짐. 직업훈련원과 대학설립 지원 많음.
- 아세안 국가들의 비율 높음.

4) 신남방국가 고등교육 개발협력 과제

① 기존 사업의 성과 및 한계

- 신남방정책에 대해 어떠한 고민을 해야 할 지, 신남방국가에 대한 정책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신남방정책 2.0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교육에 좀 더 변화가 있어야한다는 관점에서 진단하고, 논의해야 함.
- 신남방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ODA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임. 현재 교류 협력에 대한 토대는 구축이 되어있음.
- 아쉬운 점은 데이터에서 본 것처럼,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의 일부 국가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점임.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은 국가들(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고등교육 개발협력이 거의 없음. 치중되어 있는 국가들 외에 지원 거의 없었음.

- 또한 상대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 브루나이와의 교육지원 공조가 약했음. 아시아 국가간 다자원조와 네트워크 활동이 부족함.
- 신남방정책은 3P 중 번영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교육정책으로만 추진될 것이 아니라 기업들과의 산학협력이 기대되어야 함. ODA 파트너로써 적극적으로 매칭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그래야 신남방정책에서 지향하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음.

② 신남방국가 고등교육 개발협력 방향

(ㄱ) 신남방국가의 고등교육 수월성 제고를 위한 지원확대

- 기존에는 기회의 확대만 꾀했지만, 자칫하면 고학력 실업자만 유발할 수 있음. 질 제고에 대한 관심 또한 신경 써야함. 또한 신남방국가 대학과 한국 대학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강화되어야 함.
- 무엇보다도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수 요원 양성 및 연수 강화를 해야 함. 교수가 좋아져야 연구와 대학이 같이 성장할 수 있음.

(ㄴ) 국가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고등교육 개발협력 추진

- 신남방국가들의 각각의 강점을 고려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함. 다자간 협력, 다양한 네트워크 협력모델 구축 등을 통해 신남방국가들이 가진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임.

(ㄷ) ‘수원국 정부-대학-산학 연계’에 기반한 산학협력 모델 활성화

- 일반 사업으로 행해지는 것은 기초교육이 많은 실정임. 기초교육은 학교교육만 잘 실시되면 됨. 하지만 고등교육은 교육만 실시되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고등교육 확장이 고등교육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취업과 연계되어야 함. 경제분야 협력과 같이 가서 어찌 보면, 신남방 정책의 틀을 잘 활용하고, 교육과 연계하여 좋은 인재를 배출하여, 그 나라의 산업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됨. 이것이 실현될 때 전략적이 고등교육 개발협력 또한 실현될 수 있음.

(ㄹ) 신남방국가 교육 ODA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

- 교육 뿐 아니라 시너지 발휘를 위해서는 조정, 연계, 통합 지원을 해주는 기관들이 필요. 교육 부문에 관한 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
- 이러한 발전적인 생각들을 바탕으로 노력할 때 신남방국가들과의 고등교육 개발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세션 3

고등교육 개발협력 성과: 우수인재의 육성 - 발표 요약 -

1. 발표자: 서혜애(부산대학교, 교수)

- 나가자 세계로! 자라자 인재로! 대학생 해외파견 봉사활동의 성과 -
- 해당 사업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해외로 또는 국제학교로 현장 교사를 파견하는 장기 파견사업과 학부생이 파견되는 단기 해외봉사활동이 있으며 4년 차에 접어들었으며 부산대학교는 2020년에 3년차가 됨
- 교육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아프리카는 나머지 대륙의 국가들을 합친 만큼의 많은 수의 국가들이 거대한 면적을 갖고 있는 대륙이며 탄자니아는 동부에 위치에 있음
- 탄자니아는 독일과 영국의 지배를 받은 국가로 기독교와 이슬람의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최빈국임. 인구는 5,600만 명 가량임. 2018년에 주한 탄자니아 대사관을 개소한 점이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인간개발지수(HDI)세계 152위, 기대수명 58.2년, 평균 학업 년수 5.1년, 초등 교육 이수율 80.8%, 교사 대비 학생 수 53명 등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음.
- 탄자니아 중등교육의 문제점은 교수학습 자료의 부적절, 학습과 교수의 언어 능력 빈약 등이 있음. 특히 탄자니아의 경우에는 마사이족, 차가족 등을 비롯하여 156개의 부족이 있으며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 스와힐리어로 학습을 하다가 한국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 즉 7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함. 교과서와 의자도 부족하여 1인당 1개씩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부산대 탄자니아 과학수학공학ICT 융합교육실습은 총 20명 중 공대학생이 10명, 15명 정도로 많으며 학생들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음.
- 탄자니아에서 온 교수 급 유학생들을 초청하여 파견 전 사전교육을 진행함.
- 적정과학기술지원센터가 NM-AIST 부설로 있으면서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참관 및 참여하였음
- 예산부족으로 2018년에는 공대학생 4명을 선발하여 2019년 1월 7일 ~ 2월 3일까지 4주간 활동함

- 지원자격 : 본교 학칙 상 징계 없는 학생, 영어구사력과 성실함, 책임의식, 적극 참여할 예비교원
- 예비후보자 선발 : 사전교육 출석률 80% 미만의 경우 파견 취소 내용 공지, 후보자 선발 명단 계획

학생선발 선정기준	배점	선정 방식
① 기초 생활 수급자	10점	·관련서류 심사(학점, 영어)
② 학점 2학기 평균 학점 3.0 이상인자	20점	·구두면접 심사(영어회화, 인성)
③ 영어 면접 합격자	20점	·다문화에 열린 태도 행동 특성
④ 인성 면접 합격자	20점	(교내외 봉사활동 경력)
⑤ 봉사활동 우수자	10점	
⑥ 교수 추천	20점	→ 합계 100점

- 활동 지역은 탄자니아 모시, 아루샤 지역이며 활동 기관 및 봉사대상은 Moshi Technical Secondary School임. 해당 기관의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는 우수하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주변 지역의 학생들이 대다수임
- 파견 전에는 TIE(Teaching in English)를 위해 약 6~8개월 간 준비함.

- 회의를 통해 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하고 준비함
- Moshi Technical School의 기관장은 ICT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두고 있음
- 현지 파견 이후에도 바로 교육 활동을 시작하지 않고 관찰 및 현장 이해 시간을 가지면서 최종 준비를 함.
- 수화를 통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업도 시행함
- 물리수업, 화학수업, 생물수업, 수학수업, 과학수학공학 ICT 융합수업을 진행함
- 특히 과학수학공학 ICT 융합수업은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학생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태양열, 자동차, 디지털 로직회로, 드론, 스크래치SW,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의 수업을 진행하였음



현장 사전준비 모습

물리수업 : 옷놀이 - 벡터 연습 학습자 참여 중심 수업
 잠수함 - 부피 밀도 탐구실험 중심 수업



화학수업 : 산업기 시범실험 + 화학방정식 활동



생물수업 -발아실험 수업 & 식물분류 활동



수학수업 : 학습자 참여 중심 그룹 토론



- 특히 과학수학공학 ICT 융합수업은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학생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태양열, 자동차, 디지털 로직회로, 드론, 스크래치SW,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의 수업을 진행하였음

과학수학공학 ICT 융합수업 : 디지털 로직회로



- 놀라운 것은 탄자니아의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여 수업을 요청한 것임.
- 혼자서 대학생 수준의 프로그래밍을 해오는 경우도 있었음
- 수학 특별프로그램으로는 태극기 작도 수업을 진행하였음

- 문화교류활동도 진행하고 아루샤에 위치한 솔라플랜트를 방문하여 한국의 과학 기술 ODA사업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관찰함
- 해당 지역은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 지역임
-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경비를 사용해야하고,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보로 왕복 6km를 매일 등학교 하면서 활동하였음
- 참가 봉사 학생의 소감문에 따르면 첫 수업은 실패하였음
- 하지만 수업을 피드백하고 반성하고 다시 도전하였음
- 매 수업은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업처럼 준비하고 수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 결국 현지 선생님이 모범 수업으로 인정하고, 격려와 큰 칭찬에 감동하였음
- 국제 신문, 부산일보 등 10차례 이상의 언론보도
- 마이더스아이티, 장안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10군데 이상의 단체에서 학생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물품과 활동료 등을 기부 받음

번호	기부처	기부품목
1	마이더스아이티	노트북컴퓨터 10대
2	세계문화지원센터	연필, 볼펜, 필통, 에코백 등
3	국제피스스포츠연맹	축구공, 농구공, 배드민턴, 탁구세트 등
4	지파운데이션	후드 티 셔츠 등
5	부산장안고등학교	노후 현미경 30대 기부 (그 가운데 5대 사용 가능)
6	한국과학교육학회	대형 빔프로젝트
7	한국송강기안전공단	축구공, 농구공, 비상약품
8	부산 지성문구사	공책, 연필, 연필깎이
9	부산 체스보드게임	게임, 다트, 윷놀이 도구 등
10	카카오스토리	실험용품 기자재, 소형 빔프로젝트(봉사단원 주도적 모금)
11	부산대 대학원생 물리교사	드론, 아두이노 실험재료 등
12	부산대 공과대학 교수	디지털 로직 회로 실험재료 등
13	부산대 발전기금	공대생 항공료, 현지생활비
14	그외	2016년도 1기 부산대 탄자니아 봉사단 등

- 기부처에 감사 편지 및 사용 내역을 다 보냈음
- 놀랍게도 2016년에 탄자니아에 제공한 태양열 자동차 키트가 먼지만 쌓여있고 한 번도 사용되어 있지 않아서 남은 재료를 2~3세트 씩 제공하고 왔음

- 이 키트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심화된 지도안을 만들어서 함께 제 공하였음

모시에서 온 동영상 부산대 탄자니아 과학수학공학ICT 융합교육실습



태양열 자동차 수업 후 자료활용을 위한 노력
수업 후 재구성한 수업자료와 실험재료 개발하여

탄자니아 모시과학기술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달

탄자니아 학생들 자율적으로 실험한 결과를 동영상으로 촬영, 2019년 4월 중순 보내음



- 책임교수로서 올해에도 역시 파견준비를 하고 있음
- 2020년 1월 28일 출국예정으로 30명 정도의 봉사단원을 파견 할 예정임
- 학생들은 약 8개월 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과 부산대학교의 명예 그리고 명성을 걸고 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됨.
- 교육자로서 학생들의 변화와 삶에 대한 의식, 글로벌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함
- 학생들 개인적으로도 문화, 글로벌 개척 역량들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함
-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실제로 국가차원에서 어느 정도, 얼마나 의미 있게 진행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음
- 현지의 기관장은 굉장히 협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바람
- 물론 현지 교사 중 소수 일부는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는 함
-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사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음



- 한 단원은 탄자니아 봉사활동에 대한 감성적 표현과 기억을 담아 노래를 만들기도 하였음
- 이러한 활동이 기회이자 열정임. 또한 수학, 과학, 공학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할 때 국가를 드높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느꼈음.
- ODA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수학, 과학 예비교사들이 하는 이러한 활동들은 대한민국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적 지위를 드높이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파악함
- 교사들이 자신의 생애 동안 자신의 경험을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 잠재적 전파적 가치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함
- 다만 파견되었을 때 봉사활동이 얼마나 이벤트성인지, 보여주기식인지에 대한 반성도 있음
- 그래서 부산대 봉사단은 한 달 동안 한 장소에서 진정으로 교육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한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음
-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현지 교사들, 기부물품을 지원해준 단체의 도움과 더불어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음
- 위와 같이 2차 년도에는 1차 년도에 비해서 약간의 의미를 더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음

- 다가오는 3회 차에는 활동의 진수를 보여줘야 한다는 조바심, 조금 더 체계적이
어야 한다는 준비, ODA사업의 성과, 목표달성 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ODA사업 수원국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것보다도 시혜를 하는 것이 아닌, 상호
호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음
- 교육개발협력 사업으로 성과를 거둘 때 비로소 국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확신과
신념을 갖고 사업을 진행할 것임

**2. 발표자: 김은하(송실대학교, 대학생), 김혜원(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생),
문도현(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 박종찬(서울대학교, 대학생),
송유선(전북대학교, 대학생)**

- 개발도상국에서 더 넓은 세상을 만나다 -

**1) 월드프렌즈코리아 청년중기봉사단으로 5개월간 해외봉사 다녀온 단원 5명의
봉사단 지원 계기**

- 송유선(우간다 파견, 이하 송) : 국제개발협력을 전공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ODA에 대한 이해를 키워왔고, 이에 대한 적용을 위한 활동으로 전북대학교 단
일팀으로 청년중기봉사단에 지원함.
- 박종찬(스리랑카 파견, 이하 박) :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기
아와 빈곤 퇴치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함. 봉사활동과 더불어 개발도상국의 상황
을 확인하고,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봉사단에 지원함.
- 김혜원(에티오피아 파견, 이하 원) : 취업이 유일한 목표였지만 대학생 때 해외
봉사 한 번은 가야겠다 싶어 단기봉사를 다녀왔고 그 이후 아쉬움과 한 번 더
가고 싶다는 생각에 중기봉사단에 지원함.
- 문도현(캄보디아 파견, 이하 문) : 국제개발협력학을 복수전공하며 개발협력 분
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음. 단발성 교육 봉사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있
었고, 개발협력 현장 경험, 해외 장기 체류에 대한 기대로 봉사단에 지원함.

2) 임지 도착 후 적응함에 있어 어려웠던 점

- 김은하(사회자, 우간다 파견, 이하 하) : 시간 약속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음.
- 문 : 캄보디아는 9-10월에 공휴일이 많고 방학기간이라 말없이 결석하는 학생들이 많았음. 유연한 학교 문화 때문에 학교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수업 스케줄을 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음.
- 송 : 전기, 물과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음. 하지만 그 상황에 적응한 후에는 정전이 되는 상황에서도 별을 구경하는 등의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음.
- 원 : 무례하고 위협적인 일을 겪었음. 걸어가다가 맞은 적이 있어 생활하는 데에 무서웠음.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했고 화가 나도 참아야 했던 순간들이 그 곳 사람들에게 빨리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 아쉬움.
- 박 : 종교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팀원이 귀국을 선택했던 일이 있었음. 그 팀원의 빈자리가 컸지만 이를 계기로 팀원들이 더욱 뭉칠 수 있었음. 종교로 인한 문화적 차이를 따지거나 이해하기 보다는 ‘그렇구나’하고 받아들였음.



3) 더 나은 교육 봉사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 문 : 미술 교육을 담당했지만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부담이 컸음. 하지만 현지에서는 전문적인 수업보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확장시키는 도구로서의 미술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였음. 다양한 재료를 직접 사용하며 즐길 수 있는 수

업을 제공하고자 노력함. 또한, 영어로는 소통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현지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현지어 공부를 열심히 함.

- 송 : 매일 회의시간에 수업을 진행했던 팀원들을 자체적으로 평가함. 횟수를 거듭할수록 점차 점수가 높아짐. 또한, 농민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함. 교육 콘텐츠, 교육 수준, 지식, 발표자의 전달력, 교육 시간을 지표로 수혜자 입장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음.

3. Please indicate your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education provided by Waki Doki with ea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Very dissatisfied	Somewhat dissatisfied	Neutral	Somewhat satisfied	Very satisfied
Contents					
Level					
Knowledge					
Time					
Delivery					
Material					
OVERALL					

- 박 : 스리랑카에서 하기 어려운 경험들을 선물하고자 했음. 수업 이외의 체육대회 같은 특별한 행사를 자주 진행함. 컴퓨터 수업 시간에는 VR카드보드를 통해 눈이나 스키장 등을 보여주기도 함. 또한, 150인분의 고구마 맛탕을 만들어 나눠먹기도 함.

4) 교육 봉사를 진행함에 있어 잘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

- 하 :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 기관 등 여러 기관이 밀집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함. 수업뿐만 아니라 인권, 진로, 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함. 방학에도 쉬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초대하여 특별 활동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함.
- 박 : 활동 기관에서 기존에 없던 과목들로 수업을 진행함. 컴퓨터 수업의 경우, 컴퓨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했음. 파워포인트, 워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 사진이 들어간 명찰을 만드는 수업, 영어 타자 빨리 치기 대회 등을 진행함. 기존에 활용이 안 되던 컴퓨터실을 활성화 시

켰으나 사용가능한 컴퓨터 개수가 4대밖에 되지 않아 준비한 수업을 모두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원 : 자폐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함. 5개월 정도 아이들과 함께 했는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는 어려운 짧은 시간이었음. 하지만 손등을 물어뜯던 아이들을 타이르고 기다려줌. 특히, 아이들이 다쳤을 때 제대로 된 처치를 해주지 못하던 현지 기관 선생님들이 봉사단원들을 보며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이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함.

5) 봉사활동으로 인해 현지에서 볼 수 있었던 변화

- 하 :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음.
- 문 : 파견 전, 이러한 단발적인 교육봉사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나 교육에는 힘이 있음을 느낌. 캄보디아는 정규교육과정에 예체능 수업이 없기 때문에 색연필, 사인펜 등 미술 용품을 처음 접해본 학생들이 대부분이라 수업 후 몰래 가져가는 학생들도 많았음. 미술 용품을 직접 걷으러 다니고, 학생 가방 속에서 찾아내기도 하면서 속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적응을 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직접 걸어서 가져다주는 등의 변화를 보임. 또한, 공동체 의식을 찾아보

기 어려웠던 교실에서 서로 색칠을 도와주는 등의 공동체성이 보이는 변화를 통해 5개월이라는 짧은 미술 시간동안 창의력 증진, 표현력 강화와 같은 가치뿐만 아니라 공동체성과 주인의식까지 배울 수 있었다면 이것 또한 효과적인 교육의 시간이자 아이들에게 다신 없을 수도 있는 소중한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함.



- 송 : 농업 분야의 교육 ODA를 실시했을 때 두 가지의 변화를 볼 수 있었음. 첫째, 농민들이 함께 일하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됨. 우간다의 농업 형태는 개인 작업이 대부분임. 하지만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모티브로 하여 상부상조, 품앗이 등의 개념을 설명하고, 건조장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함. 건조장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룹 활동을 진행하며 직접 규칙을 정하는 시간도 가짐. 둘째, 농산물 건조를 설명하고, 건조장 활용 비즈니스 교육을 실시 하여 소득 증대의 창을 마련해 주인의식을 심어주고자 함. 농민 대표가 건조 작물 활용 사업제안서를 직접 발표해보기도 함. 실제로, 2019년 현재 파견되어 활동 중인 봉사단원들을 통해 농민들이 정식협동조합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매우 뿌듯했음.



- 박 : 현장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에 체육시설을 완비함. 그러나 해당 기관에는 원래 체육 수업이 없었고, 진행할 수 있는 교사도 없었기 때문에 봉사단원들이 떠난 이후에도 제대로 사용될 지가 의문이었음. 체육 시설을 활용한 체육 수업이 이후에도 지속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기관과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관련 사항을 요구했고, 신청을 통해 교육청에서 체육 전담 교사를 파견해주겠다는 확인을 받고 귀국함.



- 원 : 오티즘 알리기 캠페인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임. 에티오피아에서 자폐를 가

진 사람은 부모가 지은 죄의 결과물이라며 꺼려지는 존재였음. 따라서 오티즘에 대한 선입견을 깨기 위해 길거리로 나가 영상, 책자, 티셔츠 등으로 오티즘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고 적지 않은 후원금까지 모으는 결과를 낳음. 기관 측에서도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홍보 행사에 매우 고마워했으며 앞으로는 기관에서도 이런 캠페인을 진행해보기로 약속함. 그 이후, 기관에서 여러 기관의 담당자들을 만나고,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여러 방면으로 오티즘을 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봉사 활동의 결과물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6) 나에게 청년중기봉사단은 ()다.

- 송 : 인생경험이다. 개인적으로 고향을 가장 오래 떠나 본 시간이자, 가족이 아닌 팀원들과의 5개월 생활이 예능 프로그램을 찍는 것처럼 즐거웠음. 가장 뿌듯했던 건, 한날 대학생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우간다 농민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그들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게 한 것임. 이러한 뿌듯함을 느끼고 그로 인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진정한 해외봉사활동의

의미라고 생각함.

- 박 : **안경**이다. 봉사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누군가에게 강제되어선 안 됨. 봉사는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해야 하는 것이지, 강요로 하는 순간 더 이상 봉사가 아님. 마찬가지로 안경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안경으로 더 멀리 있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가치 있고 빛나는 것들을 볼 가능성도 더 커지게 됨. 청년중기봉사단을 통해 그동안 알 수 없었고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되었음.
- 원 : **창문**이다. 함께 에티오피아를 다녀온 팀원들은 각자 또 다른 목표를 이루어 가는 중임. 자신도 현재 학교로 돌아가 휴학 전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 봉사단원으로 한국을 떠나보겠다는 목표를 세움. 청년중기봉사단은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고, 덕분에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음. 아직은 생각에 불과한, 창밖으로 세상을 본 것에 불과하지만 언젠가 그 창문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지금은 현재 해야 할 공부를 하기로 함.
- 문 : **유레카**다. 무언가를 발견하고 알아내면 ‘유레카’를 외치듯이 청년중기봉사단 경험을 통해 교육 봉사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생기고, 해외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냄. 무엇보다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비전에 대한 확신도 생김. 이 분야의 어떠한 사업과 국가가 잘 맞고 좋은지 알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경험을 하고 싶음. 현재는 더라이트헨즈라는 NGO 단체에서 인턴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공부하며 경험을 쌓고자 함.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에서 행복을 찾고 누릴 수 있기 위해서 개발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보장된 삶으로, 자립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고 싶음.
- 하 : **농사**다. 교육 봉사는 특별히 더 그 결과가 한두 달 뒤에 바로 눈에 띄지 않음. 수치를 넘어서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삶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 교육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미술을 통해 해방적인 경험을 할 것이고, 흥얼거릴 노래가 생기며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라고 생각함. 교육 봉사를 하며 스스로 농부처럼 느껴짐.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함께 했던 촉감 수업이 아이들 개인의 삶과 학교와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화시킬 것임.

그 믿음을 가지고 최근에는 ODA 자격증도 따고, 다시 봉사를 위해 출국할 준비를 하고 있음.

3. 발표자: Ronel Laranjo, Michelle Palumbarit(필리핀 국립대학교, 교수), Anjali Singh, Rajesh Kumar(서울대학교, 대학원생), Chhun Theavy, Yolanda Normagupita(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생)

-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

1)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이하 GKS)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발표자:Anjali Singh)

- GKS의 목적 : 외국 유학생들에게 대한민국 교육 기관의 학부 및 대학원 프로그램에서 고등 학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 간 교육 및 상호 친교의 국제 교류를 촉진함.
- GKS 학생들의 선호 전공

선호하는 전공
(Desired Majors/Field of Study)

- ◆ 과학 기술 분야 (Science and Technology)
- ◆ 공학 (Engineering) (수학 및 컴퓨터 등)
- ◆ 국제 관계학 (International studies and relations)
- ◆ 한국어교육학, 인문학
(Korean Language, Literature and Culture)
- ◆ 경영학 Business Management
- ◆ 의학, 간호학, 보건학 Nursing
- ◆ 호텔경영과 (Hotel Management and Hospitality)
- ◆ 예술학, 미술학 (Fine arts in Music, theatre, Drama etc)

(과학 기술, 공학을 가장 선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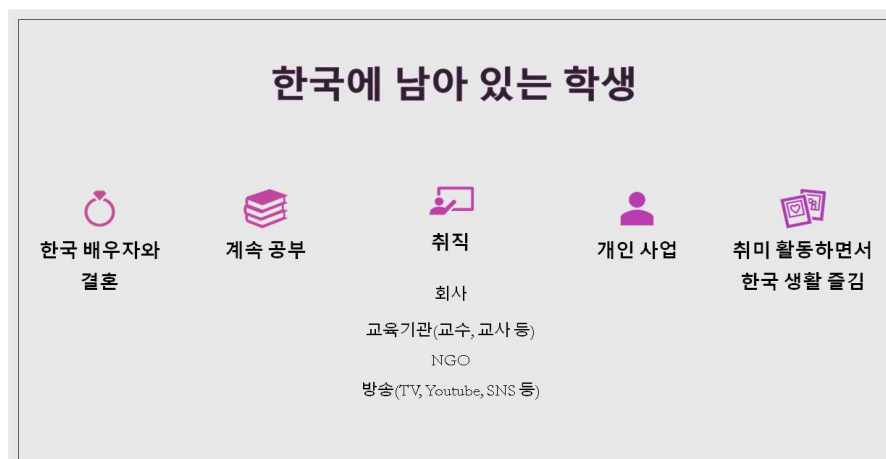
- 필요 한국어 수준 : 한국 혹은 한국어와 관련된 전공이 아니라면 유창할 필요는 없지만 생활과 수업 이해를 위해 어느 정도의 한국어 능력이 요구됨.
- 일반 석사과정이 2년인 것과 달리 GKS 석사는 3년 과정임. 1년의 어학연수와 2년의 전공 연구의 과정이며 어학연수를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TOPIK 취득 등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음.

2) GKS 학생들의 생활(발표자: Rajesh Kumar)

- 대학원생 보다 학부생이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음.
- 대학원생들에게 회식의 기회가 많음. 교수님, 같은 전공 학우들과의 시간을 보냄.
- 한국인 학생들과의 스터디를 통해 수업 중 할 수 없는 지식적 교류를 함.
- 이외에 식사시간과 그룹 발표 준비 기간에 학우들과 대화하고 공부함.
- 동아리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학부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음.
- 전공, 관심분야에 대한 동아리에 참여함.
- 1년 간의 어학연수 과정 중 사귀 친구들과 유학생활에 대한 교류를 나눔.
- 대부분 타 대학, 타 전공이기에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음.
- alumni night 가 있을 때 GKS 친구들과 교류 할 기회가 있었음.

3) GKS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발표자: Chhun Theavy)

- 졸업 후 한국에 남아있는 학생



- 졸업 후 귀국하는 학생



- 인문과 학생의 경우 전공과 관계없이 취직하는 경우가 많음.

4) GKS 졸업 학생의 사례(발표자: Ronel Laranjo, Michelle Palumbarit)

① Ronel Laranjo

- 고려대학교 언어학 석사학위 취득(2015)
- 필리핀어학 박사과정 중
- 졸업이후 필리핀국립대학교 조교수로서 필리핀 문화와 필리핀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음.
- Global studies인 From kimchi to K-pop 강의를 진행하고 있음.
- Global studies 강의에서 필리핀과 한국의 관계, 한국 사회의 장단점, 한국 교육, 문화에 대한 내용을 다룸.

국립필리핀대학교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 Global Studies: From Kimchi to K-Pop 수업



-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유학을 원하는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수업 시간에 GKS orientation을 진행함.
- 부산외대 학생 필리핀어 초급 코스 강의를 담당하고 있음. (필리핀어 외에 필리핀 문화, 필리핀 사회에 대한 강의 포함)

국립필리핀대학교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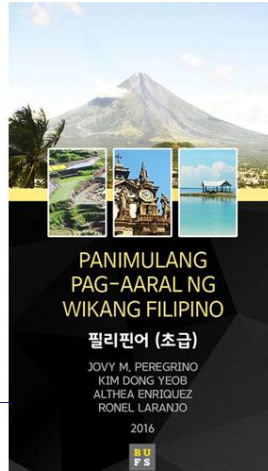
- 부산외대 학생을 위한 필리핀어 초급 코스 담당자



- 부산외대에서 교재로 사용 중인 필리핀어 초급 교과서를 번역함.

국립필리핀대학교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 필리핀어 초급 교과서 번역자



- GKS 동문협의회 필리핀 동문회장과 홍보대사를 맡음.



GKS 동문회

- ✓ Facebook
- ✓ Instagram
- ✓ GKS 동문회 네트워크 센터
- ✓ 각 나라에서 GKS 동문회

GKS 동문협의회 필리핀 Pilipinas

- 동문 회장



GKS 동문협의회 필리핀 Pilipinas

- 홍보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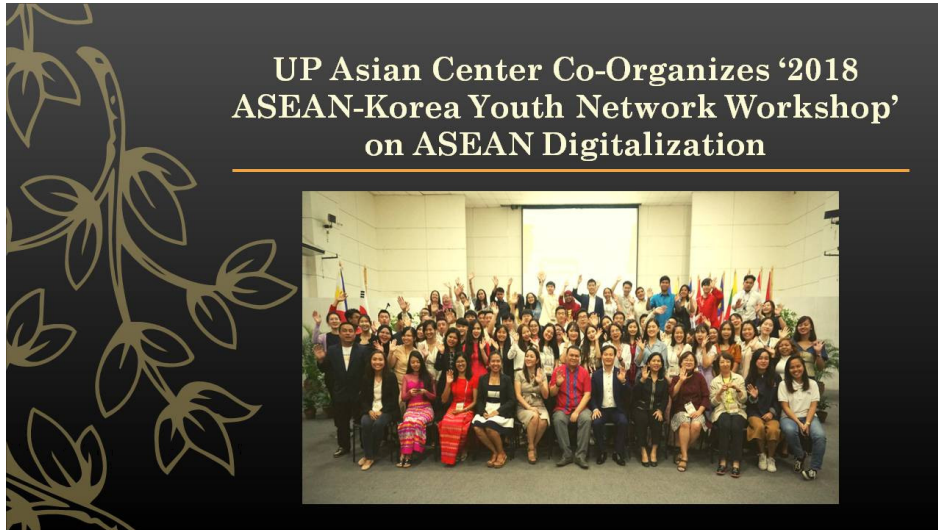
- 곤남민주대학교 초빙교수를 역임함. (2018.09~2019.07)
- GKS를 통해 학문의 기회를 얻었고 필리핀 학생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타국 학생들과 학문적, 생활적인 공유를 할 수 있어 만족했음.

② Michelle Palumbarit

- 연세대학교 한국학 석사학위 취득(2010)
-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 관심 분야 : 한국학, 한국 거주 필리핀 이주자, 필리핀 거주 한국인, 한국-아시아 관계 및 정치
- 필리핀국립대학교 아시아센터에서 한국학을 강의함.



- 한국학 교수로서 아시아센터 한국학을 풍요롭게 하고 필리핀과 한국 대학들과 협력할 계획임.



- 일반대학원에서 공부하며 모든 내용을 한국어로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 친구, 이웃들과 많은 대화를 하며 한국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었음.

5) GKS 학생으로서의 어려운 점과 개선점(발표자: Yolanda Normagupita)

- 한국어로 생활하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학문적인 표현에 있어 단어, 구술 등이 어렵게 느껴짐. 구문과 어문에 차이가 있어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음.
- 분리수거, 이름 표기법, 대화 표현의 문화적 차이 등 한국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음.
- 일반적으로 동아리는 학교별로 있는데, 지역별 동아리가 있다면 GKS 학생들의 접근성이 올라갈 것으로 보임.
- GKS 학생들로 이루어진 문화 공연 팀이 있었으면 좋겠음.
- GKS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음.
- 국립국제교육원 job fair를 매년 개최하듯 GKS 학생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취업 정보 지원의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음.

종합토론

고등교육 개발협력의 비전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대학의 역할을 논하다 - 토론 요약 -

1. 좌장 겸 토론자: 변기용(고려대학교, 교수)

- 한국 사회의 빠르고 압축적인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점들이 고등교육현장에서 응축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의 고등교육 ODA 체제를 이해해야 함.
- ①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중소규모 사립대학의 수가 상당 부분 차지
- ② 4년제 일반대학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폐쇄적, 경직적 학사 운영 방식
- ③ 다양한 고등교육기관 간 적절한 역할 구분 및 연계 체제 미비
- ④ 뿌리 깊은 공급자(교수, 전문가) 중심 운영 관행과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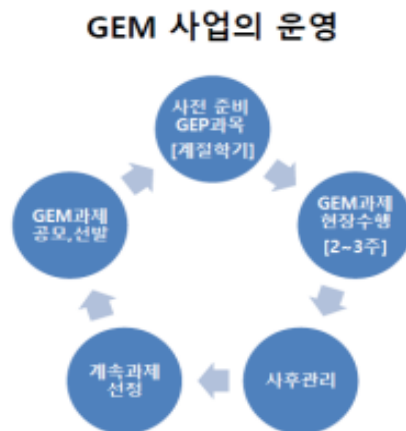


- 지식중심에서 역량중심(배려, 협업, 문제해결 등)으로 고등교육의 방향이 변화하면서 최근에 와서야 ACE 사업 및 비교과 활동이 강조됨.
- 외교부와 교육부 간 협업 및 고등교육분야로의 예산 편성 미비.

- 교육부의 국제화 정책에 대한 관심 및 인력 충원 미흡.
- 고등교육 ODA 유관 기관들이 통합 및 연계되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운영됨.
- 상생의 관점에서 수원국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국내 대학생들의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대학특성화 사업의 하나로서 ODA 연계할 필요성이 있음.
- 관련 정부부처, 개별 대학, 대기업, 대사협 간 자원이 연계될 필요성이 있음.

2. 토론자: 한윤식(한동대학교, 교수)

1) GEM(글로벌전공봉사)



- 제3세계 소외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문제에 도전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함.
- 단계적으로 3~5회 방문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계획을 가진 팀만 선발해서 지원
- 현재까지 20여개 개도국 방문, 48개 팀(약 250명) 지원
- 참여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셋, 문제해결능력 향상, 협업 능력 및 취업에 도움 됨.
- 프로젝트가 현지 협력 기관의 이익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지속성 확보 가능
-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초점

GEM/GEP Projects (2016~2018)

번호	프로젝트명	주최기관	번호	프로젝트명	주최기관
1	2016년 GEM/GEP 프로젝트 (2016년 10월~2017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21	2017년 GEM/GEP 프로젝트 (2017년 10월~2018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2	2016년 GEM/GEP 프로젝트 (2016년 10월~2017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22	2017년 GEM/GEP 프로젝트 (2017년 10월~2018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3	2016년 GEM/GEP 프로젝트 (2016년 10월~2017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23	2017년 GEM/GEP 프로젝트 (2017년 10월~2018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4	2016년 GEM/GEP 프로젝트 (2016년 10월~2017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24	2017년 GEM/GEP 프로젝트 (2017년 10월~2018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5	2016년 GEM/GEP 프로젝트 (2016년 10월~2017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25	2017년 GEM/GEP 프로젝트 (2017년 10월~2018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6	2016년 GEM/GEP 프로젝트 (2016년 10월~2017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26	2017년 GEM/GEP 프로젝트 (2017년 10월~2018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7	2016년 GEM/GEP 프로젝트 (2016년 10월~2017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27	2017년 GEM/GEP 프로젝트 (2017년 10월~2018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8	2016년 GEM/GEP 프로젝트 (2016년 10월~2017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28	2017년 GEM/GEP 프로젝트 (2017년 10월~2018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9	2016년 GEM/GEP 프로젝트 (2016년 10월~2017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29	2017년 GEM/GEP 프로젝트 (2017년 10월~2018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10	2016년 GEM/GEP 프로젝트 (2016년 10월~2017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30	2017년 GEM/GEP 프로젝트 (2017년 10월~2018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11	2016년 GEM/GEP 프로젝트 (2016년 10월~2017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31	2017년 GEM/GEP 프로젝트 (2017년 10월~2018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12	2016년 GEM/GEP 프로젝트 (2016년 10월~2017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32	2017년 GEM/GEP 프로젝트 (2017년 10월~2018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13	2016년 GEM/GEP 프로젝트 (2016년 10월~2017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33	2017년 GEM/GEP 프로젝트 (2017년 10월~2018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14	2016년 GEM/GEP 프로젝트 (2016년 10월~2017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34	2017년 GEM/GEP 프로젝트 (2017년 10월~2018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15	2016년 GEM/GEP 프로젝트 (2016년 10월~2017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35	2017년 GEM/GEP 프로젝트 (2017년 10월~2018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16	2016년 GEM/GEP 프로젝트 (2016년 10월~2017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36	2017년 GEM/GEP 프로젝트 (2017년 10월~2018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17	2016년 GEM/GEP 프로젝트 (2016년 10월~2017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37	2017년 GEM/GEP 프로젝트 (2017년 10월~2018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18	2016년 GEM/GEP 프로젝트 (2016년 10월~2017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38	2017년 GEM/GEP 프로젝트 (2017년 10월~2018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19	2016년 GEM/GEP 프로젝트 (2016년 10월~2017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39	2017년 GEM/GEP 프로젝트 (2017년 10월~2018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20	2016년 GEM/GEP 프로젝트 (2016년 10월~2017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40	2017년 GEM/GEP 프로젝트 (2017년 10월~2018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

- 항공료와 보험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도교수 또는 학생 부담
- 학회, 동아리의 형태로 운영하여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확보함.
- 현지 파트너 기관의 지원과 안전한 주거 환경이 확보되어야 함.
- 대학사회봉사협의회의 청년중기봉사단을 통해 5~6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 5개월 동안 개도국에 체류하면서 10,000불의 현장프로젝트 비용을 지원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함. 대표적으로 우간다 쿠미지역(2016년~2018년)에서 진행하였음. 청년 중기 봉사단을 대학의 특색에 맞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대학이 주도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 대학생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강조할 때 실제 ODA 사업에 투입될 수 있고, 그를 통해 참여 대학과 학생들도 성장 가능함.

3. 토론자: 장재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사무국장)

나눔과 배움을 실천하는 대학사회봉사의 허브

01
회원대학 245개

02
설립목적
사회봉사 활동과 교육에 관한
회원교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사회봉사 촉진

03
주요기능
대학생 사회봉사활동의 육성발전
대학 교육과 사회봉사 연계에 관한 연구
대학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한국대학
사회봉사
협의회**

"대학의 사회봉사는 교육, 연구와 더불어
3대 대학 기능 중 하나.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적 참여에 관한 가치관 세우는 데 일조하고자 창립"
- 김덕중 대사회 초대회장(당시 아구대 총장)

1) 대학의 사회봉사 인식 미흡

- 교육, 연구와 더불어 대학의 3대 기능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인식 미흡.
- 대학 내 사회봉사 학점 인정 제도 미흡(15학점 이상 인정 대학은 전국에 4개 뿐).
- 대학 내 사회봉사센터 혹은 소수의 열성적인 교수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
- 전국에 60여개 대학만이 사회봉사센터를 갖추고 있으며 그마저도 순환보직으로 인해 담당자가 교체됨.
- 전반적 인식 제고 및 독려를 통해 학사차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2) 정부의 정책상 대학생 봉사단사업의 낮은 우선순위

The infographic is divided into two main sections: '단기봉사단사업(단기)' and '중기봉사단사업(중기)'. Each section provides a detailed overview of the 'Millennium Volunteers' program, including its goals, participant numbers, duration, and the types of projects and support provided.

단기봉사단사업(단기)

- 밀드프렌즈 청년봉사단 소개**
 - ▶ 사업예산 : 1,116,000,000원
 - ▶ 파견기간 : 8주/동계 방학 중 약 2주
 - ▶ 참여대상 : 대상대학 회원대학 소속 교수, 교직원 및 재학생(졸업학기 제외/취약계층 우대)
 - ▶ 모집인원 : 약 400명(38, 39가 각각 200명)
 - ▶ 파견대상국 : WPK 대상국 52개국
 - ▶ 활동내용 : 교육 및 문화봉사, 노숙인, 문화교류 등
-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소개**
 - ▶ 파견 대상국 : WPK 대상국 52개국
 - ▶ 파견 기간 : 8주/동계 방학 중 약 2주
 - ▶ 참여 대상 : 대상대학 회원대학 (연간 대학별 프로그램 최대 1회 지원)
 - ▶ 지원규모 : 연간 39개 프로그램, 총 310,000,000원
 - 프로그램 별 지원 규모(12,000원~6,000원)
 - (희제) 23개 프로그램, 총 184,000,000원 지원(당첨)
 - (통제) 16개 프로그램, 총 126,000,000원 지원(당첨)
 - ▶ 프로그램 진행 일정
 - 프로그램 종료 (3-4월)
 - 심사 및 선정 (4-5월)
 - 자문금 지급 (5월)
 - 파견 (5-6월)
 - 결과/환급보고 (6월)

중기봉사단사업(중기)

- 밀드프렌즈 청년봉사단 소개**
 - ▶ 사업목적 : 봉사활동 및 파견국 이해를 통한 대학생 역량강화 및 글로벌 인재양성
 - ▶ 사업내용
 - 약 5개월 간 개도국에 팀 봉사단 파견
 - ▶ 사업대상 : 회원교 유학생 및 재학생, 졸업예정자(유예생)
 - ▶ 지원지역 : 송과국비, 교육지원, 활동경비, 주거생활비, 현지어심화학습비, 상해근재여행자보험, 긴급이후송서비스비
 - ▶ 주요활동 : 교육봉사(친환경교육,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특수교육 등), 특별활동(노력봉사, 문화교류, 특별강좌 등), 현장프로젝트
- 파견국**
 - 아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 중남미 자카이
 -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우간다, 마다가스카르
- 파견절차**
 - 인원모집 (3-4월) → 신청인원 (4-5월) → 국외교육 (7-8월) → 파견국 현지교육 (9-10월) → 팀지파견 (11월)

- 단기/중기 봉사단의 낮은 인지도.
- 코이카 일반 봉사단의 경우, 2018-2020년까지 두 배로 늘이는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어온 반면 단기봉사의 규모는 축소되어 왔으며, 중기봉사단의 경우 6년째 15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단기봉사단의 경우 2019년 기준 예산 14억으로 1300명의 대학생들을 2주 동안 파견함.
- 참가 대학생과 소속대학이 참가비를 분담하는 방식이나, 대학의 재정 여건에 따른 부담.
- 관련 부처 및 국회에서는 단기봉사단이 정량적 가시적 성과를 얻기가 어려움을 문제로 지적함. 그러나 대학생 인적자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중장기적 인재양성에 대한 미래투자적 측면이 간과됨. 중장기적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미래투

자이자 정부정책 이행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3) 사회봉사 진입장벽

- 예산, 네트워크 및 정보 부족 등 대학의 진입장벽 낮추는 역할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수행해야 함.
- 취약계층 대학생들에게 우선적인 해외봉사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포용적 사회로 가는 토대 마련.
- ODA 정부차원 단기 중기 봉사단 사업을 확대하여 대학 및 학생들에게 참여 기회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성.
- 정부예산증액을 통해 참가비 부담이 가능할 경우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단원 파견에 나설 것으로 전망 됨.
- 신규 참여 대학에는 선제적인 참여 컨설팅 제공하는 시스템 형성.

4. 토론자: 임형택(선문대학교, 교수)

1) 선문대학교 해외봉사활동 지원 현황

- 선문대학교 사회봉사센터 1998년에 설립되어 2010년부터 해외봉사 활동 시작하여 캄보디아로 매년 파견. 국비 투입하여 전공연계 해외봉사활동을 주력으로 하고 있음.
- 대사협으로부터 매년 1,000만원 지원받아 1회, 교비로 1회 총 연 2회 진행.
- 한국어과, 간호학과 등 전공을 살려 문화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습 기회 제공.
- 지역 사회봉사단체, 의료진 등과 연계하여 현지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하여 교육봉사, 노력봉사 등 진행.
- 파푸아뉴기니로 진출하기 위해 준비 중임.
- 해외봉사활동에 1억 예산 지원, 혁신지원사업 등의 국책사업에 관여함.



2) 과정 상의 어려움

- 현지의 입장에서 통역, 인건비 등의 부담
- 자원확보에 어려움
- 국내 후원물품 확보(학용품, 의약품 등)
- 응급환자 발생하는 경우 대처 미흡

3) 정부 지원 요청 사항

- 해외봉사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
- 해외봉사 현황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 해외봉사 단체들 간 협업 체계 필요
- 현지 정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코이카 등 현지에 있는 국내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 현지 전문 안내요원, 통역요원 등 지원 필요

5. 송두진(대구가톨릭대학교, 국제교류팀장)

- 현지 수요 조사 후 무엇을 제공할지 교육부, 외교부, 산자부 등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교육 ODA가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처럼 ODA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면,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더 나은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음.
- 정부와 대사협 등 여러 기관의 통섭적이고 융합적인 프로젝트를 신규 기획해서 할 수 있다면 참여의 봉사보다는 현지와 협력 또는 공동 개발에 좀 더 가시적인 결과가 있기를 희망함.

Ⅲ 홍보 포스터 및 이메일 초청장

1. 홍보포스터



2. 이메일초청장(E-Letter)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

2019. 11. 28(목) 09:30~18:00 노보텔 엠버서더 동대문

주최 교육부 주관 NRF 한국연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귀하를 초대합니다

교육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기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제사회는 비약적인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온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국가발전의 비전을 꿈꾸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배우고자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부는 다양한 교육개발협력의 주제와 함께 개발도상국과의 교육 분야 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교육 ODA 컨퍼런스'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개발원이 함께 준비하는 제 6회 교육 ODA 컨퍼런스는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고등교육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여 고등교육 개발협력의 다양성과 질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상생의 고등교육 협력 전략과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컨퍼런스에 참석하시어 우리나라 고등교육 개발협력의 발전을 위해 경험과 고견을 나눠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정혜** 한국교육개발원장 **반상진**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시 간	내 용		
09:00~09:30	참가자 등록 및 인사		
09:30~10:00	개 회 식		
10:00~10:30	기조강연	국제교류에서 개발협력으로 : 고등교육 ODA 상생의 길을 묻다 오준(경희대)	
10:30~12:00	[세션 I] 고등교육 개발협력 현황: 다양성과 질 제고	수혜에서 공여로: 타슈켄트 의대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이끈다 최재욱(고려대) Shining Uzbekistan: The Future of Tashkent Medical Academy with Korea Tuychiev Laziz Nadirovich(타슈켄트 의대)	
12:00~13:30	오찬		
13:30~14:30	[세션 II] 고등교육 개발협력 전략: 신남방 국가와의 파트너십	신남방 국가와의 고등교육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채재은(가천대)	
14:30~16:00	[세션 III] 고등교육 개발협력 성과: 우수인재의 육성	나까지 세계로 자라자 인재로! 대학생 해외파견 봉사활동의 성과 서혜애(부산대) 개발도상국에서 더 넓은 세상을 만나다 김은혜(숭실대) 김혜원(대구가톨릭대) 문도현(이화여대) 박종찬(서울대) 송유선(전북대)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Ronel Laranjo, Michelle Palumbani(필리핀 국립대) Anjali Singh, Rajesh Kumar(서른대) Chhun Theavy, Yolanda Normagupita(한국학중앙연구원)	
16:00~16:30	휴식		
16:30~18:00	[종합토론] 고등교육 개발협력의 비전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대학의 역할을 논하다 좌장 : 변기웅(고려대) 토론 : 장재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송두진(대구가톨릭대) 한윤식(한양대) 임영택(선문대)	주요 발표자 참여토론
18:00	폐회식		

컨퍼런스 사전등록

등록마감일 : 11. 25.(월) 까지

3. 홍보내용

1) 이메일 초청장 메일링

가. 유관기관 메일링

구분	기관 명	메일링 대상
주최	교육부	관련 담당부서 직원
주관	한국연구재단	관련 담당부서 직원
주관	한국교육개발원	전 직원

나. 교육개발협력 관련 전문가 및 전년도(1-5회) 참석자 메일링

구분	기관 명	이름
대학	강원대학교	윤희숙
	한림대학교	권형주
	김포대학교	안정근
	포항공과대학교	허종
	한밭대학교	오용준
	가천대학교	채재은
	서울시립대학교	신창환
	건국대학교	이재석
	숙명여자대학교	박소영
	공주대학교	김훈호
	경희대학교	손혁상
	경희대학교	곽재성
	충남대학교	박환보
	숙명여자대학교	최동주
	이화여자대학교	김은미
기관 및 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이혜경
	한국수출입은행	김재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철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보선

다. 주관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게시

구분	내용
한국 교육개발원	알림마당 공지사항 입찰공고 보도자료 동영상자료 행사-세미나 > 행사안내 > 행사갤러리 해외연수/출장보고서 채용공고(정규직 및 계약직) 행사안내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발시 : 2019.11.28 (목) 09:30~18:00 장소 : 서울 플라자 호텔 컨퍼런스 문의 : 043-530-9550 주최 : 교육부 주관 :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개발원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주최: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 *발시: 2019.11.28 (목) 09:30~18:00 *장소: 서울 플라자 호텔 컨퍼런스 *주최: 교육부 *주관: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개발원 *자세한 내용은 속첨성을 참고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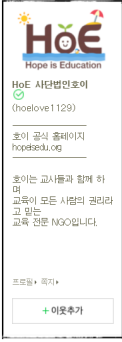
라.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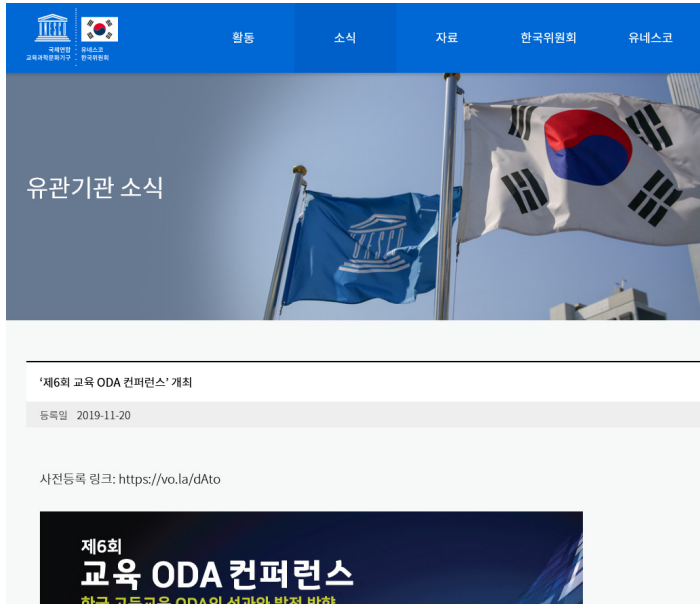
구분	기관 명	내용
유관	강원 국제개발 협력센터	강원 국제개발협력센터 홈 센터소개 공지사항 센터소식 공지사항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교육부 주최) 

구분	기관 명	내용
유관	대구 국제개발 협력센터	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 홈 소개 센터소식 주요업무 6 센터소식 [한국교육개발원] 11월 28일(목) 제 6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교육부는 다양한 교육개발협력의 주체와 함께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 분야 협력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교육 ODA 컨퍼런스'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컨퍼런스에 참석하시어 우리나라 고등교육 개발협력의 발전을 위해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컨퍼런스 사전등록 : https://vo.la/5oqn 
유관	전북 국제개발 협력센터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첫화면 홈 공지사항 센터소개 공지사항 제 6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2019.11.28.(목), 09:30-18:00 노보텔 엠버서더 동대문에서 교육부 주최로 '제 6회 교육 ODA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사전등록링크 : https://vo.la/dA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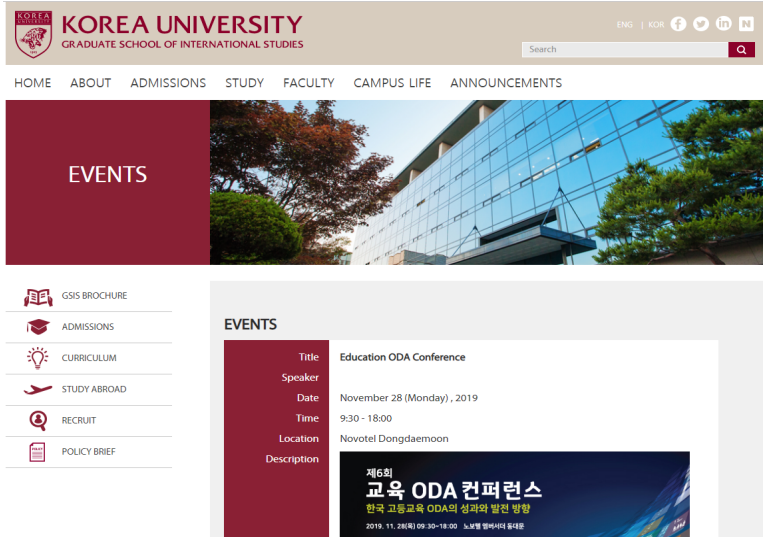
구분	기관 명	내용
유관	4MUTH 누구나 국제 개발협력을 할 수 있는 세상	 누구나 국제개발협력을 할 수 있는 세상 4MUTH FOR ME, FOR YOU, FOR US, AND FOR EARTH ▼ 다음글 목록 [한국교육개발원] 제 6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11.28) [대외활동]국내활동 2019.11.22 20:55 보관 수정 삭제 greatutd222(grea****) 우수멤버 https://cafe.naver.com/4mku/14274 [주소복사] 4MUTH ※ 게시된 글 4MUTH 페이스북에 공유 될 수 있습니다. -> 원치 않는 분은 쪽지나 메일 전송 ※ 또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이 없는 일반 행사 홍보 등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du_master@naver.com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 2019. 11. 28(목) 09:30~18:00 노보텔 엠버서더 동대문
유관	국경 없는 교육가회 (EWB)	 EWB With EWB ABOUT EWB OUR BUSINESS EWB NEWS 공지사항 공지사항 [한국교육개발원] 11월 28일(목) 제 6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EWB 10시간 전 URL 복사 +이웃추가 #한국교육개발원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 2019. 11. 28(목) 09:30~18:00 노보텔 엠버서더 동대문 주최 교육부 주관 NRF 한국연구재단 공동주최 한국교육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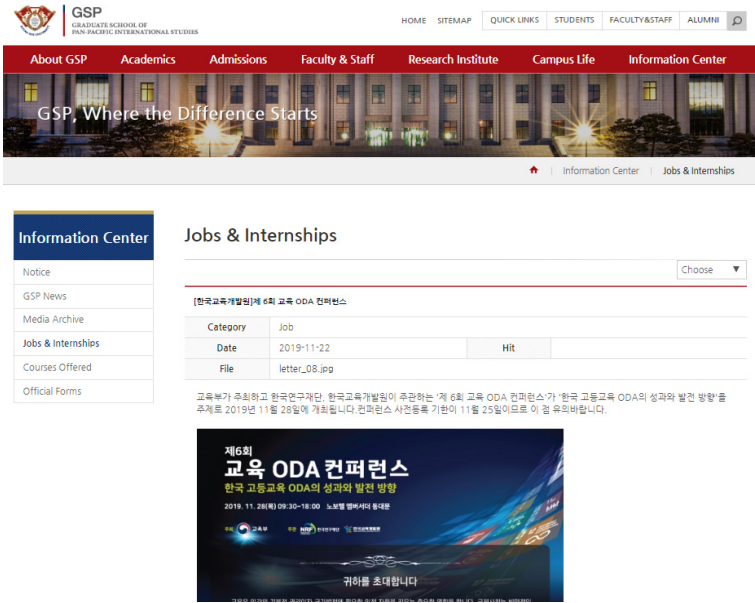
구분	기관 명	내용
유관	ODA 전문가 모임	 Korean ODA Experts Society ODA 전문가 모임 카레정보 나의활동 이나라 김용만닷컴 since 2018.11.20. 카레소개 세잇5단계 783 회 초대하기 ★ 즐겨찾는 멤버 36명 회 게시물 구독수 1회 회 우리카레업 수 2회 카레 글쓰기 카레 채팅 ★ 즐겨찾는 게시물 다음글 [한국교육개발원] 제 6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11.28) ODA 자료실 밍기밍기(grea****)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 2019. 11. 28(목) 09:30~18:00 노보텔 엠버서더 동대문
유관	국제 개발컨설팅 (KODAC)	KODAC 국제개발컨설팅 코단 Korea Overseas Development and Consulting Who we are 한국교육개발원 제 6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KODAC Press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제 6회 교육 ODA 컨퍼런스'가 2019년 11월 28일 개최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사전등록 마감일은 11.25.(월) 까지 입니다. 사전등록 링크: https://vo.la/5oqn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 2019. 11. 28(목) 09:30~18:00 노보텔 엠버서더 동대문 주최: 교육부, 주관: NRF 한국연구재단, 후원: 한국교육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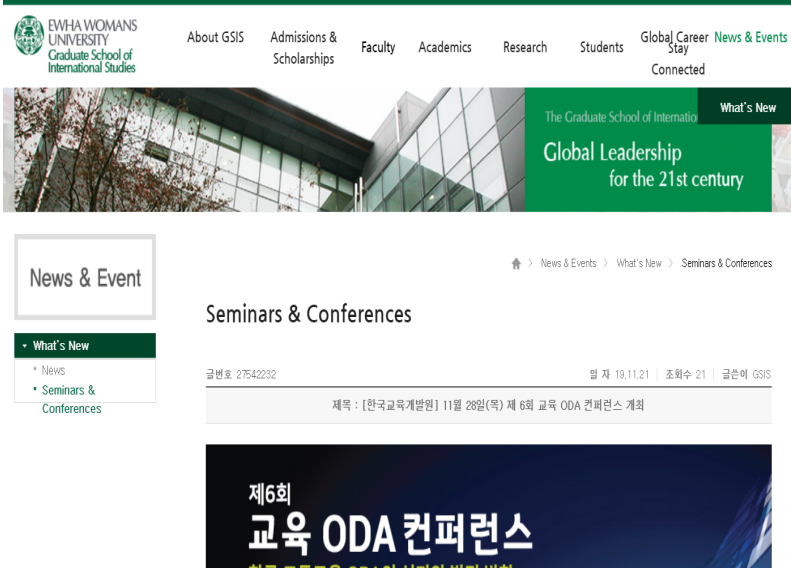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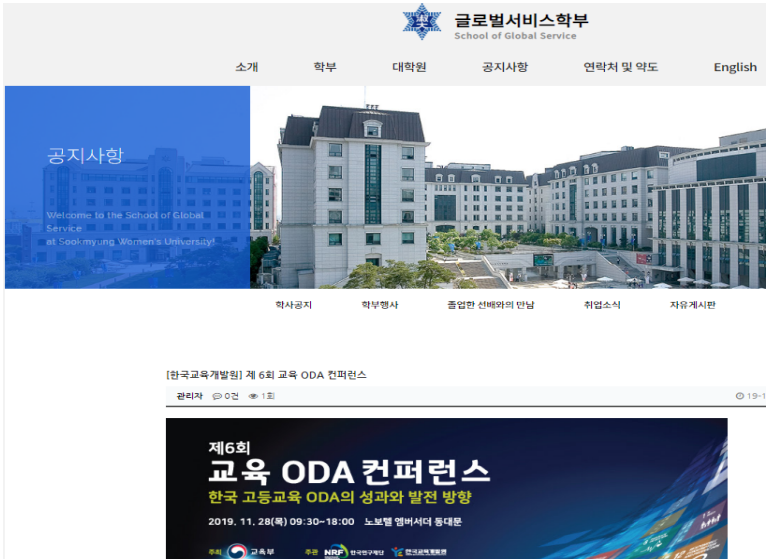
구분	기관 명	내용
유관	사단법인 호이 (Hope is Education)	 공자 아직 끝나지 않은 크리스마스 "2019 올한겨울 호이 북 선물" 공자 2018 연차보고서 발행 공자 KBS 스페셜 호이 아프리카 10년의 기록 - HoE와 함께 해요! (2) 기타 홍보 3개의 글 독특열기 기타 홍보 제 6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안내 - 11월 28일 (목) HoE HoE 사단법인호이 - 2019. 11. 20. 17:30 URL 복사 +이웃추가 안녕하세요? 제 6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소식을 전해드려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전등록 링크: https://vo.la/dAto 
유관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KCOC)	 홈 사이트맵 English 로그인 회원가입 KCOC는 사업소개 회원단체 활동참여 지식센터 활동참여 > 공저사항 > KCOC 교육알림 > KCOC NOW > 국제개발협력동향 > 국제개발협력 행사 > 배분/입력사업 정보 > 국별 활동정보 > 채용정보 > 해외봉사활동 > 자유게시판 > FAQ 자유게시판 HOME > 활동참여 > 자유게시판 • KCOC에 문의나 제안이 있으신 경우, 본 자유게시판나 ngokcoc@ngokcoc.or.kr로 연락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KCOC 회원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외에 게시판은 회원단체만 이용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6회 교육 ODA 컨퍼런스 작성자 교육부 19-11-27 16:01 조회 65회 댓글 0건 사전등록 링크: https://vo.la/dA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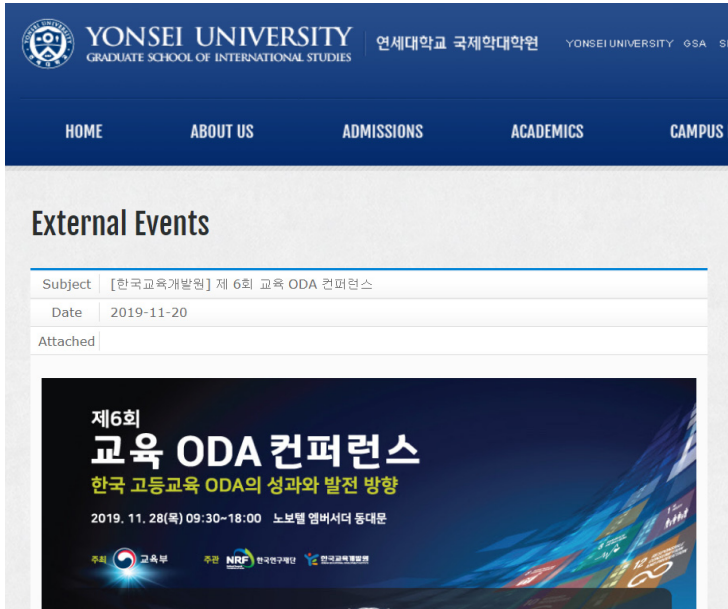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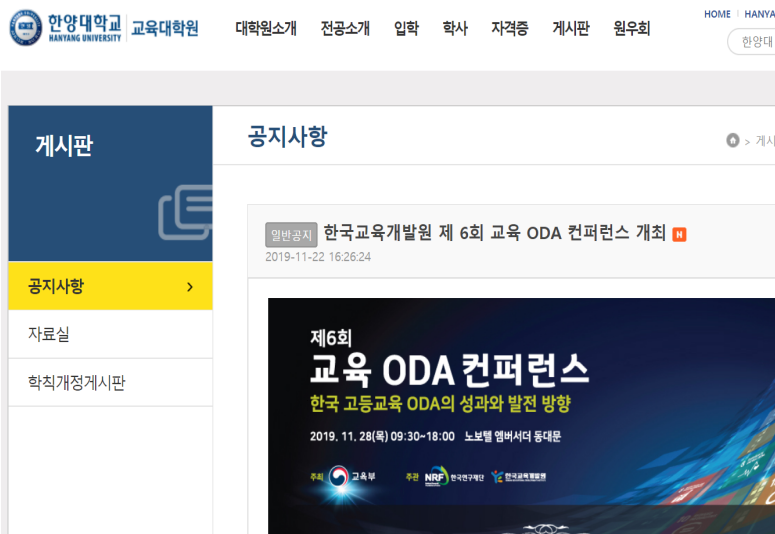
구분	기관 명	내용
유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마. 대학(원) 관련 전공 홈페이지 게시

대학(원) 명	내용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대학(원) 명	내용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대학(원) 명	내용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숙명여대 글로벌서비스학부	

대학(원) 명	내용
연세대 국제대학원	 The screenshot shows the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website. The main heading is 'External Events'. Below it, a table lists an event: Subject [한국교육개발원] 제 6회 교육 ODA 컨퍼런스, Date 2019-11-20, and Attached (empty). Below the table is a large banner for the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6th Education ODA Conference) with the subtitle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 (Achievement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Higher Education ODA in Korea). The event is scheduled for 2019. 11. 28(목) 09:30~18:00 at the Nobotel Ambassador Dongdaemun. Logos for the Ministry of Education, NRF, and the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are visible at the bottom of the banner.
한양대 교육대학원	 The screenshot shows the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websit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like '대학원소개', '전공소개', '입학', '학사', '자격증', '게시판', and '원우회'. A sidebar on the left contains '게시판' (Notice Board) with a sub-menu '공지사항' (Notice) highlighted.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공지사항' and displays a notice for the '한국교육개발원 제 6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6th Education ODA Conference by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dated 2019-11-22 16:26:24. Below the notice is a large banner for the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6th Education ODA Conference) with the subtitle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 (Achievement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Higher Education ODA in Korea). The event is scheduled for 2019. 11. 28(목) 09:30~18:00 at the Nobotel Ambassador Dongdaemun. Logos for the Ministry of Education, NRF, and the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are visible at the bottom of the banner.

대학(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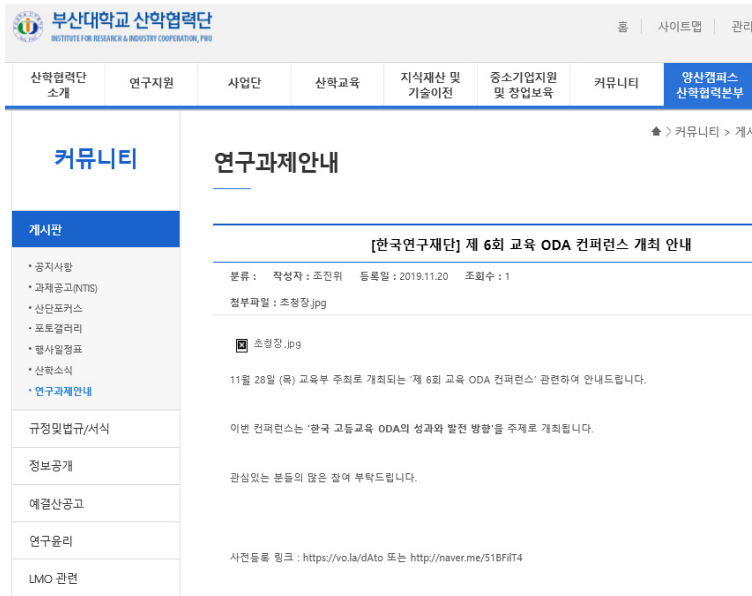
내용

서울대
글로벌
교육협력전공

홈 > 게시판 > 공지사항

제목	제 6회 교육 ODA 컨퍼런스: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방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1-20
조회	24		
파일	ODA컨퍼런스.jpg [490kb]		

영남대 새마을
국제개발학과

대학(원) 명	내용
부산대 산학협력단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커뮤니티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상단에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로고와 '홈', '사이트맵', '관리' 메뉴가 있습니다. 메인 메뉴에는 '산학협력단 소개', '연구지원', '사업단', '산학교육',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 '중소기업지원 및 창업보육', '커뮤니티', '임상경험 산학협력본부'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섹션에는 '게시판' (공지사항, 과제공고(NTIS), 산단포커스, 포토갤러리, 행사일정표, 산학소식, 연구과제안내), '규정및법규/서식', '정보공개', '예결산공고', '연구윤리', 'LMO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과제안내 섹션에는 '[한국연구재단] 제 6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안내'가 있습니다. 분류: 작성자: 조진위 등록일: 2019.11.20 조회수: 1 첨부파일: 초청장.jpg. 11월 28일 (목) 교육부 주최로 개최되는 '제 6회 교육 ODA 컨퍼런스'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진등록 링크: https://vo.la/dAto 또는 http://naver.me/51BFtT4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홈페이지의 커뮤니티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상단에는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로고와 '대학/대학원', '입학/취업', '대학생활', '연구/산학', '커뮤니티', '대학정보' 메뉴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섹션에는 '공지사항' (교내공지, 교내제출, 특강제출), '뉴스광장', '견지광장'이 있습니다. 교내공지 섹션에는 '행사 제 6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가 있습니다.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2019.11.20 조회 405. 2019.11.28 (목), 09:30-18:00 노보텔 열버서더 동대문에서 교육부 주최로 '제 6회 교육 ODA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사진등록링크: https://vo.la/dAto. 포스터에는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 2019. 11. 28(목) 09:30~18:00 노보텔 열버서더 동대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후원: 교육부, NRP,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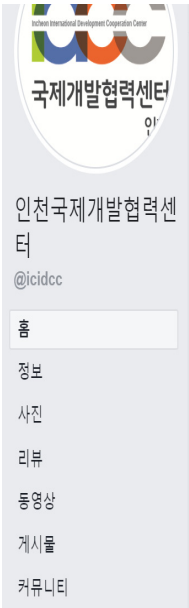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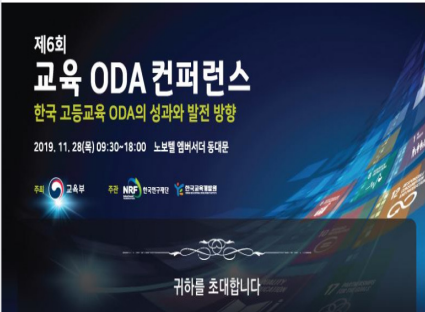
3. SNS 및 소셜 네트워크 홍보

가. 한국교육개발원 및 유관기관 SNS(페이스북, 블로그, 카페)에 홍보물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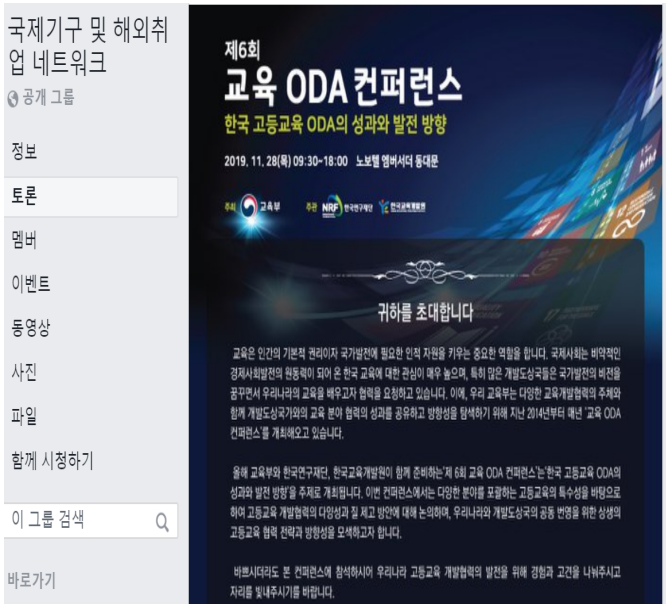
나. 국제개발협력 및 관련 SNS(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등) 홍보물 게재

구분	이름	내용
페이스북	한국 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KEDIPR 홈 정보 커뮤니티 게시물 동영상 사진 KEDI Twitter KEDI Youtube 좋아요 11 공유 6회 한국교육개발원 5시간 ·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개발원은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합니다. *일시: 2019.11.28.(목), 09:30~18:00 *장소: 서울 동대문 노보텔 엠버서더 *주제: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 *사전등록: http://naver.me/xyQLy0Hz 교육 ODA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 2019. 11. 28(목) 09:30~18:00 노보텔 엠버서더 동대문
페이스북	대구 국제개발 협력센터	 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 @dgidcc 홈 게시물 사진 리뷰 정보 동영상 커뮤니티 노트 페이지 만들기 좋아요 11 공유 6회 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 어제 오후 5:49 · 🌐 [한국교육개발원] 11월 28일(목) 제 6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교육부는 다양한 교육개발협력의 주제와 함께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 분야 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교육 ODA 컨퍼런스'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컨퍼런스에 참석하시어 우리나라 고등교육 개발협력의 발전을 위해 경험과 고견을 나눠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보기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 2019. 11. 28(목) 09:30~18:00 노보텔 엠버서더 동대문

구분	이름	내용
페이스북	제주 국제개발 협력센터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 @jidcc 홈 정보 사진 동영상 리뷰 게시물 게시물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 6시간 · 🌐 [홍보/외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제 6회 교육 ODA 컨퍼런스'가 11월 28일(목) 9:30-18:00, 노보텔 엠버서더 동대문에서 열립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사전등록 링크: https://vo.la/5oqn 등록마감일 11월25일 월요일까지! 🙌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 2019. 11. 28(목) 09:30-18:00 노보텔 엠버서더 동대문
페이스북	강원 국제개발 협력센터	 강원국제개발협력센터 @gwidcc 홈 정보 사진 이벤트 동영상 게시물 커뮤니티 노트 좋아요 · 댓글 · 공유하기 강원국제개발협력센터 11월 20일 오후 3:01 · 🌐 제 6회 교육 ODA 컨퍼런스(교육부 주최) 사전등록 링크: https://vo.la/dAto 문의처 : ODA 컨퍼런스 운영사무국 TEL : 043-530-9550 E-mail : kihanso222@kedi.re.kr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 2019. 11. 28(목) 09:30-18:00 노보텔 엠버서더 동대문 귀하를 초대합니다 교육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발전의 중요한 인적 자원을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제사회는 비약적인 글로벌화발전의 흐름에 힘입어 다양한 국가 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국가발전의 비전을

구분	이름	내용
페이스북	전북 국제개발 협력센터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jbidcc 홈 정보 사진 리뷰 동영상 게시물 좋아요 팔로잉 공유하기 ... 게시물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11월 20일 오후 9:15 · 🌐 [제 6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2019.11.28.(목), 09:30-18:00 노보텔 엠버서더 동대문에서 교육부 주최로 '제 6회 교육 ODA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사전등록링크 : https://vo.la/dAto 
페이스북	인천 국제개발 협력센터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 @icidcc 홈 정보 사진 리뷰 동영상 게시물 커뮤니티 게시물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 12시간 · 🌐 [모집/공고]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개발원이 함께 11월28일(목)에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더 보기 

구분	이름	내용												
페이스북	한국 국제개발 협력센터	 KIDC KOREA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ENTER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 @kidc.or.kr 홈 게시물 리뷰 동영상 사진 정보 커뮤니티 그룹 페이지 만들기 좋아요 팔로잉 공유하기 ... 게시물을 작성하세요... 사진/동영상 친구 태그하기 체크인 ... 게시물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 4시간 · '제 6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가 곧 개최되네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o 사전등록 링크: https://vo.la/5oqn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 2019. 11. 28(목) 09:30~18:00 노보텔 엠버서더 호텔 주최: 교육부, KIDC,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페이스북	코피온 (COPION)	 코피온 코피온 @copion 홈 정보 이벤트 사진 동영상 커뮤니티 모두 보기 게시물  코피온 5시간 · [코피온 안내] 교육 ODA 컨퍼런스 등록 마감임박!!!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가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로 2019년 11월 28일 동대문 노보텔 엠버서더에서 개최됩니다. ... 더 보기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table><tr><th>시간</th><th>내용</th></tr><tr><td>09:00-09:30</td><td>참가자 등록 및 인사</td></tr><tr><td>09:30-10:00</td><td>개회식</td></tr><tr><td>10:00-10:30</td><td>기조강연 국제교육에서 개발협력으로 : 고등교육 ODA 성명의 길을 묻다 오관(경희대)</td></tr><tr><td>10:30-12:00</td><td>[세션 I] 고등교육 개발협력 현황: 다국립과 일 제국 수혜에서 공여로: 타슈켄트 의대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아룬다 최재익(고려대)</td></tr><tr><td></td><td>Shining Uzbekistan: The Future of Tashkent Medical Academy with Korea Tuychev Latiz Nadirovich(타슈켄트 의대)</td></tr></table>	시간	내용	09:00-09:30	참가자 등록 및 인사	09:30-10:00	개회식	10:00-10:30	기조강연 국제교육에서 개발협력으로 : 고등교육 ODA 성명의 길을 묻다 오관(경희대)	10:30-12:00	[세션 I] 고등교육 개발협력 현황: 다국립과 일 제국 수혜에서 공여로: 타슈켄트 의대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아룬다 최재익(고려대)		Shining Uzbekistan: The Future of Tashkent Medical Academy with Korea Tuychev Latiz Nadirovich(타슈켄트 의대)
시간	내용													
09:00-09:30	참가자 등록 및 인사													
09:30-10:00	개회식													
10:00-10:30	기조강연 국제교육에서 개발협력으로 : 고등교육 ODA 성명의 길을 묻다 오관(경희대)													
10:30-12:00	[세션 I] 고등교육 개발협력 현황: 다국립과 일 제국 수혜에서 공여로: 타슈켄트 의대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아룬다 최재익(고려대)													
	Shining Uzbekistan: The Future of Tashkent Medical Academy with Korea Tuychev Latiz Nadirovich(타슈켄트 의대)													

구분	이름	내용
페이스북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KNCU @unesco.kr 홈 게시물 리뷰 사진 동영상 정보 그룹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 2019. 11. 28(목) 09:30~18:00 노보텔 엠버서더 동대문 주최: 교육부, NRF 한국연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귀하를 초대합니다 교육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국가발전의 중요한 인적 자원을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제사회는 비약적인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온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국가발전의 비전을 공유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배우고자 할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부는 다양한 교육개발협력의 주체와 함께 개발도상국가의 교육 분야 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교육 ODA 컨퍼런스'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개발원이 함께 준비하는 제 6회 교육 ODA 컨퍼런스는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고등교육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여 고등교육 개발협력의 다양성과 질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상생의 고등교육 협력 전략과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비즈니스리더도 본 컨퍼런스에 참석하시어 우리나라 고등교육 개발협력의 발전을 위해 경험과 고견을 나눠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페이스북	국제기구 및 해외취업 네트워크	 국제기구 및 해외취업 네트워크 공개 그룹 정보 토론 멤버 이벤트 동영상 사진 파일 함께 시청하기 이 그룹 검색 바로그가기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 2019. 11. 28(목) 09:30~18:00 노보텔 엠버서더 동대문 주최: 교육부, NRF 한국연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귀하를 초대합니다 교육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국가발전의 중요한 인적 자원을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제사회는 비약적인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온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국가발전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배우고자 할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부는 다양한 교육개발협력의 주체와 함께 개발도상국가의 교육 분야 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교육 ODA 컨퍼런스'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개발원이 함께 준비하는 제 6회 교육 ODA 컨퍼런스는 한국 고등교육 ODA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고등교육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여 고등교육 개발협력의 다양성과 질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상생의 고등교육 협력 전략과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비즈니스리더도 본 컨퍼런스에 참석하시어 우리나라 고등교육 개발협력의 발전을 위해 경험과 고견을 나눠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이름	내용
페이스북	국경 없는 교육가회 (EWB)	

기술보고 TR 2020-07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사업 결과보고서

발 행 2020년 3월
발 행 인 원장 반 상 진
발 행 처 한국교육개발원
주 소 (우)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
전 화 (043) 5309 - 114
팩 스 (043) 5309 - 499
등록번호 1973년 6월 13일, 제16-35호
인 쇄 처 (주)디엔비크리에이티브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